

FTA 협상에 따른 가공식품 및 식품·외식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 성 훈 전문연구원
이 계 임 연구위원
김 윤 식 부연구위원
장 도 환 연구원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김성훈 전문 연구원 연구 총괄, 제1-5장 집필
이계임 연구 위원 제2장, 제4장 집필
김윤식 부 연구 위원 제2장, 제3장 집필
장도환 연구 원 자료수집, 제2장 집필

제 출 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이 보고서를 “FTA 협상에 따른 가공식품 및 식품·외식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간: 2007년 6월 11일 ~ 12월 10일

연구책임자: 김성훈 전문연구원

2007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머 리 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이 체결된 이후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은 시장개방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타결된 한·미 FTA와 협상이 진행 중인 한·EU FTA의 경우 우리나라 가공식품산업과 외식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FTA의 산업별 영향 분석 중 농업부문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것에 비해 가공식품 및 외식산업 부문의 영향 분석은 연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가공식품 및 외식산업을 포괄하는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선진국들은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FTA 협상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식품산업 시장에 자국의 식품산업을 진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관련 연구 및 논의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식품 교역 국가들의 식품산업 현황과 교역 상황을 분석하고, 한·미 FTA 체결이 가공식품산업과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유가공산업의 경우 주요 품목별 파급효과를 수리적 분석을 통해 계측하여 그 결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결과가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영향 분석과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FTA 협상에 따른 가공식품 및 식품·외식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진 : 김성훈, 이계임, 김윤식, 장도환

연구기간 : 2003. 6.~2003. 1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가공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의 현황과 교역상황을 분석하고, 최근 체결된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이 가공식품 및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한·미 FTA 체결이 개별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기 위해, 주요 유제품산업을 대상으로 한 수리적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가공식품·외식산업 현황 및 교역 상황

- 우리나라와 주요국(미국, 중국, 호주, EU)의 가공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을 각각 개관
 - 가공식품부문을서 주요국(미국, EU, 중국, 호주 등)과 우리나라와의 교역상황을 분석
- 식품부문에 대한 FTA 및 DDA 분석
 - 우리나라 식품부문에 대한 한·미 FTA 체결 결과 분석
 - 식품부문과 관련된 DDA 논의 쟁점 분석
- FTA 체결에 따른 가공식품산업의 영향 분석
 - 한·미 FTA 체결이 미치는 우리나라 가공식품산업의 부문별 영향을 분석
 - 주요 유가공품 산업에 대한 한·미 FTA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계측
- FTA 체결에 따른 시사점
 - FTA 체결이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정리 및 시사점 제시

3. 연구결과

먼저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호주, EU의 가공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가공식품 교역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와 중국은 가공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초기 발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미국, 호주, EU의 식품산업은 성숙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과 수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곡실류, 식물성재료, 조제농산식품은 중국산 식품 수입이 가장 많았고, 농림부산물, 기

호식품, 축산부산물은 미국산 식품 수입이 많았다. 반면 수출의 경우 기호식품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많았고, 식물성재료와 조제농산식품 등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많았다.

다음으로 식품부문에 대한 FTA 및 DDA 협상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한·미 FTA 경우 유가공품, 과채가공품, 육가공품, 곡물가공품, 식용유지 등의 품목군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이중 특히 국내 식품산업과 관련 농업분야에의 파급효과가 큰 유가공품, 과채가공품, 육가공품 등에 대한 협상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DDA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 쟁점사항인 특별품목(SP), 개도국 특별우대조치(SSM), 관세할당(TRQ)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미 FTA 체결에 의한 가공식품산업의 파급효과를 부문별로 분석하였다. 가공식품산업에 대한 품목별 분석 결과 유가공품은 미국산 완제품 수입 증대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유가공품 생산의 투입재로 사용되는 분유 등의 수입가격 인하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채가공품의 경우 미국산 완제품 수입 증대로 인한 부정적 효과보다는 원료 농축액 수입가격 인하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이나, 감귤주스는 오렌지 주스의 대체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육가공품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되고, 곡물가공품, 식용유지, 빵·과자·국수류는 긍정적인 효과가 다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기타식료품, 알콜음료 등은 세부 품목에 따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미 FTA 체결이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되는 데, 이는 한·미 FTA 체결이전에 외식 서비스 시장의 상당부분이 이미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대규모의 외국 자본의 국내 외식시장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세규모의 국내 외식업체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실증적인 FTA 영향 분석을 위해 주요 유가공품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품목으로 분유,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을 선정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수요 탄성치 추정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기초 자료의 부족으로 치즈와 버터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완료하였다. 분석결과, 한·미 FTA을 통해 현행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는 가정을 적용하였을 때 미국산 치즈와 버터의 수요가 증가하여 기타 수입국산 제품과 국산 제품의 시장을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내 치즈 및 버터생산업체의 매출도 일부 줄어드는 등의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시뮬레이션 분석은 정태모형에 기반을 둔 분석이라는 제약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유가공산업의 영향을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FTA 체결이 가공식품산업과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동안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수리적 분석을 통한 가공식품산업의 영향 계측은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다만 기초 자료 수집의 한계로 분석이 제한된 아쉬움이 있지만, 후속 연구와 관련 논의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평가된다.

ABSTRACT

Analysis for Evaluation of the Impact of FTA on the Korean Food processing and Service Industry

FTA results in a huge change in the environment of the food processing and service industry in Korea. However, even though lots of research and discussion have been conducted to measure the impact of Korea-US FTA on Korean agriculture, little research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FTA on the Korean food processing and service industry.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over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food processing industry and/or food service industry in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and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Korea-U.S. FTA on the Korean food processing and service industry.

The study starts our discussion with an analysis about the current status of food processing industry and/or food service industry in Korea, the United States, China, Australia, and the European Union and an overview of the trade between Korea and these countries. Then, after the discussion about the Korea-U.S. FTA and DDA for opening the Korean market of food processing industry, we evaluate the impact of the Korea-U.S. FTA on the Korean food processing and service industry. For more specific discussions, we conducted numerical simulation analysis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Korea-U.S. FTA on the Korean cheese and butter industry.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analysis present that the Korea-U.S. FTA will cause a decrease in the sales of Korean cheese and butter. Due to the shortage of raw-data for econometric estimation,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are limited. However, this study, which is one of the first studies measuring the impact of the Korea-U.S. FTA on Korea food processing industry, may be the baseline for further research and discussion.

Researchers: Sounghun Kim, Kyei-Im Lee, Yun-shik Kim

Research period: 2007. 06. - 2007. 12.

E-mail address: shkim@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선행 연구 검토 3
- 3. 연구의 내용 7
- 4. 연구 범위와 분석 방법 9

제2장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가공식품·외식산업 현황 및 교역 현황

- 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가공식품·외식산업 현황 11
- 2. 가공식품의 교역 현황 82

제3장 식품부문에 대한 FTA 및 DDA 분석

- 1. 식품부문에 대한 한·미 FTA의 타결 내용 분석 97
- 2. 식품부문에 대한 DDA 논의 쟁점 110

제4장 FTA 체결에 따른 가공식품산업의 영향 분석

- 1. 한·미 FTA 체결에 의한 가공식품·외식산업의 영향 117
- 2. 한·미 FTA 체결에 의한 유가공산업의 영향 분석 145

제5장 결론 및 제언 159

참고 문헌 162

표 차 례

제1장

표 I-1. 국가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추진 현황	3
---	---

제2장

표 II-1. 국내 산업 대비 식품산업 비중	12
표 II-2. 주요 품목별 가공식품 수출 추이(전체)	15
표 II-3. 주요 품목별 가공식품 수출 추이(미국)	16
표 II-4. 주요 품목별 가공식품 수출 추이(전체)	18
표 II-5. 주요 품목별 가공식품 수출 추이(미국)	19
표 II-6. 국내 외식산업의 시장규모	20
표 II-7.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 구성비 변화	21
표 II-8. 음식점업의 업종별 사업체 수, 종사자수, 매출액 추이 (2005)	22
표 II-9. 국내 브랜드 해외 진출 현황 (기업체수)	23
표 II-10. 국내 브랜드 해외 진출 현황 (브랜드별)	24
표 II-11. 한국의 대미 투자현황	26
표 II-12. 해외브랜드 국내 유입 현황 (2007)	28
표 II-13. 미국의 산업별 한국에 대한 투자동향 (1962~2004년 누적치)	30
표 II-14. 제조업에서 가공식품산업의 비중 (부가가치 기준)	32
표 II-15. 품목별 가공식품산업 생산 규모 (2005)	34
표 II-16. 가공식품 품목별 종사자 수 규모 (2005)	35
표 II-17. 가공식품 품목별 수출 규모 (2005)	37
표 II-18. 주요 국가별 가공식품류 수출 추이 (상위 5개국)	37

표 II-19.	지역별 가공식품류 수출 현황 (2005)	38
표 II-20.	주요 국가별 음료류 수출 추이 (상위 5개국)	39
표 II-21.	가공식품 품목별 수입 규모 (2005)	40
표 II-22.	주요 국가별 가공식품류 수입 추이 (상위 5개국)	41
표 II-23.	지역별 가공식품 수입 현황 (2005)	41
표 II-24.	주요 국가별 음료류 수출 추이 (상위 5개국)	42
표 II-25.	2007년 추정 매출액	45
표 II-26.	중국의 식품가공산업 현황	48
표 II-27.	중국 식품가공업체 수 및 매출액	49
표 II-28.	세부 부문별 중국의 식품산업 규모	50
표 II-29.	중국의 도농간 가처분 소득 및 식료품비 차이	53
표 II-30.	중국의 도농간 1인당 식품 구매량	55
표 II-31.	중국의 식품산업 수출입	55
표 II-32.	중국의 음식 조달업 현황	56
표 II-33.	호주 식품산업 현황	58
표 II-34.	호주의 식품 수출 현황	65
표 II-35.	호주의 식품 수입 현황	67
표 II-36.	EU 25개국의 식품산업 현황 (전체)	70
표 II-37.	EU 25개국의 식품산업 현황 (국가별)	71
표 II-38.	기업 규모별 식품산업의 비중	72
표 II-39.	Various food products의 구성	74
표 II-40.	연간 개인당 식품 소비량	75
표 II-41.	EU의 주요 무역 거래국 (2005)	76
표 II-42.	신흥국가로의 수출입 현황	77
표 II-43.	식품 단일 품목별 수출입 현황 (2005)	79
표 II-44.	EU 내 식음료 수출국 (2005)	80
표 II-45.	R&D 투자 기준 EU의 상위 20개 식음료 업체 (2005)	81

제3장

표 III-1.	주요 유제품의 타결 내용	99
표 III-2.	주요 유제품의 무관세 쿼터량	100
표 III-3.	주요 과채가공품의 타결 내용	101
표 III-4.	주요 육가공품의 타결 내용	101
표 III-5.	주요 전분류의 타결 내용	102
표 III-6.	주요 전분류의 무관세 쿼터량	103
표 III-7.	주요 전분류의 긴급관세	104
표 III-8.	식용유지의 품목별 타결 내용	105
표 III-9.	빵, 과자, 면류의 품목별 타결 내용	106
표 III-10.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의 품목별 타결 내용	107
표 III-11.	기타 식료품의 품목별 타결 내용	108
표 III-12.	알콜 음료의 품목별 타결 내용	109

제4장

표 IV-1.	한·미 FTA 협상의 주요 가공식품 품목	118
표 IV-2.	유가공품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119
표 IV-3.	유가공품의 품목별 협상 결과	121
표 IV-4.	과채가공품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123
표 IV-5.	과채가공품의 품목별 협상 결과	124
표 IV-6.	육가공품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125
표 IV-7.	육가공품의 품목별 협상 결과	126
표 IV-8.	곡물가공품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127
표 IV-9.	곡물가공품의 품목별 협상 결과	128
표 IV-10.	식용유지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129
표 IV-11.	식용유지의 품목별 협상 결과	130

표 IV-12.	빵·과자·국수류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131
표 IV-13.	빵·과자·국수류의 품목별 협상 결과	132
표 IV-14.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134
표 IV-15.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협상 결과	135
표 IV-16.	기타식료품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137
표 IV-17.	기타식료품의 품목별 협상 결과	138
표 IV-18.	알콜음료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140
표 IV-19.	알콜음료의 품목별 협상 결과	140
표 IV-20.	서비스 개방수준 비교	141
표 IV-21.	분석 대상 품목 선정	146
표 IV-22.	유가공품의 수요에 대한 자체가격탄성치	154
표 IV-23.	품목별 시나리오	156
표 IV-2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56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8
-------------------------	---

제2장

그림 II-1. 음식재제조업의 사업체수, 매출액과 생산 추이	12
그림 II-2. 식품산업의 부문별 구성	13
그림 II-3. 품목별 식품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14
그림 II-4. 가공식품 생산 규모	33
그림 II-5. 가공식품 제조업 종사자 규모	33
그림 II-6. 가공식품 수출 추이 (식품류와 음료류 포함)	39
그림 II-7. 가공식품 수입 추이	43
그림 II-8. 미국 외식산업 매출액	44
그림 II-9. 중국 도시가구의 소비지출 구성 (2004)	52
그림 II-10. 주요 식품에 대한 중국 도시가구의 상대적 소비량	55
그림 II-11. 호주 제조업의 부문별 구성 (부가가치 기준)	58
그림 II-12. 호주 식품산업의 주별 분포 (2002~2003)	59
그림 II-13. 부문별 호주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60
그림 II-14. 식품산업에서 고용인당 실제 부가가치 변화 추이	61
그림 II-15. 품목별 고용인당 부가가치 변화 추이	62
그림 II-16. 호주의 수출지역별 식품 수출액 (2004)	64
그림 II-17. EU 제조업의 부문별 구성 (부가가치 기준)	69
그림 II-18. EU 제조업의 부문별 구성 (매출액 기준)	70

그림 II-19. EU 제조업 중 고용자수 비율	73
그림 II-20. 품목별 매출액 비중	73
그림 II-21. 미국과 유럽의 육류 및 유제품 소비량 비교	76
그림 II-22. 품목별 수출 비중 (2005)	78
그림 II-23. 국가별 가공식품 수출 추이 (곡실류)	82
그림 II-24. 국가별 가공식품 수출 추이 (농림부산물)	84
그림 II-25. 국가별 가공식품 수출 추이 (식물성 재료)	85
그림 II-26. 국가별 가공식품 수출 추이 (기호식품)	86
그림 II-27. 국가별 가공식품 수출 추이 (조제농산식품)	87
그림 II-28. 국가별 가공식품 수출 추이 (육류)	88
그림 II-29. 국가별 가공식품 수출 추이 (축산부산물)	89
그림 II-30. 국가별 가공식품 수출 추이 (축산조제품)	90
그림 II-31. 국가별 가공식품 수입 추이 (곡실류)	91
그림 II-32. 국가별 가공식품 수입 추이 (농림부산물)	91
그림 II-33. 국가별 가공식품 수입 추이 (식물성 재료)	92
그림 II-34. 국가별 가공식품 수입 추이 (기호식품)	93
그림 II-35. 국가별 가공식품 수입 추이 (조제농산식품)	94
그림 II-36. 국가별 가공식품 수입 추이 (육류)	95
그림 II-37. 국가별 가공식품 수입 추이 (축산부산물)	95
그림 II-38. 국가별 가공식품 수입 추이 (축산조제품)	96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을 계기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물꼬가 트인 이후, 한·EFTA¹ FTA, 한·싱가폴 FTA, 한·ASEAN² FTA, 한·미 FTA가 체결되었고, EU, 중국, 호주 등과의 자유무역협상이 진행 또는 추진 중이다.
- 그동안 체결되었거나 협상 준비 단계에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FTA 체결이 우리나라 농업 생산부문에의 구조적인 변혁을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가장 최근에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과거 체결되었던 FTA 협상 결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영향을 농업의 전 부문에 걸쳐서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 슈타인 등의 4개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국가는 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소강국임.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임.

- FTA 타결은 식품가공산업과 외식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이 뛰어난 선진국가의 식품가공산업과 외식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관련 산업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 우리나라 정부 부서는 한·칠레 FTA 체결이전부터 TF 팀을 구성하고,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부와 협의하여 FTA 체결로 인한 농업 생산부문 감소액 추정과 대책 제안 등의 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를 해왔다.
- 그러나 FTA 체결에 따른 가공식품 분야 및 식품·외식산업 관련 서비스투자분야의 영향 분석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도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FTA 체결 이후 가공식품산업과 식품·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FTA 체결에 따른 가공식품 분야 및 식품·외식산업 관련 서비스투자분야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FTA와 관련한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농업 생산부문에 미치는 FTA 영향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고, 가공식품산업과 식품·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적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협상 결과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체결된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이 가공식품 및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I-1. 국가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구 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및 추진 대상
기체결된 FTA	한·칠레 FTA (2004년 4월 1일 발효) 한·싱가폴 FTA (2006년 3월 2일 발효)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한·아세안(ASEAN) FTA 한·미 FTA (2007년 4월 2일 타결)
추진 혹은 계획 중인 FTA	한·중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인도 FTA 한·일 FTA (잠정 중단) 한·멕시코 FTA 한·남미공동체(MERCOSUR) FTA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2. 선행 연구 검토

2.1. 무역협상에 대한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향

- WTO와 FTA 협상을 비롯한 무역협상에 대한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한 국내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최세균 외의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방향」과 최세균의 “주요 FTA 대상국 농산물 관세체계 비교분석” 등이 있다.

- 최세균 외의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방향」에서는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농업협상 가운데 시장접근 분야를 분석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쟁국별 관세 구조를 비교분석하고, 관세감축 효과를 비교하였으며, 수입관리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할당 및 관세 분야의 이행계획서 작성의 기본 전략을 제안하였다.
- 최세균의 “주요 FTA 대상국 농산물 관세체계 비교분석”에서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인 국가들(캐나다, 미국, 멕시코, 남미공동체, 중국, 일본, 태국, 인도, 유럽연합)의 농산물 평균관세율과 비종가세 부과 현황 등의 관세체계들을 정리하였고, 이에 기초한 향후 FTA 협상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윤창인의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에서는 기존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산업에 대한 한·중·일 FTA 협상에 대한 주요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
- 장종근의 “WTO 체제하의 식품수출 전망”에서는 가공식품의 교역현황과 수출현황을 개관한 다음, 향후의 국산 가공식품 수출 전망을 예측하였다. 또한 수출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연구개발의 증진, 식품 가공업체의 시장개척 활성화 등이다.

2.2. 무역협상이 국내 농업 및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무역협상으로 인한 시장개방이 우리나라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것

으로 김경필 외의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방안」, 김병률 외의 「DDA 농업협상이 원예특작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성명환 외의 「WTO/DDA 협상타결이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제고 방안」, 어명근 외의 「한·일 FTA 체결과 임업부문의 정책과제」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우리나라 농업의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외생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각각 제시하였다.

- 한편 최세균 외의 「한·미 FTA 품목별 영향 분석 및 국내대책 수립과 D/B 보완 연구」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주요 농산물의 과급영향을 계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미 FTA의 농업부문 영향을 분석한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되나,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에서의 영향 분석은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 안기욱의 “WTO이후 농축산물 식품 수입자유화 현황”에서는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 수입 현황과 관리 제도를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내 식품 가공용 원료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 여정성의 “소비자 보호 차원의 식품시장 개방과 대응방안”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입식품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살펴본 다음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저가의 저급한 품질의 수입식품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소비자지향적인 정책으로의 전환, 식품 표시제도의 개선,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 임인배의 「FTA 체결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에서는 한·칠레, 한·싱가포르, 그리고 한·일 FTA 체결이 농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라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였다. 이 연구는 FTA 체결이 우리나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한 데 의의가 있으나, 비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최근의 연구로 곽창근의 “한미 FTA의 식품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이 있는데, 한·미 FTA가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국내연구로는 최초의 연구로 그 의의가 크다. 다만 FTA 체결 협정 결과가 각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만 논의하여, 계량 분석 등을 통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에는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다.

2.3. FTA의 국내 영향에 대한 해외 연구

- Summer, Lee, and Hallstrom의 “Implications of Trade Reform for Agricultural Markets in Northeast Asia: a Korea Example”에서는 부분균형모형의 하나인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을 적용하여 무역협상 등에 의한 우리나라 무역정책이 변할 때 쌀, 원예, 기타 곡류 부문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쌀의 쿼터(quota)가 0%에서 10%로 증가할 경우, 원예작물의 관세가 30%에서 15%로 감소할 경우, 양자의 경우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등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다음 이에 따른 각 부문의 가격, 생산량, 그리고 수입량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U.S.-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Establishing a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에서는 한·미 FTA로 인한 한국과 미국의 부문별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이중 우리나라의 유제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FTA 체결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유제품 수입액이 955% 증가함에 따라 국내 유제품 산업 생산액이 2.32% 감소하고 관련 노동 수요가 2%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일반균형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 등을 통한 수리적 분석(Numerical Analysis)을 실시한 것에 의미가 있으나, 포괄적인 산업별 분석으로 한정되어 있다.

2.4. 연구의 차별성

- FTA, DDA, WTO 등의 자유무역협상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상당히 많은 데, 이는 해당 사안의 중대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기존 선행 연구들은 자유무역협상이 식품산업 또는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거의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TA 협상 결과가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연구 내용 또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
- 본 연구는 FTA 협상 결과가 우리나라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유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경우, 부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을 통한 수리적 분석을 실시하여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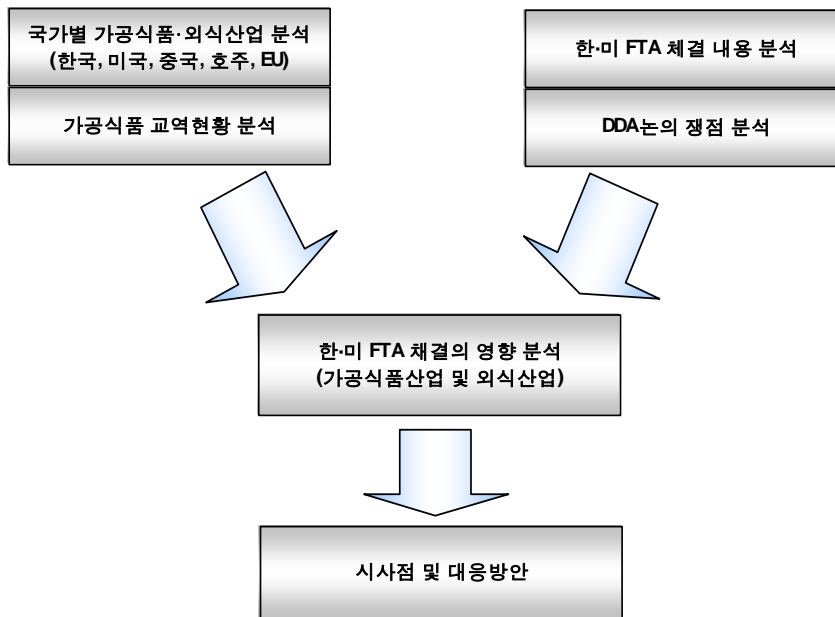
3. 연구의 내용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미국, 중국, 호주, EU)의 국가별 가공식품

산업 및 외식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다음, 우리나라와 주요국가간의 가공식품 교역 현황을 분석한다.

- 제3장에서는 식품부문에 대한 한·미 FTA 협상 결과와 DDA 논의 쟁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제4장에서는 한·미 FTA 체결 등의 시장개방이 우리나라 가공식품산업과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전반적인 산업별 분석을 실시한 다음, 주요 유가공품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영향을 부분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 제5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기한다.

그림 I-1. 연구 추진 체계도



4. 연구 범위와 분석 방법

4.1. 연구 범위

- 가공식품·외식산업에 대한 국가별 현황 분석과 가공식품 교역 현황 분석은 우리나라와 주요국(미국, 중국, 호주, EU)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FTA 협상 결과 분석은 한·미 FTA 협상 결과 중 가공식품·외식산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가공식품산업의 영향 분석은 가공식품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을 개관한 다음, 유가공산업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영향 분석 대상으로 유가공산업을 선정한 기준은 한·미 FTA 협상 결과의 파급성, 국내 식품산업에서의 중요성, 모형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의 용이성 등이다.
- 외식산업에의 영향 분석은 한·미 FTA 체결을 포함한 국내 외식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4.2. 분석 방법

- 문헌 및 인터넷 조사
 -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 및 기타 자료 수집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가공식품산업 및 식품·외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를 정부기관, 학교 및 연구원, 관련 단체 및 업계 등에서 초빙하여
자문 협의회 개최

- 분석 모형 개발 및 분석 결과 검증을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 협의 실시

○ 출장 조사

-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과 협의를 위한 면담 조사 실시

○ 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 분석

- FTA 협상이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모형으로 부분균형모형 (Partial Equilibrium Model) 개발³
- 모형을 통한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 실시 (GAMS Program 활용)

3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해당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경우, 일반균형 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 부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 총량모형 (KREI-ASMO) 등을 활용함.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이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고 있기에, 해당 산업을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균형모형을 채택함.

제 2 장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가공식품 · 외식산업 현황 및 교역 현황

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가공식품 · 외식산업 현황

1.1. 우리나라의 가공식품 · 외식산업 현황

1.1.1. 가공식품산업 현황

가. 기본 현황

-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총생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에 20조원에서 2005년 30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식품산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4.2%에서 2005년 3.7%로 감소하여 전체 산업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 16.9%에서 2005년 14.5%로 감소하였다.

표 II-1. 국내 산업 대비 식품산업 비중

단위: 10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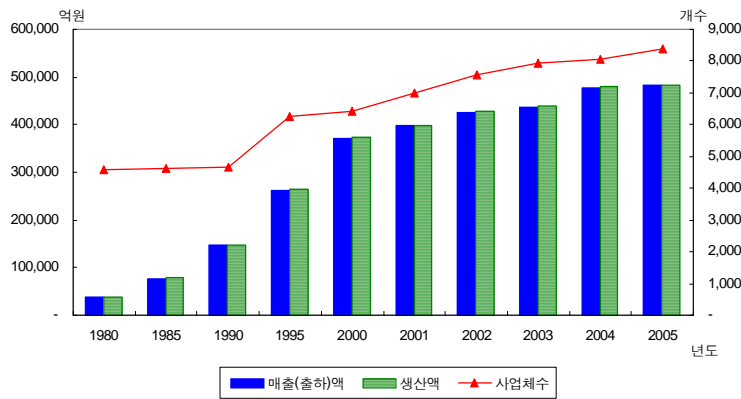
년도	국내총생산 (GDP)1)	제조업 GDP	식품산업 총 생산액		
			총생산액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대비
1998	484,103	119,920	20,244	4.18	16.88
1999	529,500	132,981	22,260	4.20	16.74
2000	578,665	151,243	25,549	4.42	16.89
2001	622,123	151,766	27,685	4.45	18.24
2002	684,264	161,952	35,388	5.17	21.85
20032)	724,675	169,145	21,046	2.90	12.44
2004	779,380	198,554	30,045	3.85	15.13
2005	806,622	204,239	29,579	3.67	14.48

주: 1) GDP는 신계열(2005년기준)로 작성한 값임.

2) 2003년 식품산업 총 생산액에는 축산물가공품통계가 미포함 되었음.

자료: 식약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05

그림 II-1 음식료제조업의 사업체수, 매출액과 생산 추이



주: 1) 산업별 각 데이터는 산업분류별 지표(5인이상)를 기준으로 한다.

자료: 통계청 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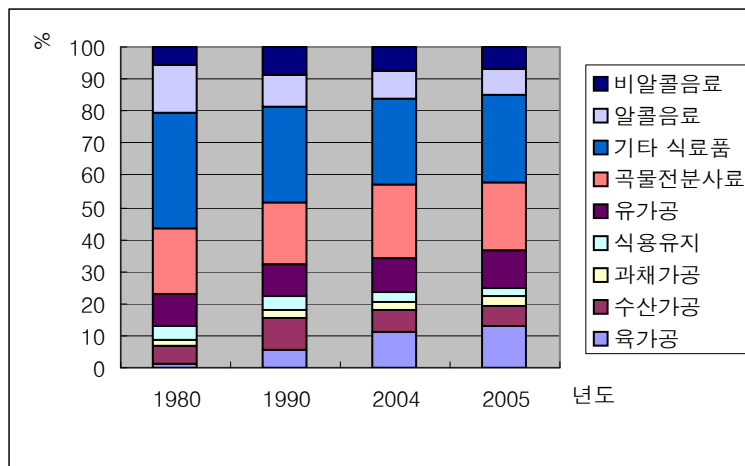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 다음으로 음식료제조업의 매출액, 생산액, 사업체 수를 비교하여 보면 1980년 이후 사업체수가 약 1.8배, 매출액은 같은 기간 약 1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체수 증가율보다 매출액 증가율이 더 높음을 의미하여 식품산업체의 규모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가 있다.

나. 식품산업의 구성

-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부문별 구성을 살펴보면 기타 식료품의 비중이 1980년에 36%였던 것이 2005년에 27%로 감소하였고, 알콜음료가 1980년 15%에서 2005년 8% 감소하였으며, 식용유지가 1980년 4%에서 3%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반면에 유가공품이 1980년 10%에서 2005년 12%, 비알콜음료가 1980년 5%에서 2005년 7%로 증가하여 식습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육가공품의 경우 1980년 1%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13%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2. 식품산업의 부문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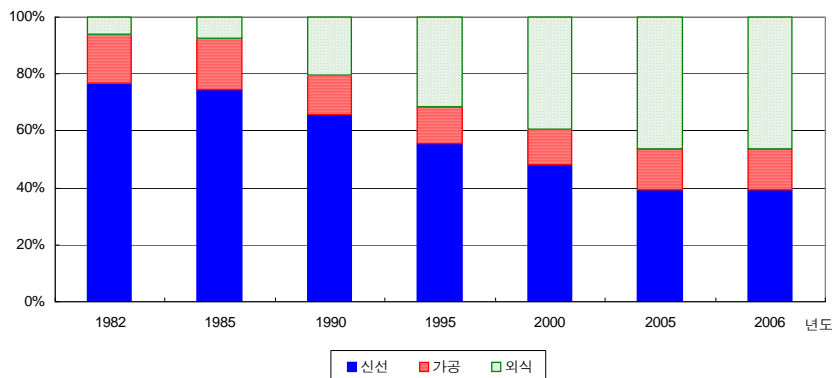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http://kosis.nso.go.kr/>, 음식료제조업 부문별 생산액 추이 (수정)

- 한편 수산가공품과 곡물전분사료 등은 1980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동안 전체 식품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식품 소비 현황

-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품목별 식품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1982년 신선식품에의 지출 비중이 77%였던 것이 2006년에는 39%로 급속하게 줄어든 반면, 외식으로의 지출 비중은 1982년 6%에서 2006년 46%로 7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등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편 가공식품에의 소비 지출 비중은 1982년 17%에서 2006년 14%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웰빙 (Well-being) 등을 통한 건강에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정크 푸드 (Junk Food)로 인식되는 일부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저하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II-3. 품목별 식품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주: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수지 항목별 자료임.
 자료: 통계청 www.kosis.kr 가계조사 (도시, 2인이상)

라. 식품 수출 현황⁴

- 수출금액 기준으로 품목별 가공식품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인삼류와 음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기호식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표 II-2. 주요 품목별 가공식품 수출 추이(전체)

단위: 천 달러

년도	곡실류	농림 부산물	식물성 재료	기호 식품	조제 농산식품	육류	축산 부산물	축산 조제품
1992	21,309	48,085	12,246	306,588	126,041	534	23,271	3,368
1993	27,555	48,054	36,736	278,847	171,464	1,193	2,253	3,392
1994	38,562	51,826	47,089	322,890	240,066	1,045	31,908	2,539
1995	32,137	64,160	67,908	379,473	317,126	1,113	38,042	7,976
1996	40,263	64,501	84,600	422,995	357,674	3,703	38,108	6,783
1997	43,978	79,034	93,279	423,080	396,694	1,844	45,867	17,198
1998	25,703	58,587	72,270	366,702	253,822	1,319	40,867	19,948
1999	21,169	57,532	57,674	344,142	247,685	3,499	33,303	15,532
2000	21,420	68,944	66,097	373,647	286,170	1,450	33,797	22,474
2001	32,169	72,775	65,246	406,276	310,383	1,087	37,109	26,450
2002	30,602	93,593	77,345	416,223	335,421	754	39,757	25,549
2003	31,951	83,784	88,343	452,430	369,626	1,000	44,527	35,409
2004	33,035	93,477	101,018	533,962	420,554	2,578	87,132	39,414
2005	41,040	102,984	116,612	569,107	421,645	1,985	76,958	42,257
2006	48,414	115,286	130,774	638,325	401,393	9,307	77,929	47,33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⁴ 우리나라 식품 수출 및 수입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 가공식품 교역 현황”을 참조할 것.

- 다음으로 과자나 면류 등의 조제농산식품의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호식품의 경우와 같이 1998년에 급격한 감소를 보인 후 회복세를 보였다.
- 그 밖의 가공식품 품목은 큰 등락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전체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3. 주요 품목별 가공식품 수출 추이(미국)

단위: 천 달러

년도	곡실류	농림 부산물	식물성 재료	기호 식품	조제 농산식품	육류	축산 부산물	축산 조제품
1992	878	18,044	5,520	15,257	28,959	66	833	139
1993	1,248	15,076	5,948	16,542	37,174	130	0	1,351
1994	1,998	11,158	6,991	19,935	40,280	107	1,615	1,208
1995	1,514	11,219	7,044	19,855	39,433	200	2,082	1,304
1996	1,551	7,577	8,272	15,070	45,755	465	2,299	1,487
1997	1,788	5,981	10,689	17,071	46,977	168	3,046	1,739
1998	1,823	6,518	10,423	16,789	47,240	182	5,437	3,561
1999	1,544	8,477	10,456	15,027	54,679	50	2,873	3,105
2000	2,128	15,668	11,242	18,188	57,750	80	4,379	5,117
2001	2,583	20,357	10,030	16,980	66,603	192	6,772	5,582
2002	2,319	26,546	10,499	24,232	84,159	31	12,277	5,552
2003	2,778	19,481	12,913	28,787	84,770	64	14,942	7,110
2004	3,300	17,001	14,433	33,483	95,127	1,184	44,216	7,655
2005	2,590	23,758	18,385	41,229	91,287	104	27,539	6,822
2006	2,672	25,335	23,407	47,178	85,614	198	33,411	8,00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한편 대미수출의 경우, 기호식품보다는 과자나 면류 등의 조제농산식품의 수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제농산식품의 미국 수출금액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02년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후 다소 줄어들고 있다.
- 다른 품목들의 대미수출액은 인삼류와 음료 등의 기호식품과 식물성 유지와 유기 가공품 등의 농림부산물을 제외하고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마. 식품 수입 현황

- 우리나라의 가공식품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커피와 주류 등의 기호식품의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호식품의 경우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5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다음으로 식물성 유지와 유기 가공품 등의 농림부산물의 수입이 많았는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산 가공식품의 수입 경우, 2006년을 기준으로 동물성 유지와 꿀 등의 축산 부산물의 수입 금액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축산 부산물의 경우 1998년에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가 다시 증가한 후, 2003년과 2004년에 다시 감소하였다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의 부침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우병 파동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4. 주요 품목별 가공식품 수입 추이(전체)

단위: 천 달러

년도	곡실류	농림 부산물	식물성 재료	기호 식품	조제 농산식품	육류	축산 부산물	축산 조제품
1992	28,373	193,372	62,369	612,323	84,702	27,283	120,800	99,920
1993	25,475	171,400	68,215	631,700	119,498	36,339	59,933	63,866
1994	60,876	225,322	77,754	794,994	127,519	39,811	120,614	89,773
1995	60,376	263,162	100,348	1,071,451	148,310	48,586	163,591	150,041
1996	55,631	273,022	43,025	1,108,707	157,773	52,974	176,400	172,770
1997	47,141	321,861	55,223	1,172,962	164,470	50,959	135,209	252,264
1998	40,160	279,083	39,339	881,639	93,837	29,974	73,918	166,876
1999	41,745	301,357	57,930	767,843	124,525	36,924	134,927	216,067
2000	45,842	241,732	68,261	880,733	179,568	47,589	186,725	245,293
2001	55,166	240,779	75,973	974,536	213,926	48,684	235,465	278,225
2002	62,643	299,921	82,233	995,810	229,919	64,480	261,482	267,748
2003	69,015	347,716	90,113	1,076,516	237,703	70,545	232,692	264,986
2004	71,067	484,873	100,494	1,093,428	259,449	41,349	270,936	349,500
2005	71,386	559,201	111,478	1,321,197	294,901	80,048	296,865	418,868
2006	86,154	556,934	124,225	1,579,750	319,597	102,207	326,539	434,85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이러한 연도별 증감은 다른 미국산 가공식품 수입품목에서도 나타났다. 이는 IMF 외환위기와 달러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가공식품의 수입 대상국이 자주 바뀐 것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II-5. 주요 품목별 가공식품 수입 추이(미국)

단위: 천 달러

년도	곡실류	농림 부산물	식물성 재료	기호 식품	조제 농산식품	육류	축산 부산물	축산 조제품
1992	528	25,094	7,218	31,592	22,628	15,398	55,490	22,731
1993	282	20,724	7,798	33,312	42,257	23,048	33,798	6,805
1994	15,215	31,874	8,469	29,245	37,468	22,574	57,792	6,801
1995	7,445	51,683	12,283	63,945	39,792	28,180	98,730	22,870
1996	4,355	51,943	8,319	81,788	44,421	27,238	96,989	34,715
1997	2,974	67,997	11,677	91,082	48,955	25,137	61,201	60,099
1998	2,507	85,785	7,537	42,505	23,639	16,090	30,729	41,556
1999	4,636	104,352	11,350	42,562	38,201	21,247	80,776	46,921
2000	6,108	61,900	11,687	54,247	57,064	31,013	109,471	57,673
2001	6,992	47,908	13,009	56,174	54,620	32,202	128,354	63,915
2002	8,988	64,491	13,751	68,213	49,242	39,571	134,700	60,341
2003	9,716	52,934	14,468	85,602	47,187	46,495	101,631	63,374
2004	5,514	38,502	15,594	85,073	44,958	15,492	102,006	57,761
2005	6,886	38,757	20,026	101,570	54,530	20,207	115,604	80,316
2006	7,895	52,081	24,945	108,207	58,548	25,719	130,491	89,65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1.1.2. 외식산업 현황

가. 외식시장규모

- 국내 외식시장 규모는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시 1982년 7조원에서 2004년 약 50조원으로 다섯 배 이상 규모로 성장하였다.
- 1990년대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여 왔던 외식시장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성장률은 많이 둔화되는 상황이다.

- 사업체수는 1990년 중반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96년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4년 현재 사업체수는 600,233개에 달하며, 외식업 종사자수는 약 156만 명이다.
- 외식산업은 대규모 국제행사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를 계기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외식시장을 주도한 중소기업의 패스트푸드업체는 1990년대 경기 침체와 더불어 구조조정을 거치게 되면서 기업형 레스토랑과 단체급식 중심으로 재편된다.

표 II-6. 국내 외식산업의 시장규모

단위: 백만원, 개, 명, %

년도	매출액 (2000년불변가격)	사업체수	종사자수
1982	7,431,793	207,080	521,508
1986	10,603,201	259,451	708,905
1990	18,329,125	298,196	871,636
1996	31,394,502	520,927	1,254,367
2000	35,472,249	570,576	1,430,476
2001	33,087,530	505,241	1,341,528
2002	38,019,756	595,791	1,586,409
2003	40,460,232	605,614	1,594,789
2004	48,369,597	600,233	1,556,008
연평균증감률	8.9	5.0	5.1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도소매업통계조사」.

나. 규모별 · 업종별 외식산업 현황

- 매출규모 기준 시 22003년 85.1%에 비해 업체비중이 다소 줄긴 하였지만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로 기업형 외식 브랜드가 상위 위치를 점한다.
- 외식산업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일반음식점 중에서 한식업의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 시 86.3%, 종사자 수 기준 시 79.7%, 매출액 기준 시 74.6%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기관 구내식당업 · 서양음식점 · 일식점 등은 사업체 수 비중에 비해 매출액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 것에 비해, 한식업은 사업체 수 비중에 비해 매출액 비중이 적은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현재 한식업체수가 과포화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 패밀리 레스토랑 · 패스트푸드 · 단체급식 등의 신업태는 1980년대 후반 급속한 매출신장을 기록하면서 외형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경제 불황과 외환위기를 통해 성장추세는 둔화되었으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표 II-7.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 구성비 변화

단위: 개, %

매출규모	1990	1996	2004
5백만원 미만	15,068(5.1)	51,292(9.8)	47,799(8.0)
5~10 백만원	27,349(9.2)		
10~20 백만원	54,807(18.4)	75,645(14.5)	
20~50 백만원	120,994(40.6)	223,644(42.9)	241,085(40.2)
50~100 백만원	59,695(20.0)	119,966(23.0)	202,623(33.8)
100~500 백만원	19,622(6.6)	48,191(9.3)	102,307(17.0)
500~1000 백만원	396(0.1)	1,533(0.3)	3,684(0.6)
1000 백만원 이상	251(0.1)	656(0.1)	2,735(0.5)
합계	298,182(100)	520,927(100)	600,233(100)

자료: 통계청. (1990, 2004). 「도소매업통계조사」, 1996. 「도소매업총조사」.

- 대기업의 외식업체 진출, 해외브랜드의 국내진출을 통한 고급화와 가격과 품질의 등장 등 다양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여가생활 증가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하여 호텔 및 리조트 등 숙박업소와 의류업체의 식음료사업이 확대되는 등 타 산업에서 외식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외식업체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다. 국내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 최근 국내 외식업체의 불투명한 경영환경과 외식업체 포화로 해외진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06년 기준 국내 브랜드는 총 54개가 해외 진출에 성공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식이 30개로 55.6%를 차지한다. 이는 2005년 42개의 브랜드가 해외 진출한 것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 수치이다. 한식 및 프

표 II-8. 음식점업의 업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추이 (2005)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매출액(백만원)
음식점업	531,929	1,444,827	46,252,523
일반 음식점업	295,266	871,848	29,011,119
한식점업	254,784	695,062	21,639,214
중국 음식점업	21,932	68,906	1,914,501
일본 음식점업	4,628	23,849	1,047,728
서양 음식점업	10,034	51,226	2,080,277
기관구내식당업	3,238	28,293	2,123,207
기타	650	4,512	206,192
기타 음식점업	87,791	221,425	6,800,191
주점업	116,864	274,405	8,112,523
다과업	32,008	77,149	2,328,690

자료: 통계청. 2005.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시장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⁵

- 일본은 1990년말 이자카야에서 일부 한식메뉴를 취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다양한 컨셉의 한식당이 분포되어 있는데,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식당 (1,500여개-추정치), 제일교포가 운영하는 한식당 (3,500여개-추정치), 야끼니꾸 전문점을 포함하여 7,000여개의 한식당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 중국은 1992년 수교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주로 한국인 대상 식당이 대부분이며 한국인 운영 한식당 약 2천개의 80%가 경영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은 가장 큰 시장이나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 1,350여개 한국식당이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ZAGAT 서베이에 수록된 업체 수는 일식당이 104개, 중식당이 62개에 달하는 반면 한국식당은 18개에 불과하다.
- 유럽에는 한식과 일식, 중식을 함께 취급하는 한식당이 많다.

표 II-9. 국내 브랜드 해외 진출 현황 (기업체수)

단위: 개

국가명	계	한식	일식	베이커리	치킨	기타
중국	32	17	0	3	3	9
미국	12	6	1	3	0	2
일본	6	4	0	0	1	0
기타	7	5	1	0	1	1
합계	54	30	2	6	5	11

주: 2006년 기준, 진출국가 및 업종은 중복 표기

자료: 2006 한국외식연합

⁵ 박형희,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 「FTA대응 식품산업의 글로벌전략」 심포지엄 자료, 2007.11.

표 II-10. 국내 브랜드 해외 진출 현황 (브랜드별)

브랜드명	법인명	주아이템	진출년도	진출국가	점포수	진출형태
가온	(주)화륜	한식	2006	북경	1	
계경목장	(주)계경	한식	2003	베트남	1	현지합작
동심왕	동흥기업	삼계탕	2004	중국	1	
만나		샤브샤브	2000	미국 LA	1	단독투자
명동교자		교자	2006	LA	1	
목장원	(주)목장원	한식	1999	일본 교토	1	기술전수
봉추찜닭	(주)봉추푸드 시스템	찜닭	2002	일본	2	
본가	(주)더본코리아	한식	2006	중국 청도,상해	15	현지합작, 직영
서라벌	한우리외식산업 (주)	한식	1989	중국 북경 등 홍콩	8	현지합작
손가면옥	(주)손가	한식	2002	대만	1	현지합작
수복성	두산	한식	1997	중국	2	
오발탄	(주)행복을굽는사 람들	양,대창	2006	북경,상해,청도	4	현지합작, 직영
용수산	(주)용수산	한식	1998, 03	미국 LA	1	직영
우래옥		한식	1982	워싱턴, 시카고, LA	3	직영
이남장		설령탕	2006	LA	1	직영
진상	(주)진상	샤브샤브	1997	미국 샌디애고, LA	2	단독투자
브랜드명	법인명	주아이템	진출년도	진출국가	점포수	진출형태
참배나무골	(주)참배나무골	오리요리	2003	중국 북경	1	단독투자
참이맛감자탕		감자탕	2007	중국	4	
한스비빔밥	(주)오리엔스 에프디	비빔밥	2001	미국	6	기술이전
한촌설령탕		설령탕	1990	미국, 중국	5	기술이전
교촌치킨	교촌인터내셔널	치킨	2007	미국 LA등	4	
애강산	정성분	한식		중국 북경	1	
옛골토성		한식	2007	북경, 상해	2	

(계속)

브랜드명	법인명	주아이템	진출년도	진출국가	점포수	진출형태
놀부향아리 갈비	(주)놀부	갈비	2006 2007	일본 중국	8	마스터 프랜차이즈 직영
대학로 김가네김밥		김밥	2004	중국	2	
레드망고	릴레이인터내셔널 (주)	아이스 크림	2007	미국 LA	2	현지합작 직영
롯데리아	(주)롯데리아	FF	2003	베트남	9	현지합작
미스터피자	(주)한국미스터 피자	피자	1999	중국 북경, 미국	9	직영,가맹
분죽		죽	2005 2006 2006	일본 미국 LA 말레이시아	3 1 1	
쇼부	(주)제이에스프로 페셔널	주점	2007	미국LA,중국 북경	2	공동투자 가맹
와바	(주)인토외식산업	주점	2003 2007	중국 홍콩	5 1	가맹(4) 심천점 (현지합작)
쫄기쫄기	태창가족(주)	주점	2007	중국	3	직영
코리아숯불닭 바베큐	(주)TBBC	치킨	2007	미국	3	
토니피자		피자	2004	중국	4	가맹
투다리	(주)이원	주점	1995	중국 14개 지사	71	현지합작
틈새라면	틈새(주)	라면	2006	미국 LA	1	
홍초불닭	홍스푸드	불닭	2005	일본	1	단독투자 (시부야)
BBQ	(주)제너시스	치킨	2002	2005년:일본,중국 2006년:몽골,베트 남,네팔,미국 등	28	현지합작 (51:49)
BHC	(주)헤세드통상	치킨	2001	미국,중국,일본,필 리핀	16	기술이전
롤앤롤	(주)종로김밥	롤	2005	중국 청도	1	
뚜레쥬르	CJ푸드빌(주)	베이커리	2004/2007 2005	미국/베트남 중국	4/1 7	
시젠	CJ푸드빌(주)	면류	2005 2007	중국 홍콩	5	
백세주가	(주)국순당	주점	2005	금강산	1	

(계속)

브랜드명	법인명	주아이템	진출년도	진출국가	점포수	진출형태
성심당	(주)성심당	베이커리	2004	미국 LA	1	
스시히로바	(주)우리푸드 시스템	스시	2006	미국/영국	2	
카후나빌	(주)사보이F&B	FR	2005	중국 북경	1	현지합작
파리마케트	(주)파리크라상	베이커리	2004	중국 미국	26 6	
할리스	(주)할리스F&B	커피	2007	말레이시아	1	

자료: 월간식당

- 한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투자 중 75% 이상이 서비스업 투자로 2005년 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투자는 2005년 1.2억 달러로 서비스업 투자액의 13% 수준이다.
-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대미 투자는 200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해외브랜드의 국내 도입 현황

- 1979년 롯데리아를 시작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해외브랜드는 1980년대는 패스트푸드와 피자브랜드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 외국의 패밀리레스토랑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표 II-11. 한국의 대미 투자현황

단위: 백만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서비스업	금액	839	481	371	671	810	967
	비중	61.3	33.2	65.3	63.8	60.5	78.6
숙박음식점업	금액	18	17	16	43	75	124
	비중	1.3	1.2	2.9	4.1	5.6	10.0

자료: 월간식당

- 빠르게 증가하던 해외브랜드는 IMF를 거치면서 구조 조정기를 겪은 다음, 2000년대 들어 경쟁력 있는 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 2000년대 초 뉴질랜드내추럴 (뉴질랜드), 파브리 (이태리), 매키스 (영국), 에토 (터키) 등의 아이스크림 브랜드와 크레이튼스 (일본), 세가프레도 (이태리), 레이니어에스프레소 (미국), 그라찌에 (호주) 등의 커피브랜드가 한때 도입붐을 일으키며 난립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로 시장이 개편된 상태이다.

표 II-12. 해외브랜드 국내 유입 현황 (2007)

종류	브랜드명	업체명	진출형태	기간	도입연도	점포수	
						직영	가맹점
햄버거	롯데리아	롯데리아(주)	51:49 합작		79.10	839	
	버거킹	(주)두산식품BG	3-4%	10	82(93)	95	
	맥도날드	신맥(서울) 맥킴(부산)	30:70합작 51:49합작		88 91	335	
	후레쉬니스버거	베넥스인터내셔널(주)		10	2003	8	
치킨	KFC	(주)두산외식BG	3.2%	10	84(94)	195	
	파파이스	T.S해마로	3.6%	10	94	180	
피자	피자헛	한국피자헛(주)	美직영		84(93)	320	
	시카고피자	(주)토로나코리아	70:30		88	1	100
	도미노피자	D.P.K인터내셔널	3%		89	36	211
	미스터피자	(주)한국미스터피자	기술제휴 (단독운영)		90	9	211
	스바로	(주)세진푸드시스템	3.5%		96	8	53
	파파존스피자	(주)PJI Korea	4~5%		2003	18	
	CPK				2007		
패밀리레스토랑	코코스	(주)코코스	1%	10	88	23	
	T.G.I.F.	(주)푸드스타	3%	10	92	33	
	스카이라	(주)푸드빌	2%	10	93	43	
	씨즐러	(주)바론즈인터내셔널	3.5%	10	95	6	
	토니로마스	(주)썬엣푸드	3.5%	10	95	7	
	베니건스	동양제과	3%	20	95	20	
	칠리스	퍼시픽스타	3.5%	20	96	1	
	마르쵸	(주)아모제	3%	10	96	9	
	카후나빌	(주)사보이F&B	서브프랜차이즈		2002	3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유)오지정	3.5%	10	97	50	
	이뽀뽀따뮤스	(주)에프아이디 엔터프라이즈	마스터 프랜차이즈		2002	3	
	토다이				2006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주)비알코리아	33:67합작	20	85	50	570
	하겐다즈	한국하겐다즈			91	11	
	TCBY	한국TCBY(주)			94	4	65
	데어리퀸	한국데어리퀸(주)	3.2%		94	9	16
	뉴질랜드내츄럴	(주)뉴질랜드내츄럴코리아			2002	6	14
	밴&제리	(주)스쿠퍼스			2002	4	
콜드스톤크리머리				2006			

(계속)

종류	브랜드명	업체명	진출형태	기간	도입연도	점포수	
						직영	가맹점
도넛	던킨도너츠	(주)비알코리아	33:67합작	20	86	16	56
	크리스피크림	(주)롯데쇼핑			2004	1	
	미스터 도넛				2007		
	도넛플랜트뉴욕시 티				2007		
도시락	한솔	(주)한솔도시락			87		
샌드위치	리나스	파리크라상(주)	기술제휴		2002	1	
	퀴즈노스	퀴즈노스코리아	기술제휴		2002	1	
	퐁페스뒤바리	제이제이인터내셔널			2001	7	
이자카야	기린비어페스타	(주)KRS	국내 라이선스 획득			2	
	호따루					1	
단체급식	OUR HOME	(주)아워홈	기술제휴		92	600	
	아라코	아라코	51:49합작		93. 2	320	
	CJ푸드시스템	CJ푸드시스템	기술제휴		94. 12	595	
	소텍스코리아				91		
	삼성에버랜드	삼성에버랜드	업무제휴	5	95	480	
	아벨라고매	고매푸드서비스	30:70합작	-	99		
면류	기소야	(주)공영식품	53:47		90		
	기조암	고송식품	기술제휴		91		
	빼에뜨로	(주)불스원			5		
커피	자바커피	(주)롯데리아	기술이전		2000.8	21	
	스타벅스	(주)스타벅스 코리아			99.7	109	
	씨애틀즈베스트	CFC코리아	기술제휴		2001.1	84	14
	커피빈	(주)커피빈 코리아	기술제휴		2001.5	34	
	디드릭로스터스	(주)디알코리아			1999	2	
	자바씨티	(주)자바씨티코리아				9	
	카페무세띠	(주)기점인터내셔널				2	30
	레이니아	에스프레소코리아(주)					
	달마이어	지케이엠티(주)				1	5
	글로리아진스	(주)레번				16	
카리브커피							

(계속)

종류	브랜드명	업체명	진출형태	기간	도입연도	집포수	
						직영	가맹점
테마	하드락카페						
	후터스				2007		
기타	포호아	한국포호아(주)	50:50합작		1998		
	페퍼런치	(주)썬엣푸드			2003	4	
	난시앙	(주)불스원			2004	1	
	온더보더				2007		
	카프리초사				2007		

자료: 월간식당

-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액은 2005년 29.9억 달러로 1962년 이후 누적 금액이 약 380억 달러이며, 이중에서 음식 및 숙박업에 대한 투자는 5% 수준이다. 한국은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증대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해 관련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13. 미국의 산업별 한국에 대한 투자동향(1962~2004년 누적치)

	금액(백만달러)	비중(%)	건수(건)
전산업	34936	100	7045
전기가스수도	1943	5.6	24
건설	1282	3.7	96
서비스업	19217	55	3972
도소매업	5864	16.8	1725
음식및숙박	1698	4.9	127
기타	11655	33.3	2120

자료: 월간식당

1.2. 미국의 가공식품 · 외식산업 현황

1.2.1. 가공식품산업 현황

가. 기본 현황

- 미국의 가공식품 산업은 크게 식품 제조업과 음료 및 담배 제조업⁶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공 식품 제조업은 육가공, 유가공, 곡물 및 종자제분 과일, 채소 저장 및 specialty food 제조, 빵 및 토르티야 (tortilla) 제조, 동물성 식품 제조, 당 및 제과류 제조, 해산물 제품, 기타 식품 (스낵류, 커피류, 차류, 시럽류, 양념류 등)으로 구분되며 음료 제조업은 음료류 및 맥주, 와인, 위스키 등의 알콜류로 구분된다.
- 미국 국내 제조업에서 가공 식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표 II-14>와 같다. 제조업 전체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1997년 18,260억 달러에서 2000년 19,740억 달러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1년에 다소 하락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 22,040억 달러의 규모를 보인다.
- 가공 식품 제조업 부분의 부가가치는 1997년 1,930억 달러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 2,780억 달러의 규모를 보여 약 4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제조업에서 가공 식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10.5%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도 13.0%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 그러나 2004년부터 다소 감소하여 2005년 현재 12.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⁶ 본 연구에서는 가공 식품 산업 중 담배 제조업은 제외함.

표 II-14. 제조업에서 가공식품산업의 비중 (부가가치 기준)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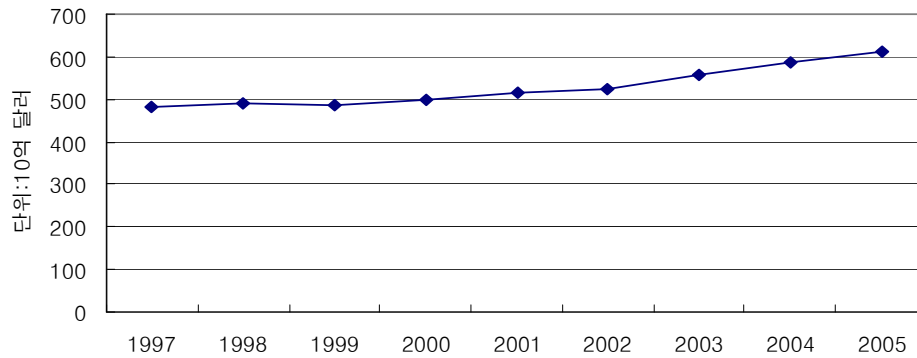
구분	제조업	가공 식품 제조업 ¹⁾		소계	비중(%)
		식품 제조	음료 제조		
1997	1,826	164	29	193	10.5
1998	1,891	173	31	204	10.7
1999	1,954	177	30	207	10.6
2000	1,974	184	30	214	10.8
2001	1,854	193	32	225	12.1
2002	1,889	203	33	236	12.5
2003	1,923	213	37	250	13.0
2004	2,041	224	40	264	12.9
2005	2,204	235	43	278	12.6

주: 1) 가공 식품 제조업의 경우 담배 제조업은 제외한 수치임.

자료 : U.S. Census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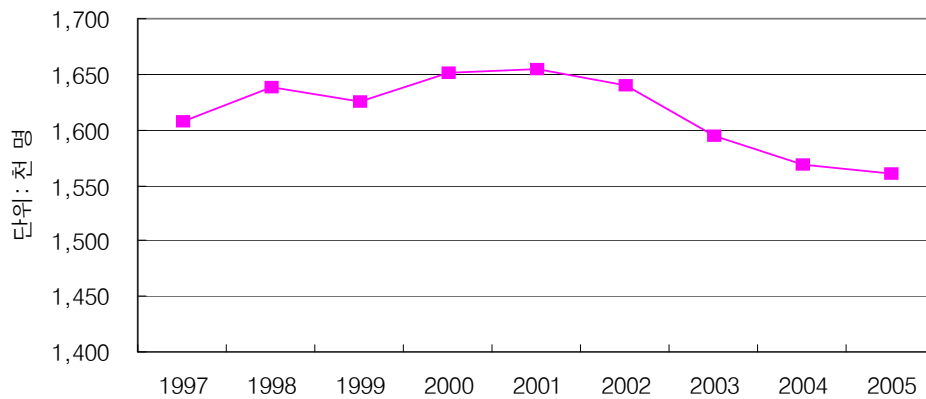
- 가공 식품 제조업은 미국의 가장 큰 제조업 중 하나로 전체 제조업 물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가공 식품 제조업의 생산 규모는 1997년 4,880억 달러의 규모였으나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도에 5,170억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05년도까지 지속되어 당해 6,140억 달러의 생산 규모를 보였으며, 1997년과 비교하여 약 25.8% 정도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가공 식품 제조업 종사자는 1997년 160만 명 정도였으며 1999년을 제외하고 2001년까지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2002년부터 급속히 감소하여 2006년 현재 156만 명으로 1996년도에 비하여 약 2.5%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기술 발전과 자동화로 인해 제품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종사자수는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II-4. 가공식품 생산 규모



자료 : U.S. Census Bureau

그림 II-5. 가공식품 제조업 종사자 규모



자료 : U.S. Census Bureau

나. 식품산업의 구성

- 2005년 미국 가공 식품 제조업 중 상위 4개 품목은 육가공, 음료류, 유가공, 곡물 및 종자제분으로 이들 4개의 품목별 생산액은 3,677억 달러로 전체 가공 식품 제조업의 약 59.7%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 이 외 곡물 및 종자제분이 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일, 채소 저장 및 specialty food 제조는 8.9%, 빵 및 tortilla 제조는 8.7%, 동물성 식품 (사료류) 제조는 5.4%, 당류 및 제과류 제조는 4.64%, 해산물 제품은 1.6%, 기타 식품은 1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5. 품목별 가공식품산업 생산 규모 (2005)

단위: 10억 달러, %

품 목	규모	비중
육가공	150.4	24.4
음료류	80.9	13.1
유가공	76.9	12.5
곡물 및 종자제분	59.5	9.7
과일, 채소 저장 및 specialty food 제조	54.9	8.9
빵 및 tortilla 제조	53.6	8.7
동물 식품(사료류) 제조	33.3	5.4
당류 및 제과류 제조	28.6	4.6
해산물 제품	10.1	1.6
기타 식품	67.3	10.9
합 계	615.5	100.0

자료: U.S. Census Bureau

- 2005년의 가공 식품 제조업 전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약 31.1%인 48.5만 명이 육가공에 종사하고 있으며, 약 17.8%인 27.8만 명이 빵류 및 tortilla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가공과 빵류 및 tortilla 제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가 전체 종사자의 48.9%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6. 가공식품 품목별 종사자 수 규모 (2005)

단위: 천 명, %

품 목	규모	비중
육가공	485	31.1
빵류 및 tortilla 제조	278	17.8
과일, 채소 저장 및 specialty food 제조	167	10.7
유가공	127	8.2
음료류	123	7.9
당류 및 제과류 제조	68	4.4
곡물 및 종자제분	52	3.3
동물성 식품(사료류) 제조	44	2.8
해산물 제품	39	2.5
기타 식품	175	11.2
합 계	1,558	100.0

자료 : U.S. Census Bureau

- 또한 과일, 채소 저장 및 specialty food 제조에 가공 식품 제조업 종사자의 10.7% 정도가 종사하고 있으며, 육가공은 8.2%, 당류 및 제과류 제조에 7.9%, 기타 식품에 11.2% 정도가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 식품 소비 현황

- 미국 농무부 (USDA)에 따르면 2004년 가구당 가처분소득비의 9%를 식품 구매를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5%는 가정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이고 4%는 외식을 할 경우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의 경우 필수적인 구매 품목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경제적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편이다. 2004년 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4% 증가했으며 이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약 2.6% 증가한 수치이다.

- 경제 성장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요구는 개인 가처분소득의 상승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소비자 수요, 마케팅 비용, 물가 등이 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식품 수출 현황

- 미국의 가공식품 수출 시장은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느리며,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해외 시장으로 직접투자가 증가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미국 농림부 (USDA) 보고에 따르면 미국 식품업체는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1,500억 달러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300억 달러의 5배인 매우 큰 규모이다.
- 또한 식품업체들이 해외 시장 현지에서 직접 제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세계 식품 산업의 치열한 경쟁과 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관세도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 2005년 가공식품 품목별 수출 규모를 살펴보면 육가공의 경우가 전체의 30.2%인 93억 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곡물 및 종자 제분이 63억 달러(20.5%), 과일, 채소 저장 및 specialty food가 29억 달러(9.4%), 음료류가 21억 달러(6.8%)의 규모를 보인다. 반면 해산물 제품은 4억 달러(1.3%)로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공 식품의 수출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가공 식품류와 음료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먼저 음료류를 제외한 가공 식품류의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18>과 같다. 2005년을 기준으로 수출액이 높은 상위 5개국을 대상으로 수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캐나다, 멕시코,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캐나다, 멕시코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17. 가공식품 품목별 수출 규모 (2005)

단위: 10억 달러, %

품 목	규모	비중
육가공	9.3	30.2
곡물 및 종자제분	6.3	20.5
과일, 채소 저장 및 specialty food 제조	2.9	9.4
음료류	2.1	6.8
유가공	1.8	5.8
동물성 식품	1.5	4.9
당 및 제과류 제조	1.3	4.2
빵 및 tortilla 제조	0.9	2.9
해산물 제품	0.4	1.3
기타 식품	4.3	14.0
합 계	30.8	10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표 II-18. 주요 국가별 가공식품류 수출 추이 (상위 5개국)

단위: 100만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캐나다	4,323	4,342	4,611	4,879	5,119	5,561	5,854	6,556
멕시코	2,722	2,724	3,187	3,733	3,589	4,047	4,605	5,508
일본	4,406	4,586	4,861	4,751	3,838	4,129	3,079	3,334
중국	784	370	539	763	786	1,116	1,075	1,192
한국	836	1,210	1,615	1,506	1,743	1,862	894	1,045
기타	11,550	10,320	10,154	10,851	10,097	10,076	10,391	11,210
합계	24,625	23,555	24,970	26,485	25,175	26,795	25,901	28,848

자료 : U.S. Census Bureau

- 한국의 수출액은 1998년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2001년 제외) 2004년에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05년 기준 가공식품 수출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NAFTA (41.8%)와 일본 및 중국 (19.8%)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아시아 기타 지역 (9.0%), 라틴 아메리카(8.7%), EU25개국(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9. 지역별 가공 식품류 수출 현황 (2005)

단위: 100만 달러, %

항 목	규모	비중
NAFTA	12,032	41.8
일본, 중국	5,708	19.8
기타 아시아	2,589	9.0
라틴 아메리카	2,505	8.7
EU 25	2,216	7.7
Rest of World	3,765	13.1
합 계	28,815	10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 다음으로 음료류의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20>과 같다. 2005년을 기준으로 수출액이 높은 상위 5개국을 대상으로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캐나다, 영국, 일본, 멕시코, 독일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음료류의 경우도 캐나다가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액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위 5개국 중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추세 없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0. 주요 국가별 음료류 수출 추이 (상위 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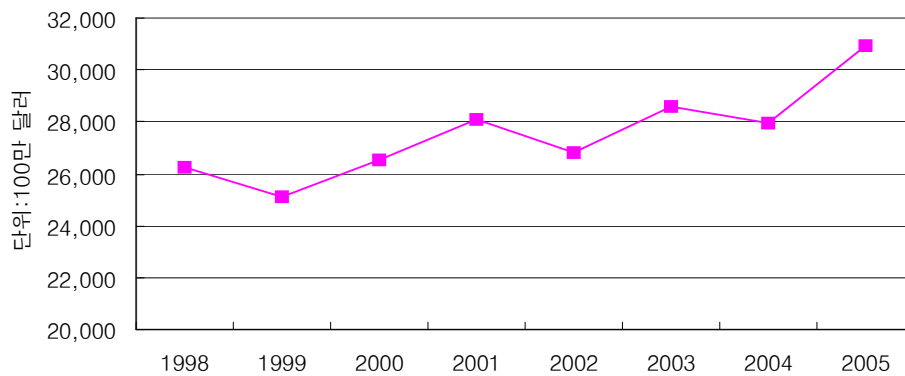
단위: 100만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캐나다	314	336	332	344	335	389	401	482
영국	207	191	205	259	286	334	444	299
일본	305	260	216	192	221	214	231	271
멕시코	48	61	65	104	92	110	108	121
독일	74	90	83	81	79	92	109	107
기타	679	626	643	617	594	661	779	818
합계	1,630	1,567	1,547	1,599	1,610	1,802	2,074	2,101

자료 : U.S. Census Bureau

- 끝으로 식품류와 음료류를 포함한 가공 식품 전체적인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262억 달러 규모였으나 2005년 현재 309억 달러 규모로 1998년 대비 약 17.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후 1999년 25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보인 이후 2002년(267억 달러)과 2004년(279억 달러)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II-6. 가공식품 수출 추이 (식품류와 음료류 포함)



자료 : U.S. Census Bureau

라. 식품 수입 현황

- 2005년 전체 가공 식품 수입액 중 음료류가 전체의 약 28.5%인 123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 육가공 제품이 14.6%, 과일, 채소 저장 및 specialty food가 11.4%, 당류 및 제과류가 10.0%, 곡물 및 종자제분 제품이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물성 식품 제조가 1.2%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 가공 식품의 수입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가공 식품류와 음료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I-21. 가공식품 품목별 수입 규모 (2005)

단위: 10억 달러, %

품 목	규모	비중
음료류	12.3	28.5
육가공	6.3	14.6
과일, 채소 저장 및 specialty food 제조	4.9	11.4
당류 및 제과류 제조	4.3	10.0
곡물 및 종자제분	3.6	8.4
빵 및 tortilla 제조	3.2	7.4
유가공	2.1	4.9
해산물 제품	1.7	3.9
동물성 식품(사료류)제조	0.5	1.2
기타 식품	4.2	9.7
합 계	43.1	10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먼저 음료류를 제외한 가공 식품류의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22 >와 같다. 2005년을 기준으로 수입액이 높은 상위 5개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캐나다, 멕시코, 중국, 호주, 이탈리아 순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캐나다, 멕시코의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중국, 호주, 이탈리아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수입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된다.

표 II-22. 주요 국가별 가공 식품류 수입 추이 (상위 5개국)

단위: 100만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캐나다	4,746	5,269	5,717	6,323	6,704	7,319	8,509	8,666
멕시코	1,097	1,168	1,167	1,257	1,411	1,549	1,868	2,299
중국	433	499	515	590	744	1,004	1,280	1,523
호주	772	803	1,016	1,207	1,290	1,375	1,627	1,513
이탈리아	783	783	876	837	922	1,068	1,240	1,390
기타	9,368	9,758	9,657	9,428	10,035	11,451	13,212	14,365
Total	17,202	18,282	18,949	19,646	21,109	23,768	27,739	29,759

자료 : U.S. Census Bureau

표 II-23. 지역별 가공식품 수입 현황 (2005)

단위: 100만 달러, %

항 목	규모	비중
NAFTA	10,965	36.9
EU25	5,198	17.5
라틴 아메리카	3,828	12.9
기타 아시아	3,582	12.0
일본, 중국	2,042	6.9
Rest of World	4,137	13.9
합 계	29,752	10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 2005년 기준 지역별로 가공식품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NAFTA와 EU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전체 수입량의 54.4%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라틴 아메리카(12.9%), 기타 아시아(12.0%), 일본 및 중국 지역(6.9%) 순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음료류의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24>와 같다. 2005년을 기준으로 수입액이 높은 상위 5개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 멕시코, 이탈리아, 네델란드,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음료류가 전체의 수입액의 35.6%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인다. 상위 5개국 대부분에서 수입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멕시코에서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24. 주요 국가별 음료류 수입 추이 (상위 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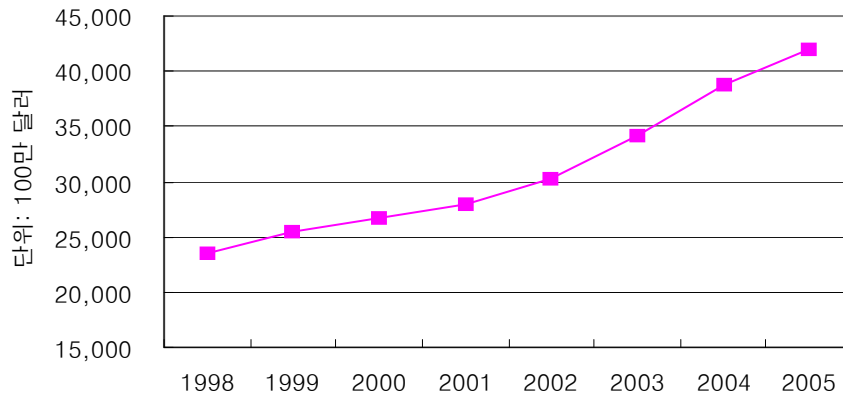
단위: 100만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프랑스	1,426	1,641	1,597	1,549	1,748	2,046	2,083	2,326
멕시코	796	973	1,264	1,382	1,614	1,717	1,799	2,059
이탈리아	582	644	696	737	902	1,072	1,132	1,269
네델란드	598	673	823	904	1,016	1,055	1,048	1,075
영국	671	729	777	774	797	827	949	1,028
기타	2,166	2,444	2,683	2,900	3,162	3,665	4,073	4,545
합계	6,241	7,106	7,841	8,248	9,242	10,384	11,087	12,305

자료 : U.S. Census Bureau

- 끝으로 식품류와 음료류를 포함한 가공 식품 전체적인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도에 234억 달러 규모였으나 2005년 현재 420억 달러 규모로 1998년 대비 약 79.4%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1-7. 가공식품 수입 추이



자료 : U.S. Census Bureau

-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1998년부터 2005년 사이 가공 식품 수출액이 47억 달러 증가(17.9% 상승)한 것에 비하여 가공 식품 수입액은 186억 달러 증가(79.4%)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가공 식품 관련 무역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주된 요인은 식품류와 관련해서 수입액(297억 달러)과 수출액(288억 달러)은 큰 차이가 없으나 음료류의 경우 수입액(123억 달러)과 수출액(21억 달러)의 차이가 102억 달러로 무역적자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2.2. 외식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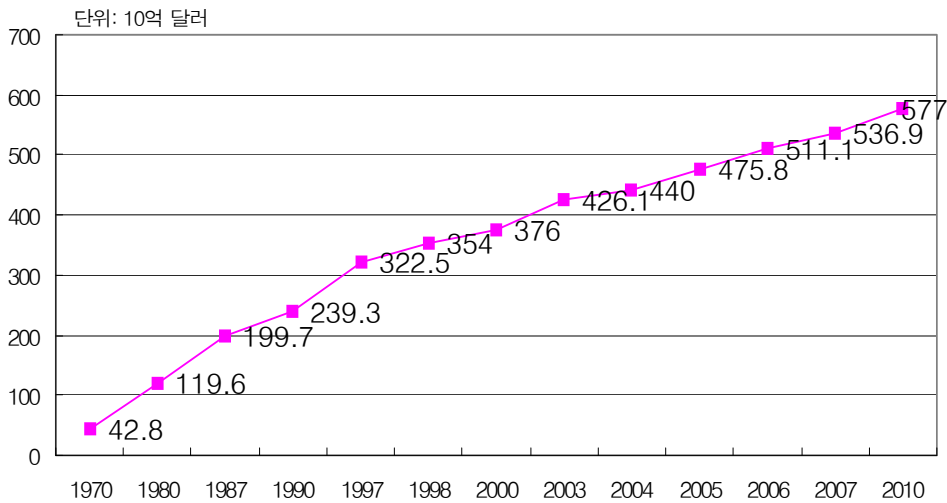
가. 기본 현황

- 미국 외식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NRA)에 따르면 2007년 미국 외식산업의 매출액은 5,370억 달러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0년

도 428억 달러 규모의 외식산업은 급속히 성장하여 1987년도에는 5배 규모인 약 1,99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고, 1997년도에는 3,225억 달러의 규모로 10년 동안 61.5% 정도 성장하였다.

- 2007년도 외식산업 매출액은 5,369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10년 전인 1997년도 매출액에서 약 66.5% 성장한 규모이다. 이처럼 미국 외식산업은 지난 40여 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 성장세는 해외 진출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유형별로 외식 업체의 2007년 추정 매출액을 살펴보면 Commercial의 경우가 4,910억 달러로 가장 높은 매출액이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 Eating places (3,630억 달러), Retail, vending, recreation, mobile(490억 달러), Managed services (360억 달러) 순이었으며 Drinking places가 가장 낮은 16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그림 II-8. 미국 외식산업 매출액



주: 2005, 2006, 2007, 2010년 값은 추정치

자료: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www.restaurant.org)

표 II-25. 2007년 추정 매출액

단위: 10억 달러

Type of Establishment	추정 매출액
Commercial	491
Eating places	363
Drinking places	16
Managed services	36
Lodging-place restaurants	27
Retail, vending, recreation, mobile	49
기타	46

자료: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www.restaurant.org)

- 2007년 미국 외식산업의 매출액은 2006년도 대비 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미국 GDP 4%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또한 외식산업과 관련된 농업, 수송 및 가공 산업 등을 포함하면 2007년도에 1조 3천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예상된다.
- 외식업체에서 소비자들이 1달러를 지출하게 되면 이는 외식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산업에서 2.34달러 지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식업체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100만 달러가 발생하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37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 2004년도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full-service restaurants의 경우 79.5만 달러였으며 limited-service restaurants의 경우 67.1만 달러였다.
- 외식 시 지출하는 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한 가구당 평균 2,634 달러로 나타났으며 1인당 기준으로는 평균 1,054달러로 나타났다.

- 미국 외식업계 중 단체 급식의 경우 특히 초등학교와 대학, 헬스 케어 분야의 급식이 늘어나고 있으나 회사 및 공장 급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상황이 불황인 틈을 타서 M&A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체 상위 TOP 10의 순위가 변경되는 등 업계가 재편성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압레스토랑 그룹과 콤파스그룹, 아라마크그룹 등이 있다. 이민정책으로 인해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외식업계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외식 시장규모가 확대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⁷

나. 외식산업 종사자

- 2007년도 외식업계 관련 종사자수는 1,28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부기관을 제외하고 가장 큰 산업 규모이다. 외식산업은 미국 전체 고용규모의 9%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외식산업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만개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도에 총 148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 외식산업 업계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2005년 기준 풀타임 종사자를 기준으로 1인당 57,032 달러의 매출을 보여 다른 산업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인다.
 - 성인 중 절반 정도가 외식업계에서 근무한 적이 한번 이상 있으며 성인의 약 32%가 외식업체에서 그들의 첫 번째 직업 경험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식서비스 직업의 경우 여성이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세 이하의 종업원이 53%, 미혼이 66%로 나타나며 평균 주 25시간 근무를 한다고 한다.
- 미국 외식산업시장은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외식업계의 업종별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가 있으며 종사자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⁷ 한국외식정보(주), 한국외식연감 2006년도 자료를 인용함.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노동시간의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외식산업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3. 중국의 가공식품 · 외식산업 현황

1.3.1. 가공식품산업 현황

가. 기본 현황

- 중국 식품산업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4년 중국 식품산업의 시장 규모는 1,934억 달러로 1997년에 비해 3배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시장 규모가 2,418억 달러로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경에는 식품시장의 규모가 2000년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USDA).
- 중국에서는 약 30% 정도의 식품이 가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선진국의 가공식품 비율이 80%인 점을 고려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의 식품가공산업은 향후 발전 여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중국 내에서 식품가공산업은 공식적으로 식품가공업(food processing), 식품제조업(manufacture of food), 음료 제조업(manufacture of beverage)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 식품가공업에는 주로 곡물의 도정, 밀가루 가공, 설탕 정제, 도축, 소금 정제, 사료 가공 등의 1차적인 가공 행위가 포함된다.
 - 식품제조업에는 포장, 제빵, 낙농품, 각종 통조림, 발효 식품, 조미료 등이 포함된다.
 - 음료 부문에는 주류(맥주, 와인, 증류주), 차, 탄산음료 등이 포함된다.

표 II-26. 중국의 식품가공산업 현황

	가공업체수		매출액	
	업체 수 (개소)	비중 (%)	매출액(10억 달러)	비중 (%)
식품 가공업	11,192	59	70,923	58
식품 제조업	4,636	24	26,283	21
음료 제조업	3,194	17	25,663	21
합계	19,022	100	122,869	100

주: 연간 매출액이 60만 달러(5백만 위안) 이상인 기업만 대상으로 한 결과임.

자료: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4.

- 2003년에 중국내 식품 가공업체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약 60만 달러(5백만 위안) 이상인 기업의 수는 19,022개였고, 전체 매출액은 1,228억 달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USDA).⁸ 또한 식품산업 가운데 업체수와 매출액 측면에서 식품 가공업의 비중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부가가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음료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다른 두 개의 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중국 식품 산업은 업체수의 측면에서 2003년에 2001년보다 4.2% 증가하였다. 세 가지 부문 가운데에서는 식품가공업의 기업 수 증가율이 7.8%로 가장 높다. 반면에 음료제조업의 기업 수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업 간 합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매출액은 43.4% 증가하였는데, 식품가공업이 53.0%, 식품제조업이 42.7%, 음료제조업이 22.6%로 증가하였다. 기업 수

⁸ 중국 정부는 연간 매출액이 5백만 위안 이상이 기업만 조사에 포함시키고 매출액이 이보다 적은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소규모 가공업체까지 포함하면 중국 내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수는 90만 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증가율보다 매출액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중국의 식품가공산업은 상하이, 광둥성, 산둥성 등의 동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지역은 항구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내륙 운송에도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 식품가공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은 상하이 인근지역으로 인근의 강소성과 절강성 지역까지 포함하면 매출액이 60만 달러를 넘는 기업 수는 3,134개에 이른다.
- 과거에는 가공업체가 상하이 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었으나, 최근에는 비용이 저렴한 강소성과 절강성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현재 식품 가공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소성으로 1,353개가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매출액은 연간 95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7. 중국 식품가공업체 수 및 매출액

		2001	2002	2003
가공업체 수 (개소)	전체	18,251	18,315	19,022
	식품가공업	10,381	10,413	11,192
	식품제조업	4,563	4,615	4,636
	음료제조업	3,307	3,287	3,194
매출액 (10억 달러)	전체	85.7	99.6	122.9
	식품가공업	46.4	54.7	70.9
	식품제조업	18.4	22.2	26.3
	음료제조업	20.9	22.7	25.7

주: 연간 매출액이 60만 달러(5백만 위안) 이상인 기업만 대상으로 한 결과임.

자료: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4.

- 강소성 다음으로 식품 가공업체가 많이 위치한 지역은 광둥성이다. 광둥성에는 1,282개의 식품가공업체가 있으며, 연간 매출 규모는 99억 달러로 강소성의 매출 규모보다 크다. 이는 광둥성 지역의 식품 가공업이 강소성보다는 고부가가치 식품을 주로 가공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II-28. 세부 부문별 중국의 식품산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49,020.2	52,685.6	56,739.7	1,175.0	66,020.9
과자류	3,441.6	3,723.8	4,049.2	4,390.2	4,678.3
제빵	5,946.3	6,510.8	7,124.4	7,717.3	8,367.3
아이스크림	2,351.7	2,538.1	2,724.1	2,898.1	3,178.6
낙농품	2,895.2	3,398.6	3,935.6	4,514.3	5,083.6
사탕및스낵	1,516.1	1,634.6	1,749.4	1,870.8	2,007.5
조리식품	235.6	252.4	271.5	293.4	317.9
수프	8.4	8.6	9.0	9.4	9.8
파스타	2.7	2.8	2.9	3.0	3.1
국수	3,803.8	4,165.3	4,535.5	4,982.8	5,482.5
통조림	5,173.2	5,330.8	5,509.0	5,686.0	5,891.2
냉동식품	2,889.2	3,083.0	3,306.1	3,514.4	3,737.6
건조식품	3,887.7	4,257.0	4,635.8	5,091.3	5,600.2
냉장식품	1,080.8	1,138.4	1,206.9	1,273.2	1,349.6
가공육	7,179.8	7,508.2	7,884.7	8,250.6	8,660.4
유지류	1,359.2	1,587.4	1,897.5	2,436.8	3,015.1
소스류	6,921.7	7,194.2	7,519.2	7,835.8	8,202.2
스프레드	327.2	351.7	379.0	407.6	436.0

자료: USDA GAIN Report CH5607.

나. 식품산업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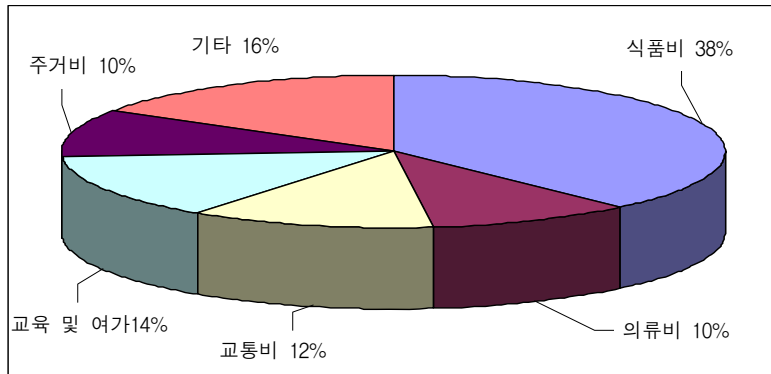
- 식품가공산업 가운데 포장식품 (Packaged Food)의 규모는 2004년에 660억 달러인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8% 정도 성장을 한 결과이다.
- 전체 포장식품 가운데 제빵산업과 국수류 산업의 비중이 높는데, 두 산업의 매출 규모를 합하면 전체 산업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 품목별로는 제빵, 아이스크림, 낙농품, 조리식품, 국수, 유지류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특히 유지류는 매년 20%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다. 식품 소비 현황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품 소비국이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51%, 쌀의 33%, 아이스크림의 19%, 가금육의 19%, 쇠고기의 12%가 중국에서 소비되고 있다. 중국은 연간 육류 850만톤, 채소 4,000만톤, 과일 1,250만톤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중국인에게 식품이란 단순한 소비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중요한 문화의 한 부분이고 가족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은 가족 관계에서 중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포장된 식품과 신선식품은 친척이나 동료, 사업 파트너 등에게 선물용으로 선호되고 있다.
- 2000년 기준 가구당 소비 비중을 보면, 아직까지 식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China 2000 Statistical Yearbook). 2000년에 가구당 평균 소비 지출액은 4,615.91 위안으로 이 가운데 식품 지출액은 1,438.9 위안이다. 다음으로 교육, 의류 등에 대한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에 대한 지출 비중은 2004년 들어 38%로 감소하였는데, 소득이 증가하

면 식료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이 중국에서도 나타난 결과이다. 식료품에 대한 지출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교통비와 교육 및 여가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I-9. 중국 도시가구의 소비지출 구성 (2004)



자료: USDA/FAS, Gain Report CH6804.

- 한편 도시가구와 농촌가구를 구분하여 보면, 2003년에 가처분 소득은 도시가구가 농촌가구의 3.2배 많지만 식료품비는 2.7배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중은 도시가구는 29%, 농촌가구는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가구의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도시가구보다 높음을 알 수가 있다.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1인당 식품 구매량을 보면, 농촌지역은 곡물류의 소비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도시지역은 육류와 과일류 등의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우유류의 구매량 차이가 큰데, 도시지역 소비자와 농촌지역 소비자간 우유 구매량 차이는 10배 이상이다. 곡물류 소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육류와 우유류 소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29. 중국의 도농간 가처분 소득 및 식료품비 차이

단위: 위안

	2001	2002	2003
도시 가구			
가처분 소득	6,859.6	7,702.8	8,472.2
식료품비	2,014.0	2,271.8	2,416.9
비중 (%)	29.4	29.5	28.5
농촌가구			
가처분소득	2,366.4	2,475.6	2,622.2
식료품비	830.7	872.4	886.0
비중 (%)	35.1	35.2	33.8

자료: China Statistical Yearbook 각년도.

표 II-30. 중국의 도농간 1인당 식품 구매량

단위: Kg

	2001	2002	2003
도시지역			
곡물류	79.69	78.48	79.52
육류	24.42	32.52	32.94
우유	11.9	15.72	18.62
채소류	115.86	116.52	118.34
과일류	59.9	56.2	57.79
농촌지역			
곡물류	255.72	242.26	227.72
육류	18.30	18.60	19.68
우유	1.06	1.19	1.71
채소류	111.98	110.55	107.40
과일류	18.31	18.77	1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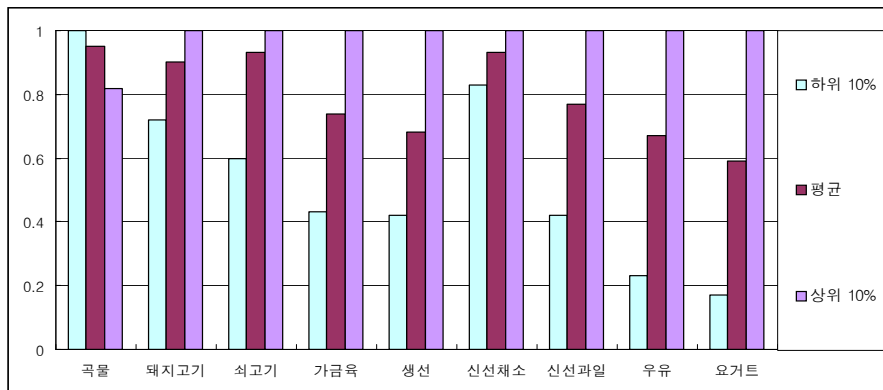
자료: China Statistical Yearbook 각년도.

- <그림 II-10>은 중국 가구의 소득 수준별 상대적 소비량을 나타낸 것으로 상위 10% 혹은 하위 10% 가구 가운데 해당 품목을 많이 소비하는 양을 기준으로 다른 계층의 소비량을 비교하였다.
- 중국의 경우에 하위 10% 가구가 소비하는 식품 가운데 상위 10%보다 많이 소비하는 것은 곡물뿐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식품들은 상위 10% 가구의 소비량이 많다.
- 돼지고기, 신선채소 등의 소비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들 품목의 소비가 매우 대중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쇠고기, 신선 과일, 우유, 요거트 등은 저소득층의 소비량이 고소득층의 소비량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러한 품목들은 중국 내에서 고급품으로 인식되는 품목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이다.

라. 식품 수출입 현황

- 중국 식품의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수입의 증가율이 훨씬 빨랐다. 2001년에 138억 6800만 달러였던 식품의 수출이 2004년에 203억 26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연평균 5.9%씩 수출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수입은 2001년에 87억 달러에서 2004년에 201억 3000만 달러로 연평균 12.9%씩 증가하였다. 식품의 수입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다.
- 주요 수출상품으로는 수산물, 식용채소, 곡물, 육가공 제품, 통조림 가공품, 조가공품 등의 비중이 높다. 지역적으로는 산둥성, 광둥성, 요녕성, 절강성, 복건성, 길림성 등 6개 성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내륙 지역의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림 II-10. 주요 식품에 대한 중국 도시가구의 상대적 소비량



자료: USDA/FAS, GAIN Report CH6804.

- 주요 수출지역은 일본, 미국, 유럽 등이며, 가공식품 가운데에서는 통조림 가공품의 수출 비중이 높다. 중국 전체 통조림 생산의 50% 이상이 수출되는 등 통조림은 중국의 전통적인 수출품목에 속한다. 통조림 가운데에서는 과일 통조림과 채소 통조림의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고 육가공 통조림의 비중이 10% 내외를 차지한다.

표 II-31. 중국의 식품산업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증가율
수출	13,868	15,512	18,759	20,326	5.9%
수입	8,701	9,266	14,294	20,130	12.9%

자료: 중국식품공업협회.

- 현재 중국에서 많이 수입되는 식품은 식용유지와 유제품으로 이들 품목들에 대한 무역 적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상반기의 경우 식용유지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하였고 무역 적자도 1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유제품도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고

표 II-32. 중국의 음식 조달업 현황

단위: 10억 달러

	2001	2002	2003
업체 수 (개소)	6,386	7,424	8,908
수입 (10억 달러)	57.6	67.3	76.7
고용자 수 (천명)	777.4	978.0	1,132.7

자료: China Statistical Yearbook.

무역 적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식용유지와 유제품은 중국 내 가공기술과 원가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해당된다.

1.3.2. 외식산업 현황

- 중국의 음식 조달업(Catering Sector) 부문도 성장이 빠른 부문 중의 하나인데, 2003년에 음식 조달업은 1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767억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음식 조달업 (Catering Sector)에는 외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외식산업은 중국의 식품산업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부문이다. 이는 집에서 조리해먹던 것에서 밖에서 사먹는 것으로 식습관이 변화하는 것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 특히 중국은 최근 직장 여성이 증가하면서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가구당 자녀수는 빠르게 감소하여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품산업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식당, 커피점, 패스트 푸드점, 음식 배달업 등의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 가장 인기 있는 외식의 형태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식당들이다. 이런 식당들은 아직까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서구식 패스트푸드 식당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KFC, Pizza Hut, Taco Bell 등을 소유하고 있는 Yum! Brands Inc.사는 2004년에 1,130개의 지점으로부터 11억 달러의 매출을 보였다. 또한 맥도널드 사는 전국에 60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지역의 소규모 식당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이 쉽지 않은데, 지역의 소규모 식당들이 쌀, 고기, 채소로 요리된 식사를 1달러 수준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1.4. 호주의 가공식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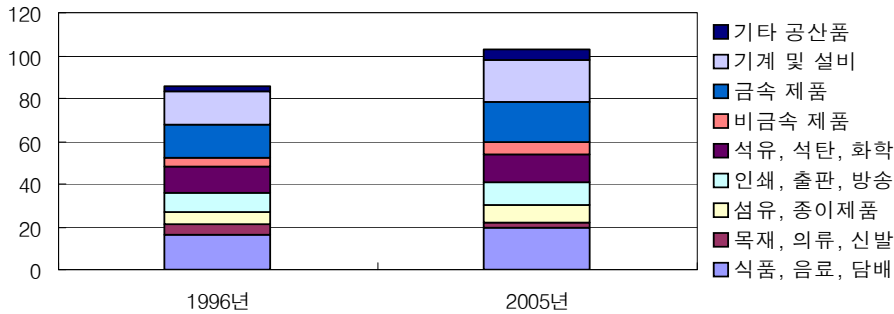
1.4.1. 가공식품산업 현황

가. 기본 현황

- 1970년대 이후 호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제조업 부문 내에서 식품 산업의 비중은 약 20%정도로 제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호주 식품산업의 경우 연평균 약 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품 산업이 호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06년 호주 농수산 식품 생산액은 전년 대비 10%정도 증가한 348억 달러 규모이며 이는 농작물이 전년대비 38% 상승한 97억 달러 규모의 생산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식품 수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238억 달러로 나타났다. 또한 육류, 곡류, 유지류 제품의 수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68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으나, 식품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70억 달러가 많아 여전히 주요 식품 수출국으로 분석된다.

그림 II-11. 호주 제조업의 부문별 구성 (부가가치 기준)

단위:10억 달러



자료: Australian Bureau Agricultural Resource Economics(ABARE)

- 한편 2007년 호주 농수산물 식품 생산량은 2006년도 후반 심각한 가뭄 등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50%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17%정도 하락한 290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33. 호주 식품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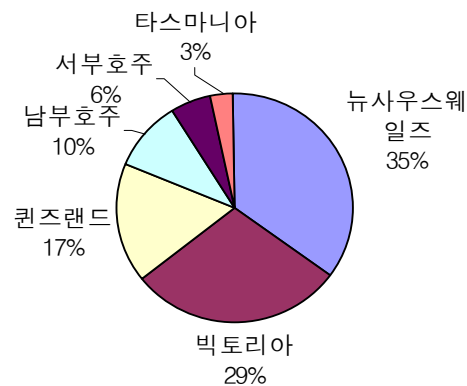
단위: 10억 달러,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농수산 식품 생산액	34.8	27.7	32.5	31.7	34.8
농수산 부가가치, 식품 가공액	16.2	16.2	16.5	17.4	-
- GDP대비 비율	(2.3)	(2.1)	(2.0)	(1.9)	-
식품·주류 소매액	76.8	81.9	88.7	91.8	97.4
- 전체 소매시장 중 비율	(45.9)	(15.9)	(45.9)	(45.6)	(46.4)
식품 수출액	26.6	22.3	22.1	23.8	23.8
- 전체 상품 무역 중 비율	(22.0)	(19.3)	(20.2)	(18.6)	(15.4)
- 최소 운송 비율	(34.8)	(30.7)	(32.1)	(29.4)	(28.1)
식품 수입액	5.3	5.9	5.9	6.5	6.8

자료: Australian Food Statistic

- 지리적으로 식품산업의 분포는 인구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호주 식품산업의 경우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즈와 같은 동부 해안가에 대부분 위치해 있다. 1998 ~ 1999년과 2002 ~ 2003년까지 호주 식품산업의 성장은 대부분 뉴사우스웨일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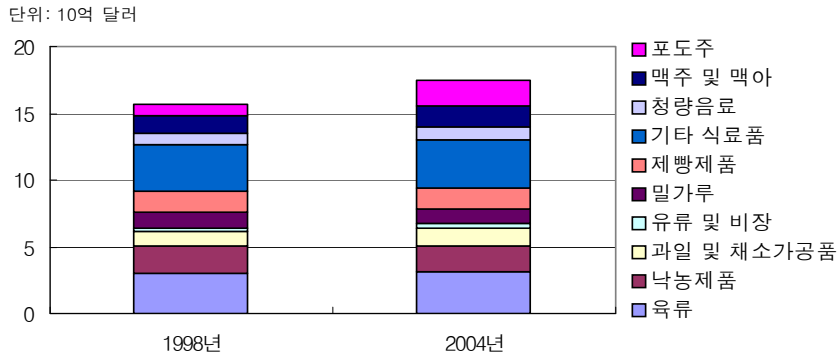
그림 II-12. 호주 식품 산업의 주별 분포 (2002~2003)



자료: Australian Bureau Agricultural Resource Economics(ABARE)

- 식품산업의 고용자수는 호주 제조업 총 고용자수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산업의 고용 현황 및 생산성을 살펴보면 식품산업의 노동 및 기타 요소 생산성이 높아 과거 20년간 이 분야 고용 상황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고용은 식품산업 전체의 소득 변화와 더불어 다소의 변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동은 가뭄, 홍수, 폭풍과 같은 기후 요인에 의해서 원료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거나 환율변동에 따른 판매액의 변화 또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야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I-13. 부문별 호주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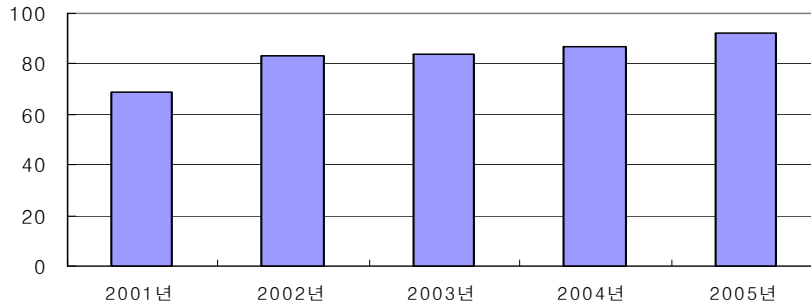
자료: Australian Bureau Agricultural Resource Economics(ABARE)

나. 식품산업의 구성

- 호주의 식품산업 중 육류제품과 기타식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 식품산업 내 부문별 성장추세를 살펴보면 포도주, 맥주, 맥아, 청량음료, 시럽의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포도주가 식품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1997 ~ 1998년부터 2003 ~ 2004년에 포도주 생산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2005 ~ 2006년에 포도주 생산액이 17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 또한 음료와 육류 제품부문이 급성장하여 두 부문의 부가가치는 각각 3억 달러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 중 육류 제품은 식품산업에서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03 ~ 2004년 부가가치가 34억 달러 정도 (2006년 화폐가치 기준)로 나타났다.
-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의 식품제조업의 고용인당 부가가치는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인당 실제부가가치는 7% 증가한 92,500달러로

그림 II-14. 식품산업에서 고용인당 실제 부가가치 변화추이

단위: 천 달러(호주), 2006년 화폐기준



자료: Australian Food Statis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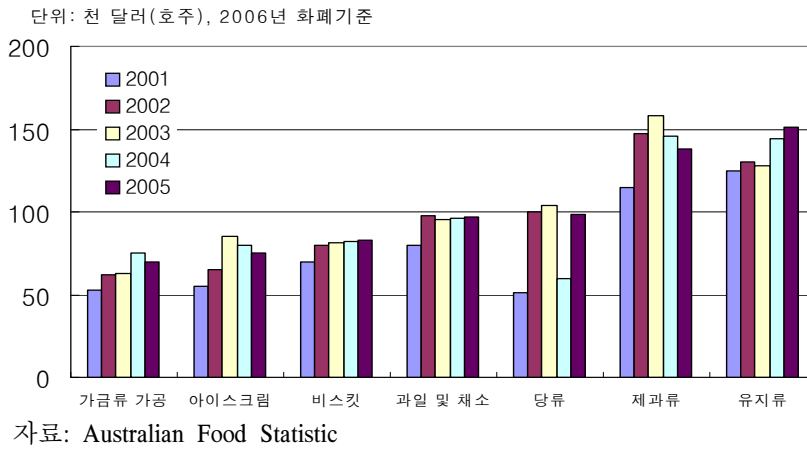
나타났다. 식품제조업의 대부분은 제품 생산의 기본이 되는 1차 생산물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용인당 부가가치의 변동 폭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인당 부가가치가 가장 큰 품목은 맥주와 맥아 산업으로 2005년도에 42만 달러의 규모였다.

- 2001년 대비 2005년의 고용인당 부가가치가 18% 이상 증가한 품목은 총 7개로 각각 당류 (94%), 가금류 가공 (29%), 비스킷 (26%), 아이스크림 (24%), 유제품 (21%), 과자제조 (19%), 과일 및 채소(18%) 등이다.
- 기타 산업 중 케이크 및 패스트리 (14%), 빵 (10%), 우유 및 크림가공 (8%), 제분제품 (7%), 사료 (5%) 등은 고용인당 부가가치 증가를 나타냈으나, 와인 (18%), 해산물 가공 (13%)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식품 소비 현황

- 식품 소비 지출 변동 폭이 소득 변동 폭보다 작아 식품 소비 지출이 소득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88~1989년부터 2003~2004년까지 식품 소비 지출은 약 3%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식품 소비지출이 약 0.2%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15. 품목별 고용인당 부가가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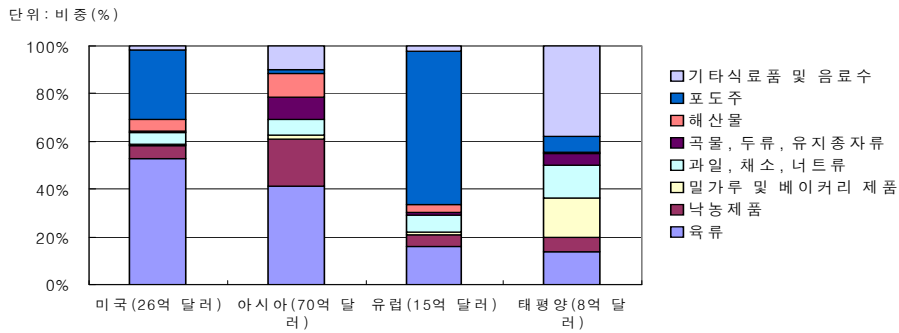
- 식품 중 가금육, 해산물, 신선과일과 채소에 대한 소비지출은 증가하였으나 육류, 계란, 곡물, 설탕에 대한 소비지출은 감소했다. 1948~1949년 이후 호주 국민의 전반적인 소비패턴은 수산물과 같은 고부가가치 식품의 소비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 2006년도 호주의 전체 식품 및 주류 소비는 전년대비 6.1% 증가한 974억 달러로 전년도 증가율 3.5%에 비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식품 및 주류 소비 증가율은 전체 소매 소비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식품 및 주류 지출이 전체 소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4%로 나타났다.

라. 식품 수출 현황

- 호주의 식품 수출은 연평균 2%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1995 ~ 1996년 40억 달러에서 2004 ~ 2005년 24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식품 수출품 중 육류 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포도주와 낙농제품의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퀴즈랜드는 호주 제 3의 식품생산 주이지만 식품수출 면에서는 제 1위 주로 수출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퀴즈랜드의 연간 식품수출은 2005 ~ 2006년 기준으로 50억 달러로 이 중 육류제품이 30억 달러, 설탕이 10억 달러 규모이다.
- 2004년을 기준으로 아시아는 호주의 최대 식품 수출시장이었다. 아시아 전체적으로 약 70억 달러의 식품을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수출품의 구성은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한 예로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경우 전체 금액은 15억 달러의 규모이지만 포도주의 경우 유럽연합은 호주 최대의 수출 시장이며 미주, 아시아에는 육류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 호주의 식품 수출 규모는 238억 달러이다. 2002년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했으며 이는 2003년 발생한 사스로 인해 아시아 수출이 감소로 인한 것이다.
- 2006년의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가공유제품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26억 달러, 당류는 41% 증가한 16억 달러, 가공 과일 및 채소는 9% 증가한 54,700만 달러, 제분 및 시리얼 식품은 8% 증가한 46,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또한 가공육은 전년대비 3% 감소한 68억 달러, 가공 해산물은 12% 감소한 57,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곡류는 8% 감소한 43억 달러, 유지는 16% 감소한 41,010만 달러로 나타났다. 맥주 및 맥아의 2006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21,800만 달러로 나타났으나 와인산업은 2006년 수출액은 2000년의 6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I-16. 호주의 수출지역별 식품 수출액 (2004)



자료: Australian Bureau Agricultural Resource Economics(ABARE),

- 2006년 식품 수출의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육류는 28%, 곡류는 18%를 차지하여 육류와 곡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와인의 수출 성장률은 전체 식품 수출 증가율에 큰 기여를 했는데 1991년 전체 식품 수출규모에서 와인의 비중은 2%였으나 2006년도에는 12%로 증가하였다. 또한 유제품도 1991년 8%에서 2006년 1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호주 식품 수출의 약 75%는 수출 시장에서 호주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제품들로 구성된다. 또한 식품 수출의 35% 정도는 해당 지역의 수출 증가율이 세계 평균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호주 식품 수출의 35% 정도가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반면 수출의 6% 정도는 시장이 축소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시장에서는 호주가 식품 수출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4. 호주의 식품 수출 현황

단위: 100만 달러

항 목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생육류	528	625	753	938	993	602	594	668
어육 및 조개류	517	639	771	867	772	676	584	657
채소	218	191	201	218	199	161	155	149
과일 및 견과류	372	396	476	561	531	406	461	447
곡류	4193	4208	5294	5854	3873	4654	4672	4305
유지종자류	683	798	721	752	400	549	492	411
Food nec	88	54	81	59	72	45	44	47
육가공	3986	4440	5770	6215	5625	5722	6901	6668
가금류가공	23	21	26	26	22	20	20	21
베이컨, 햄, 소세지 등	61	86	65	80	825	84	106	90
해산물	704	899	943	792	711	640	652	577
우유 및 크림 가공	1056	1126	1500	1650	1176	1073	1107	1210
아이스크림	41	36	34	32	29	35	41	39
기타 유제품	1193	1305	1486	1592	1285	1174	1334	1316
과일 및 채소류	480	522	566	656	528	508	502	547
유지류	170	131	129	147	144	146	150	148
제분 제품	204	209	207	233	213	202	222	222
시리얼제품과 혼합물	513	529	544	400	257	217	213	245
빵, 케익, 패스트리	11	19	15	8	3	4	5	9
비스킷	79	69	73	92	96	105	113	106
설탕류	1377	1111	1192	1446	1238	1000	1169	1645
제과류	176	230	261	287	291	267	250	200
Food nec	734	900	1087	1148	876	931	935	964
소프트 드링크, 코디얼주, 시럽	23	26	45	30	47	37	35	34
맥주와 맥아	207	213	266	317	324	282	241	218
와인	1068	1374	1753	2105	2424	2494	2716	2757
스프리트	38	55	73	81	72	59	75	71
총합계	18757	20211	24380	26585	22284	22093	23788	23772

자료: Australian Food Statistic

마. 식품 수입 현황

- 2006년 호주 식품 수입 규모는 2005년 대비 5% 증가한 68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된 증가 품목으로는 채소, 과일 및 견과류 (20% 증가한 22,600만 달러), 유제품 (13% 증가한 43,200만 달러), 제빵 제품 (10% 증가한 24,700만 달러), 음료 및 맥아 (10% 증가한 133,400만 달러) 등이다.
- 반면에 유지종자류 (20% 감소한 2,000만 달러), 가공육 (14% 감소한 33,300만 달러), 제분 제품 (22% 감소한 5,700만 달러)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공 식품은 전체 식품 수입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수입 식품 중 가공 과일, 채소 및 해산물의 수입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가공육류, 제분 및 시리얼, 제과류, 제빵제품, 와인, 맥주 및 맥아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호주의 주요 수입국은 뉴질랜드인데 2006년 호주 식품 수입의 19% 이상인 약 13억 달러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 14% 정도였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베트남 등의 다른 나라도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호주 무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미국과 태국은 2006년에 각각 호주의 두 번째,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수입국이 되었으며, 앞으로 두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35. 호주의 식품 수입 현황

단위: 100만 달러

항 목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생육류	1	1	0	1	0	0	1	1
어육 및 조개류	31	35	37	37	41	46	46	47
채소	24	27	26	24	27	34	32	41
과일 및 견과류	94	99	110	115	115	135	158	184
곡류	1	1	0	0	65	1	1	1
유지종자류	29	23	24	21	61	50	25	20
Food nec	172	155	114	59	72	45	44	47
육가공	51	133	105	206	172	224	345	290
가금류가공	0	0	0	0	0	0	0	0
베이컨, 햄, 소세지 등	28	29	31	36	39	40	41	43
해산물	720	751	843	865	923	868	928	997
우유 및 크림 가공	33	29	37	29	34	35	45	45
아이스크림	33	17	21	15	22	22	29	30
기타 유제품	207	230	261	277	275	272	310	357
과일 및 채소류	715	719	753	815	899	914	999	1016
유지류	288	271	275	280	357	345	339	362
제분 제품	48	79	77	22	41	59	73	57
시리얼제품과 혼합물	149	139	196	226	236	260	285	305
빵, 케익, 페스트리	76	81	92	57	29	39	47	48
비스킷	62	80	82	106	152	160	177	199
설탕류	9	11	12	16	20	15	18	19
제과류	208	213	224	222	245	261	307	333
Food nec	729	757	858	923	1033	961	1036	1072
소프트 드링크, 코디얼주, 시럽	276	330	405	421	461	502	537	571
맥주와 맥아	44	42	52	66	78	91	99	112
와인	103	114	92	116	139	158	200	248
스프리트	232	252	330	351	327	345	382	403
총합계	4361	4618	5059	5306	5863	5883	6503	6848

자료: Australian Food Statistic

바. 연구개발 및 기타 시장 현황

- 식품산업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생산 시설의 입지와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각 주별로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97~1998년부터 2003~2004년 사이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출의 대부분은 빅토리아 주에서 발생한 것이다.
- 또한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 식품연구개발 지출은 호주 전체 식품산업 연구개발 지출의 70%를 차지한다. 식품연구개발 지출은 종업원 규모가 200인 이상인 기업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며 이 중 대부분은 인건비와 기타 경상비로 구분된다.
- 대형 다국적 기업이 세계 식품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시장도 이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에서 식품산업 수입액의 75% 정도는 50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외국인 소유이거나 상장기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50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데, 우유의 경우 이들 상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95%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수산식품의 경우 7%에 불과하다.
- 50대 기업의 절반가량이 외국인 소유 기업이며 이들 외국인 소유 기업이 호주 국내 식품산업 수입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상장회사, 조합, 민간 기업들이 호주 국내 식품산업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 14%, 10% 정도로 나타났다.
- 2001년~2002년 식품 산업의 투입 구성을 보면 원료 농산물 32%, 주요 서비스 26%, 노동력 17%, 식료품 13%, 기타 공산품 투입재 12% 등이다. 식품산업의 산출물 중 43%는 가계, 22%는 수출, 33%는 타 산업의 투입재, 2%는 재고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쇠고기, 낙농제품, 양고기, 가금 및 돼지를 포함하는 육류제품 산업이 식품 산업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육류제품 산업에 대한 투입 구성은 농산물이 57%로 가장 높고 주요 서비스(수송, 저장, 도매업 등)와 노동력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육류제품의 소비처는 산업용이 37%, 수출이 32%, 가계소비비가 2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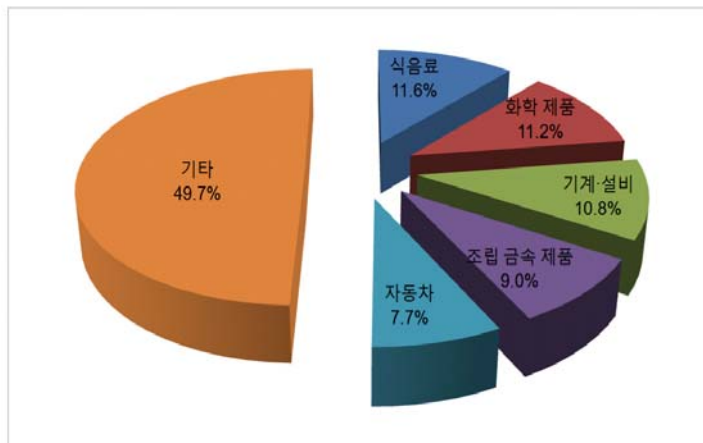
1.5. EU의 가공식품 현황

1.5.1. 가공식품산업 현황

가. 기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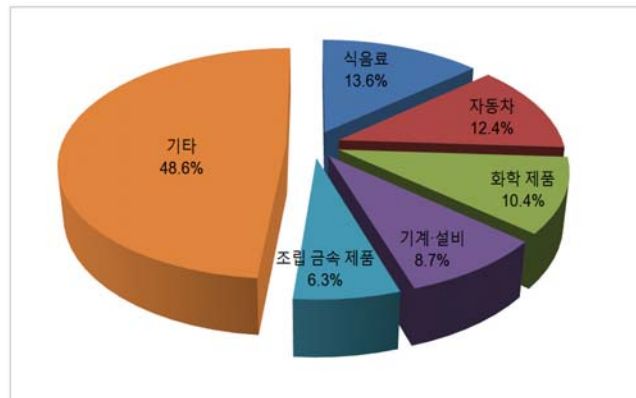
- EU에서의 식품산업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1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중요도가 높은 산업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II-17. EU 제조업의 부문별 구성 (부가가치 기준)



자료 : Confederation of the food & drink industry of the EU

그림 II-18. EU 제조업의 부문별 구성 (매출액 기준)



자료 : Confederation of the food & drink industry of the EU

- 2005년 EU의 식음료 시장 규모는 8천 360억 유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6%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평균 1.8%의 성장률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가파른 성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 EU의 식품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인데, 이들 국가의 매출액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6. EU 25개국의 식품산업 현황 (전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5/2004
총매출액(10억 유로)	791	799	815	836	2.6%
부가가치(10억 유로)	178	181	-	-	-
고용인수(백만명)	4.2	4.1	3.9	3.8	-1.5%
업체수(천개)	-	282.6	-	-	-

자료 : Confederation of the food & drink industry of the EU

표 II-37. EU 25개국의 식품산업 현황 (국가별)

단위 : 10억 유로, 천명, %

구분	매출액			고용자수		
	2004	2005	2005/2004	2004	2005	2005/2004
오스트리아	9.6	9.9	2.5	58.4	58.5	0.2
벨기에	31	31.5	1.6	91.2	90.4	-0.9
체코공화국	8.3	9.4	2.6	133.8	131.4	-1.8
독일	130.2	133.6	2.6	520	517	-0.6
덴마크	17.9	20.5	14.7	76.9	73.5	-4.4
에스토니아	1	1.1	10	17.7	16.7	-5.6
스페인	65.1	65.4	0.6	430.3	481.7	-
핀란드	8.6	8.9	3.5	37.7	37.2	-1.3
프랑스	137.1	139.7	1.9	421.7	420	-0.4
그리스	-	10.5	-	-	67.8	-
헝가리	7.8	7.5	-4.2	115.9	113.4	-2.2
아일랜드	16.6	17.8	7.2	51.6	46	-10
이탈리아	105	107	1.9	263	258	-1.9
라트비아	1.1	1.3	17	35.6	35.3	-0.6
네덜란드	39	-	-	130.3	-	-
폴란드	28.4	-	-	464.3	-	-
포르투갈	11.5	11.9	3.1	103.1	-	-
슬로바키아	2.5	2.4	-1.4	39.1	36.8	-5.9
슬로베니아	1.8	1.8	-3.3	18.1	18.3	1.1
스웨덴	14.7	15.2	3.4	58.9	58.7	-0.3
영국	102.5	-	-	462	-	-

자료 : Confederation of the food & drink industry of the EU

- EU의 식품산업은 다양한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99.1%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

표 II-38. 기업 규모별 식품산업의 비중

단위 : %

종업원수		1~9명	10~49명	50~249	250명 이상
매출액	제조 산업	6.8	13.3	20.8	59.1
	식품산업	6.8	15.1	26.0	52.2
부가가치	제조 산업	7.3	15.8	22.3	54.6
	식품산업	8.7	15.0	22.5	53.8
고용자수	제조 산업	9.5	21.8	25.2	43.4
	식품산업	16.4	20.7	24.3	38.7

자료 : Confideration of the food & drink industry of the EU

다. 중소기업의 업체 수는 28만2천600여개인데, 전체 식품산업 매출의 47.8%를 차지하며 고용인수 기준으로는 6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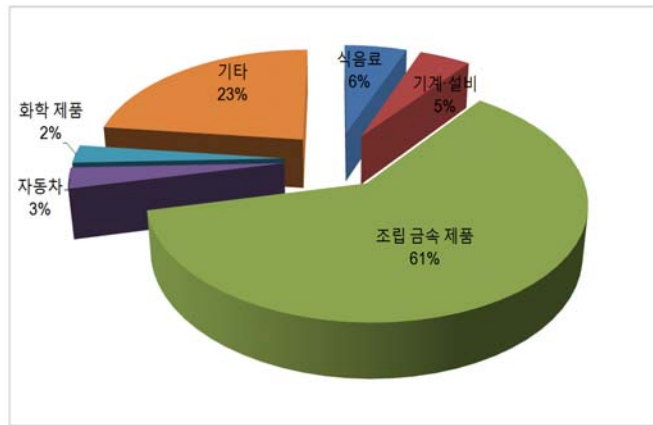
○ 반면에 대기업은 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5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들 대기업은 부가가치의 53.8%, 고용 창출의 38.7%를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U의 식품산업은 28만 3천여개의 회사에서 약 380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전체 EU 제조업 중에서 고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종업원 수를 줄이는 경향에 따라 2005년도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식품산업의 구성

○ EU 식품산업에서 식품 품목별 매출을 비교하면 <그림 II-20>과 같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Various food products로 전체의 26%를 차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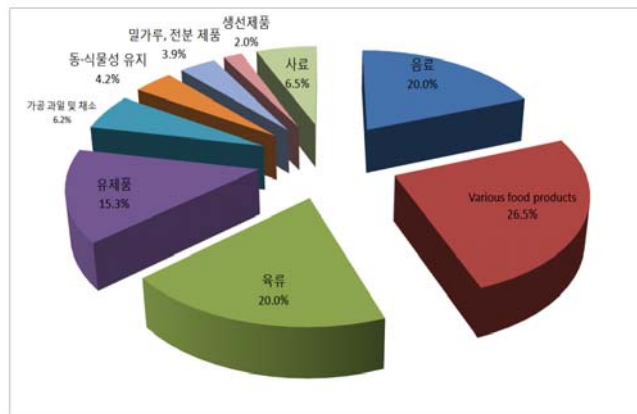
그림 II-19. EU 제조업 중 고용자수 비율



자료 : Confederation of the food & drink industry of the EU

고 있으며 고용자수는 42%를 차지한다. 또한 Various food products와 육류와 음료 및 유제품을 합친 경우 이들 매출이 식품산업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I-20. 품목별 매출액 비중



자료 : Confederation of the food & drink industry of the EU

- Various food products라 불리는 품목은 <표 II-39>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파스타, 초콜릿, 제과류, 패스츄리 등을 포함한다. EU의 식품산업에서의 주력 품목으로 분류되는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매출의 26%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 식품 소비 현황

- EU 회원국 국민의 소비 지출 중 식품 소비에 지출되는 금액의 비중은 전체의 12.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EU 15개 회원국을 포함한 국가별 개인당 식품 소비량을 살펴본 결과가 <표 II-40>에 나타나 있는데, 국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별로 문화와 전통, 가정 경제, 수입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표 II-39. Various food products의 구성

세부 품목	비율
빵, 신선 패스트리, 케이크	33.0
초콜릿 및 제과	17.4
리스크, 비스킷, 저장 패스트리	9.9
당류	8.7
커피 및 차	7.8
조미료	5.2
마카로니, 면류, 쿠스쿠스	4.3
균질화 식품 조제품 및 영양 식품	3.5
기타	10.2
합계	100.0

자료 : Confederation of the food & drink industry of the EU

표 II-40. 연간 개인당 식품 소비량

단위 : kg

	브라질	중국	미국	EU-15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설탕 및 감미료	56	8	71	41	41	47	32
야채	41	270	123	126	143	78	178
과일	96	50	113	117	95	115	131
커피	2	0	4	5	5	10	6
육류	81	55	123	92	98	77	91
버터	1	0	2	4	8	4	3
우유	118	17	262	255	275	378	252
난류	7	18	15	12	15	11	11
생선 및 해산물	6	25	21	26	31	34	26

자료 : Confederation of the food & drink industry of the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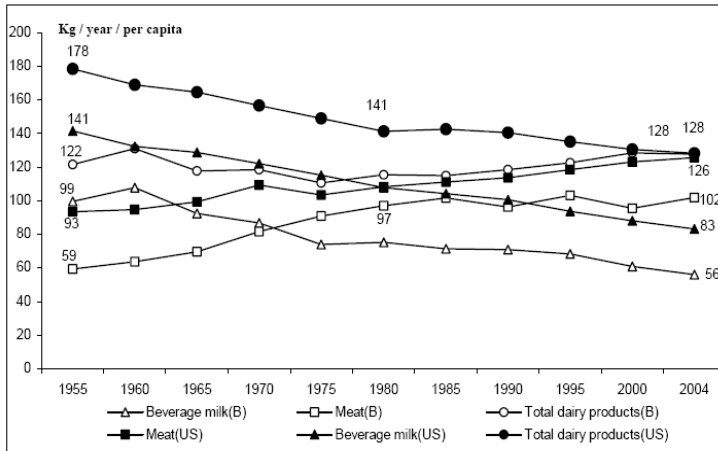
- 육류와 유제품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소비량을 비교하면 <그림 II-21>과 같다. 육류와 유제품을 포함한 전체 소비량은 미국의 경우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유럽의 경우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에서의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유음료 소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EU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식품 수출입 현황

- 2005년 EU의 25개 회원국에서 비회원국으로 수출한 식음료품의 금액은 476억 유로에 달했으며,⁹ 반대로 수입액은 431억 유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05년 EU의 식품산업은 45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⁹ 2005년 EU-25개국 내의 식품산업 수출액은 이보다 많은 1천464억 유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1. 미국과 유럽의 육류 및 유제품 소비량 비교



자료 : EUROSTAT

- EU와의 주요 교역국으로는 미국, 브라질, 스위스, 러시아 등이다. 2005년 식음료 수출액은 전년대비 5.3% 증가했으며, 음료와 various food products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 EU의 주요 무역 거래국 (2005)

단위 : 100만 유로

수출		수입	
미국	10,389	브라질	4,696
러시아	3,920	아르헨티나	3,708
일본	3,453	미국	2,745
스위스	3,025	중국	2,155
캐나다	1,596	터키	1,681
노르웨이	1,455	스위스	1,623
사우디아라비아	1,037	뉴질랜드	1,493
호주	1,007	인도네시아	1,381
한국	957	노르웨이	1,326
루마니아	776	태국	1,311

자료 : EUROSTAT

- 북미 국가들이 여전히 EU의 중요한 무역 대상국인 가운데 2005년 독립국가 연합 (CIS)과의 교역량이 빠르게 성장 (수출액 12%, 수입액 15%)하면서 약 40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다.
- 최근 5년간 새로운 국가로부터의 식음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5년 사이에 66% 증가하면서 EU의 중요 수입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표 II-42. 신흥 국가로의 수출입 현황

단위 : 100만 유로

수출				수입			
국가	순위 ¹⁾	2005	2005/2000	국가	순위 ²⁾	2005	2005/2000
한국	9	957	27%	브라질	1	4,696	23%
중국	11	765	72%	아르헨티나	2	3,708	25%
멕시코	18	563	-11%	중국	4	2,155	42%
우크라이나	19	525	62%	인도네시아	8	1,381	23%
태국	25	432	8%	태국	10	1,310	4%
브라질	26	417	-18%	말레이시아	12	1,087	63%
남아프리카	27	389	33%	칠레	13	1,074	59%
말레이시아	38	260	-8%	남아프리카	15	822	40%
인도네시아	41	244	-17%	인도	16	808	23%
인도	60	116	32%	우크라이나	24	383	61%
칠레	72	90	9%	멕시코	31	289	55%
아르헨티나	95	51	-12%	한국	69	8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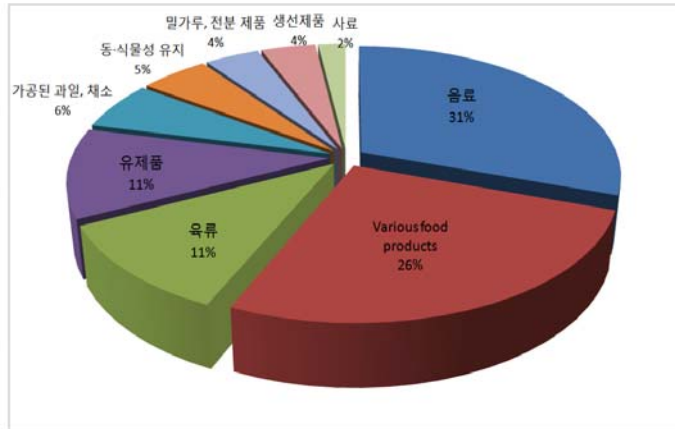
주: 1) 전체 식품 수출대상국에서의 순위임.

2) 전체 식품 수입대상국에서의 순위임.

자료 : EUROSTAT

- 특히 2005년 중국으로의 식음료 수출이 전년대비 24% 증가한 7억6천500만 유로로 집계되고, 수입은 42% 증가한 21억 5천 5백만 유로로 나타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EU의 식품 수출 대상국과 수입 대상국에서 각각 신흥국가중 1위와 12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와 EU간의 식품 교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EU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상위 4개 품목은 음료, 유제품, 육류 가공 제품, various food products이다. 특히 음료와 various food products는 수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분석된다.

그림 II-22. 품목별 수출 비중 (2005)



자료 : Confederation of the food & drink industry of the EU

- 단일 품목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스프리츠와 와인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축 사료와 생선 필렛의 수입이 높게 나타났다.

마. EU 회원국 간의 식품 수출입 현황

- 2005년의 경우 EU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에 대한 식음료 수출액은 1천 460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표 II-43. 식품 단일 품목별 수출입 현황 (2005)

단위 : 100만 유로

수출		수입	
품목	금액	품목	금액
스피리츠	5,642	Oilcake(가축의 사료)	5,642
와인	4,672	생선 펠렛	4,672
식품 조제품	2,702	와인	2,702
치즈	2,022	냉동, 조리된 크러스트	2,022
돼지고기	1,989	팜유	1,989
맥주	1,729	조제 생선	1,729
농축우유	1,689	냉동, 조리된 연체류	1,689
설탕	1,456	기타 과일	1,456
맥아추출물	1,439	과일주스	1,439
비스킷	1,404	설탕	1,404
초콜릿	1,300	냉동생선	1,300
올리브유	1,176	양, 염소 고기	1,176
청량음료	1,124	코코넛기름	1,124

자료 : EUROSTAT

- 이러한 수출액 가운데 2/3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상위 5개 국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네덜란드가 전체의 1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바. 연구개발 및 기타 시장 현황

- EU 국가들은 식품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식음료 생산액 중 0.24%만을 R&D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U 국가 내 R&D 투자 기준 상위 20개 식음료 업체 현황이 <표 II-45>에 나타나 있는데, 영국, 덴마크, 프랑스의 업체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II-44. EU 내 식음료 수출국 (2005)

단위 : 100만 유로

국가명	EU 내 수출	비율
오스트리아	3,897	3%
벨기에	15,186	10%
체코 공화국	1,513	1%
덴마크	7,695	5%
프랑스	20,454	14%
독일	24,091	16%
헝가리	1,613	1%
아일랜드	5,372	4%
이탈리아	10,841	7%
네덜란드	25,996	18%
폴란드	4,213	3%
포르투갈	1,431	1%
스페인	9,592	7%
스웨덴	1,774	1%
영국	8,308	6%
기타	4,393	3%
합계	146,371	100%

자료 : EUROSTAT

표 II-45. R&D 투자 기준 EU의 상위 20개 식음료 업체 (2005)

단위 : 100만 유로, %

업체명	국가명	세계 순위	R&D 투자	R&D/ 실제 판매액
Unilever	영국	28	953	2.4
Danisco	덴마크	118	126	4.5
Danone	프랑스	119	125	0.9
Kerry	아일랜드	120	125	2.8
Cadbury Schweppes	영국	157	84	0.8
Numico	네덜란드	230	45	2.3
Arla Foods	덴마크	267	37	0.6
Vilmorin Clause	프랑스	274	36	7.1
CSM	네덜란드	277	35	1.3
Tate & Lyle	영국	296	31	0.6
Sudzucker	덴마크	300	30	0.6
Barilla GeR Fratelli	이탈리아	300	30	1.2
Nutreco	네덜란드	337	25	0.8
Campina	네덜란드	340	25	0.7
Royal Friesland Foods	네덜란드	377	21	0.5
Wittington Investments	영국	451	16	0.2
Fromageries Bel	프랑스	507	13	0.8
Valio	핀란드	540	12	0.7
Royal Cosun	네덜란드	555	11	0.8
Raisio	핀란드	569	10	2.4

자료 : Confederation of the food & drink industry of the EU

2. 가공식품의 교역 현황

2.1 우리나라의 식품 수출 현황¹⁰

2.1.1. 농산물 가공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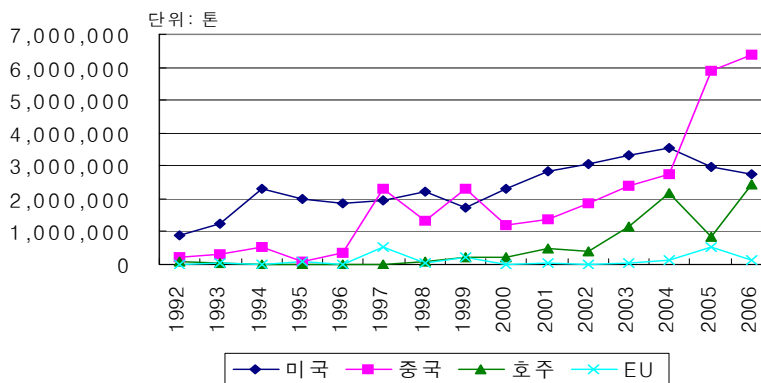
가. 곡실류

○ 곡실류에는 다음의 품목들이 포함된다.

- 전분: 밀전분,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타피오카전분, 기타 전분류, 이눌린
- 과실류: 과실주스류, 과실 카테일류, 과실 샐러드류, 과실 혼합물류, 과즙 음료, 과실 및 견과류 조제품류 등

○ 곡실류의 경우, 1997년과 1999년을 제외하고 수출량의 대부분은 미국 수출 물량이었으나 2005년부터 수출물량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그림 II-23. 국가별 가공식품 수출추이 (곡실류)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¹⁰ 식품 수출입 현황 분석을 위한 품목 분류 기준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AG 코드의 기준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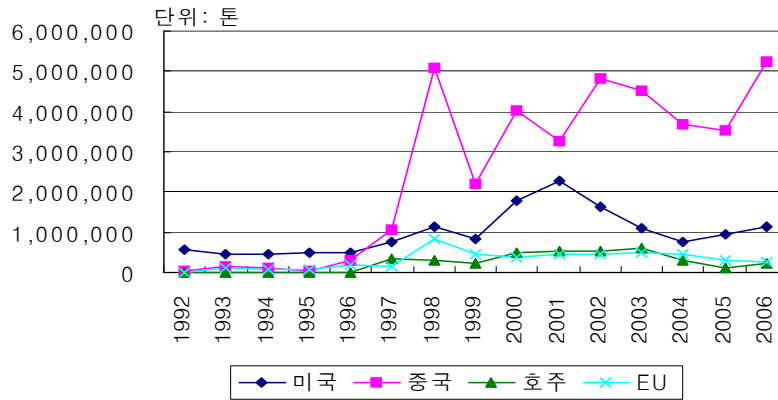
2005년부터 중국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 현재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곡실류 전체 수출량의 5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U 수출량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편이며, 2000년 이후 호주 수출물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 농림부산물

- 농림부산물에는 다음의 품목들이 포함된다.
 - 식물성 유지: 대두유, 낙화생유, 올리브유, 유채유, 겨자유, 아마인유, 피마자유, 동유, 참기름, 호호버유, 들기름, 미강유, 동백유, 기타비휘발성유지, 해바라기씨유, 잇꽃유, 면실유, 야자유, 팜유, 바바수유, 감귤유, 기타식물성유지
 - 유지 가공품: 마아가린, 이미테이션라드, 쇼트닝, 기타유지가공품, 비식용지가공품
 - 식물성 액즙: 락, 아라비아검, 아편, 감초엑기스, 호프액즙, 제충국액즙, 캐슈넛셀액, 알로에액즙, 콜라엑스, 기타식물성액즙, 펙틴, 추출올레진, 로우커스트점질물, 기타식물성점질물
- 가공식품 수출 중 농림부산물의 경우, 1995년 이후 중국 수출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8년도에 508만 여 톤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6년 현재 526만 톤으로 전체 국가 수출물량 중 약 76.1%를 차지하고 있다.
- 미국 수출물량은 2001년도까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04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호주와 EU의 경우 수출물량도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며 추세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4. 국가별 가공식품 수출추이 (농림부산물)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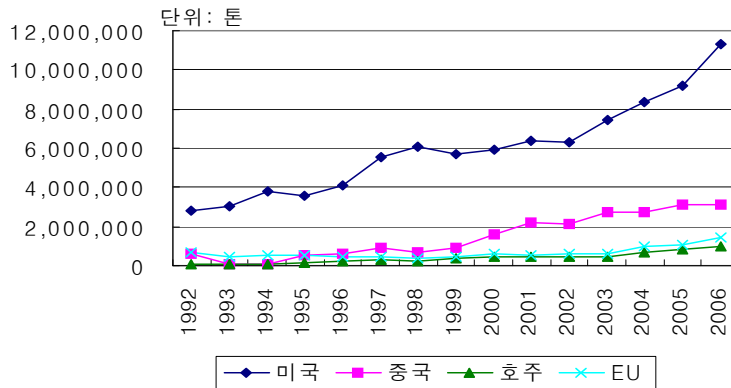
다. 식물성재료

- 식물성재료에는 다음의 품목들이 포함된다.
 - 빵류 제조용: 밀가루우텐, 베이커리반죽
 - 소스류: 간장, 된장, 춘장, 고추장, 기타장, 겨자, 마요네즈,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등
 - 지방성 물질: 공업용지방산, 지방성알코올, 글리세롤, 데그라스, 기타 지방성물질

- 가공식품 수출 중 식물성재료의 경우, 미국 수출량이 대부분으로 199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6년 현재 식물성재료 전체 수출물량 중 약 67.0%를 차지하고 있다.

- 중국, 호주, EU의 경우 식물성재료 수출 물량이 매우 작은 편이나 2000년 이후 중국 수출물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II-25. 국가별 가공식품 수출추이 (식물성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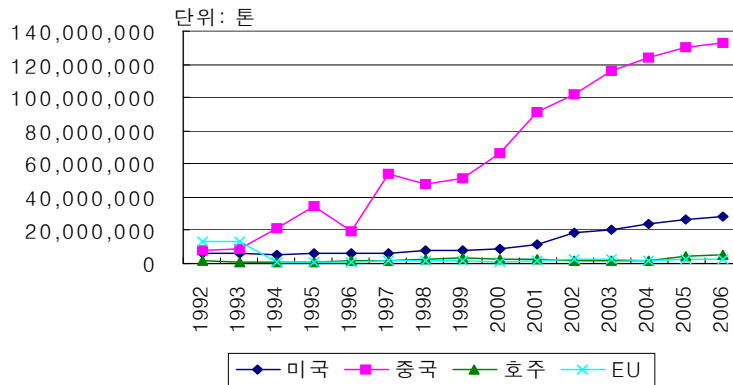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라. 기호식품

○ 기호식품에는 다음의 품목들이 포함된다.

- 커피류: 커피, 커피조제품류
- 코코아류: 코코아두, 코코아웨이스트,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초코렛, 기타코코아조제품
- 차류: 녹차, 홍차류
- 인삼류: 수삼, 백삼, 백삼분, 백삼정, 백삼조제품, 홍삼, 홍삼분, 홍삼정, 홍삼조제품, 인삼부산물, 인삼액즙, 인삼음료
- 주류: 맥주, 포도주, 베르뭇, 사과주, 배주, 기타과실발효주, 청주, 약주, 탁주, 기타곡물발효주, 와인쿨러, 기타발효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보드카, 소주, 고량주, 데깰라, 기타주
- 당류: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자당, 단풍당, 포도당, 과당, 캐러멜당, 맥아당, 기타당, 당밀
- 음료: 음료베이스, 당시럽, 식혜, 물, 기타음료

그림 II-26. 국가별 가공식품 수출추이 (기호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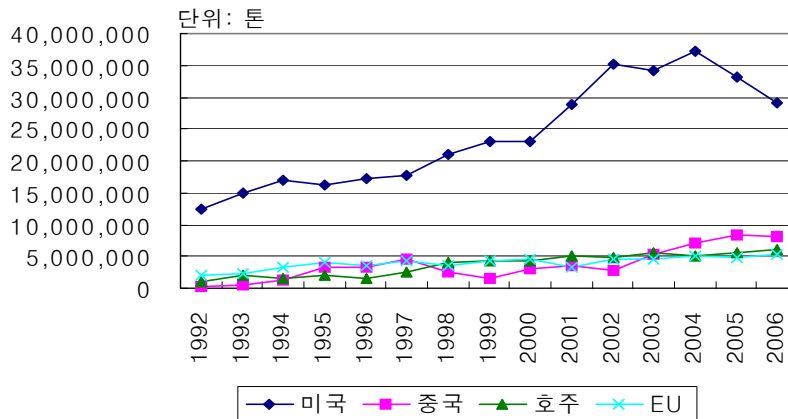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 가공식품 수출 중 기호식품의 경우, 중국 수출량이 대부분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6년 현재 기호식품 전체 수출물량 중 약 78.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출물량이 중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2000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호주, EU의 경우 기호식품 수출 물량은 매우 작은 편이며 추세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조제농산식품

- 조제농산식품에는 다음의 품목들이 포함된다.
 - 과자류: 검, 감초엑스, 캔디, 기타설탕과자, 곡류조제품, 빵, 비스킷, 기타베이커리제품
 - 면류: 스파게티, 마카로니, 국수, 당면, 냉면, 라면, 인스턴트면, 쿠우스쿠우스, 기타 파스타
 - 기타조제농산물: 유아용조제식료품, 맥아엑스, 오토밀, 기타조제식료품, 차 및 마태 조제품, 치커리조제품, 음료조제용 조제품, 수프브로드, 혼합조제식품, 아이스크림, 기타빙과, 두부, 기타단백질농축물, 향미용조제품, 알로에조제품, 식초

그림 II-27. 국가별 가공식품 수출추이 (조제농산식품)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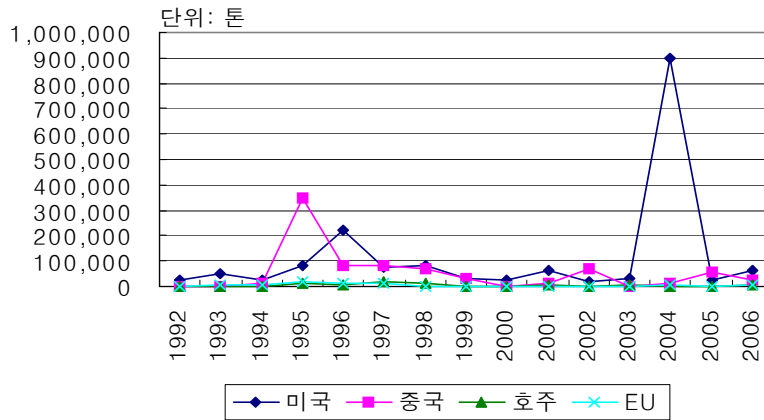
- 가공식품 수출 중 조제농산식품의 경우, 미국 수출량이 대부분으로 1990년대 초반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2006년 현재 조제농산식품 전체 수출물량 중 가장 높은 약 59.9%의 비중을 차지한다.
- 중국, 호주, EU의 경우 기호식품 수출 물량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며 추세에도 큰 변화가 없으나 중국 수출물량이 2002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2. 축산물 가공품

가. 육류

- 육류에는 다음의 품목들이 포함된다.
 - 기타육류: 양장, 간장, 파충류, 소시지, 육즙, 육류수프, 기타육류
- 가공식품 수출 중 육류의 경우, 수출물량의 대부분은 다른 품목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 10만 톤 이하의 규모이다.

그림 II-28. 국가별 가공식품 수출추이 (육류)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 1995년 중국으로 약 35만 톤, 1996년 미국으로 약 22만 톤, 2004년 미국으로 약 89만 톤의 수출 등의 순간적인 수출 증가 사례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 축산부산물

- 축산부산물에는 다음의 품목들이 포함된다.
 - 동물성 유지: 돈지, 가금지, 돼지 및 가금지의 지방, 우지, 면양 및 산양의 지방, 라이드유, 올레오유, 우각유, 기타 동물성 유지분획물 등
 - 기타 축산부산물: 꿀, 로얄젤리, 동물 부산물류, 육류분, 수지박
- 가공식품 수출 중 축산부산물의 경우, 2000년도까지 4개국의 수출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미국의 수출량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상승하다가 2000년 이후 상대적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2006년 현재 전체 축산부산물 수출량의 약 88.7%를 차지한다.
- 중국의 경우 2003년 이후 점차 상승하다가 2005년도 급격히 증가한 후

2006년도에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호주와 EU의 경우는 수출 물량의 큰 변화 없이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축산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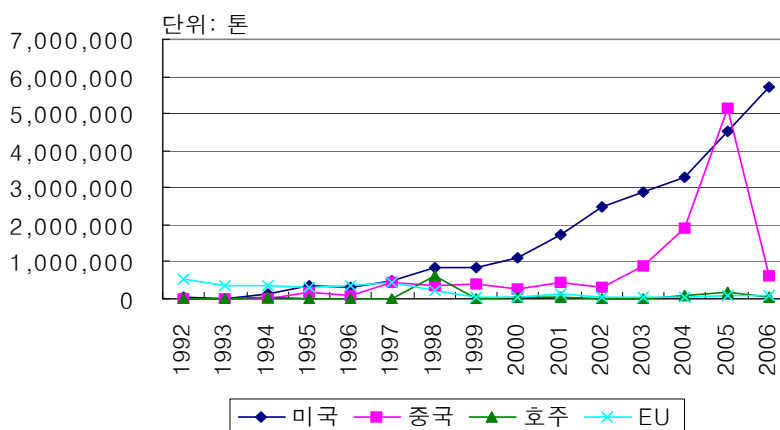
○ 축산조제품에는 다음의 품목들이 포함된다.

- 낙농품: 생우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유당, 버터밀크, 버터, 유장, 치즈, 발효유, 조제분유, 우유조제품
- 단백질류: 카세인, 난백, 젤라틴, 펩톤

○ 축산조제품의 경우, 미국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3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U의 경우 1997년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02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현재 41.2%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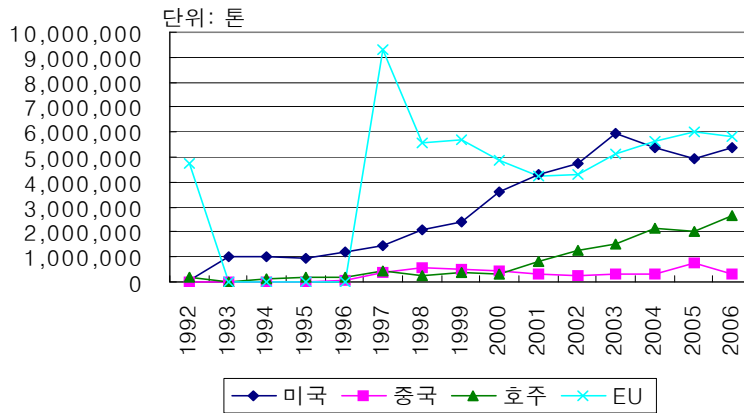
○ 중국의 경우 수출 물량의 큰 변화 없이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I-29. 국가별 가공식품 수출추이 (축산부산물)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그림 II-30. 국가별 가공식품 수출추이 (축산조제품)



2.2 우리나라의 식품 수입 현황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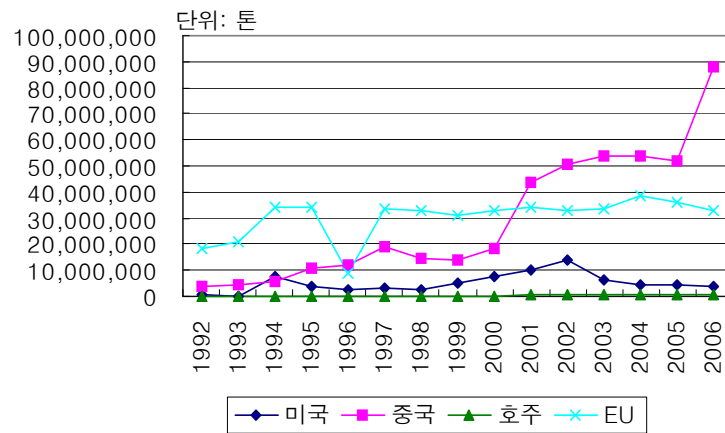
2.2.1. 농산물 가공품

가. 곡실류

- 가공식품 수입 중 곡실류의 경우, 1990년 초반 이후 점차 증가했던 중국 수입물량이 1997년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6년 현재 전체 수입물량 중 약 70.4%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 미국과 호주의 수입물량은 미미한 편이며 EU의 경우 1996년도에 급격히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일정한 물량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¹¹ 식품 수출입 현황 분석을 위한 품목 분류 기준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AG 코드의 기준에 따름.

그림 II-31. 국가별 가공식품 수입추이 (곡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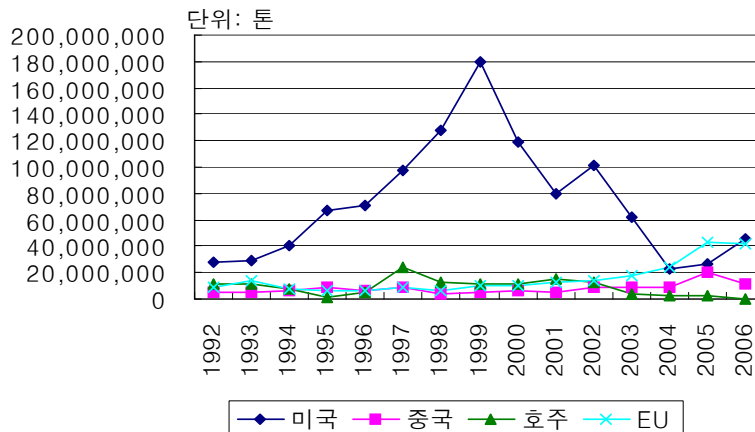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나. 농림부산물

- 가공식품 수입 중 농림부산물의 경우, 1990년 초반부터 1999년 까지 미국 수입물량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0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06년 현재 농림부산물 수입물량의 45.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II-32. 국가별 가공식품 수입추이 (농림부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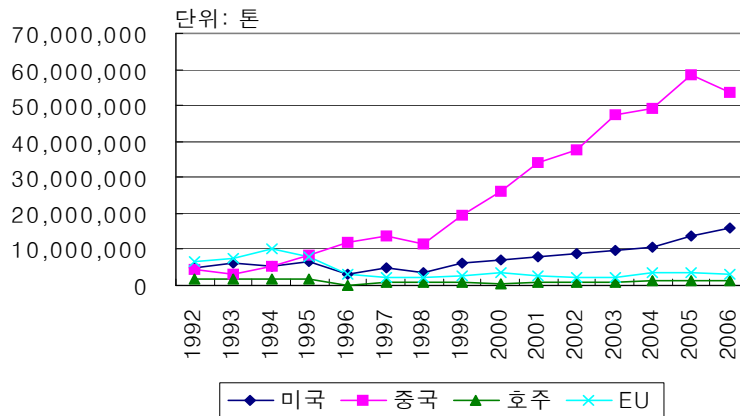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 EU의 경우 2006년 현재 4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과 호주의 경우 연도별로 수입 물량의 증감은 있으나 추세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식물성재료

- 가공식품 수입 중 식물성재료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현재 7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2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반면 호주와 EU의 물량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3. 국가별 가공식품 수입추이 (식물성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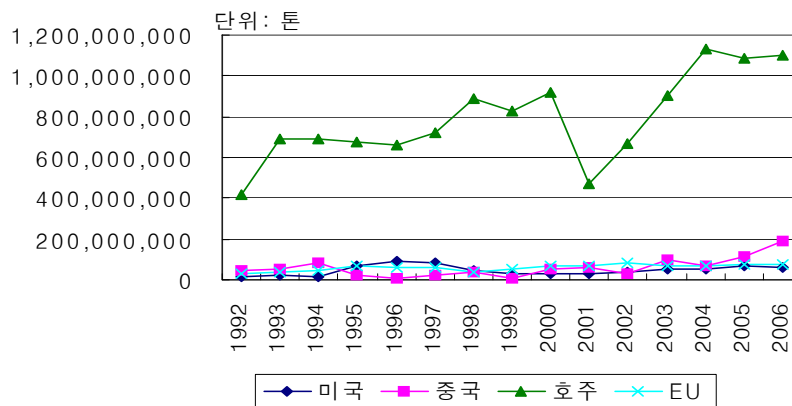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라. 기호식품

- 가공식품 수입 중 기호식품의 경우, 호주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전체의 대부분일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현재 전체의 약 76.9%의 비중을 차지한다.
- 반면에 미국, 중국, EU의 경우 수입물량의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I-34. 국가별 가공식품 수입추이 (기호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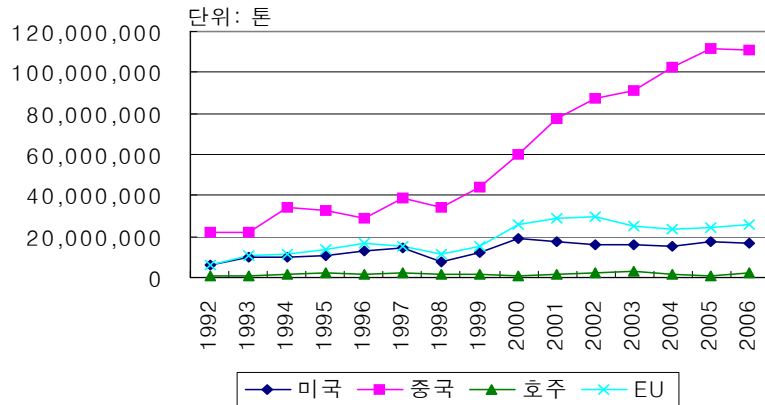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마. 조제농산식품

- 가공식품 수입 중 조제농산식품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6년 현재 전체의 7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그 다음으로 EU, 미국, 호주 순인데, 수입되는 물량에 있어서 큰 증감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5. 국가별 가공식품 수입추이 (조제농산식품)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2.2. 축산물 가공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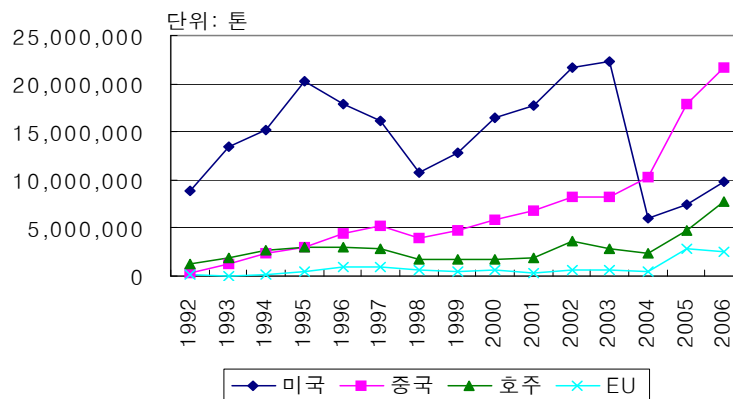
가. 육류

- 가공식품 수입 중 육류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증감의 변화가 심하였으며 2004년도에 급감한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06년 현재 중국 수입물량은 전체의 5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호주, EU 순으로 나타났다.

나. 축산부산물

- 축산부산물에는 다음의 품목들이 포함된다.
 - 동물성 유지: 돈지, 가금지, 돼지 및 가금지의 지방, 우지, 면양 및 산양의 지방, 라이드유, 올레오유, 우각유, 기타 동물성 유지분획물 등

그림 II-36. 국가별 가공식품 수입추이 (육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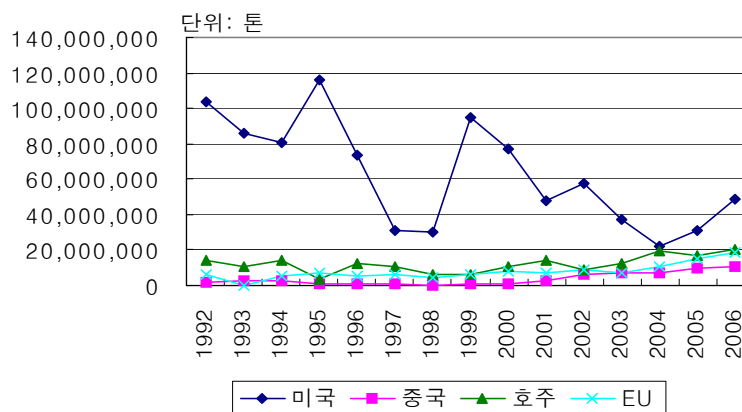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 기타 축산부산물: 꿀, 로얄젤리, 동물 부산물류, 육류분, 수지박

- 가공식품 수입 중 축산부산물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미국 수입물량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나 수입물량에 대한 증감의 변화가 심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경우 1999년 이후 감소하던 추세는 2004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림 II-37. 국가별 가공식품 수입추이 (축산부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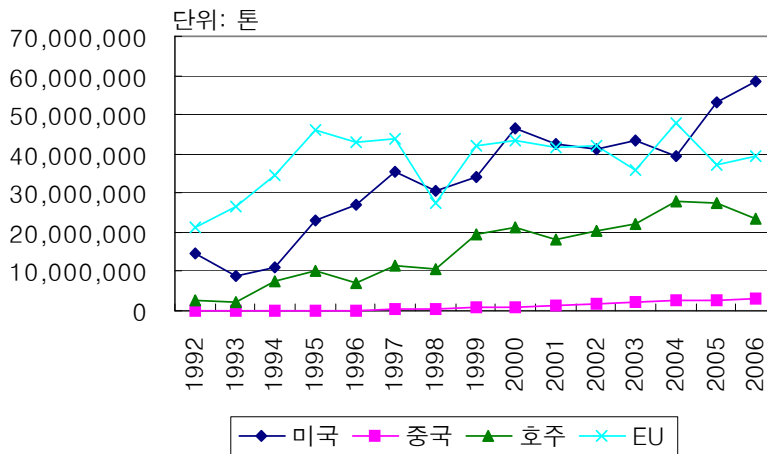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 중국, 호주, EU의 경우는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현재 미국은 전체의 49.3%로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호주, EU,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다. 축산조제품

- 가공식품 수입 중 축산조제품의 경우, 미국의 수입물량은 1990년대 초반에 비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6년 현재 전체의 4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EU도 증감의 폭이 크기는 하지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호주의 경우 1990년대 초반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2005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경향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중국은 큰 변화가 없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38. 국가별 가공식품 수입추이 (축산조제품)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제 3 장

식품부문에 대한 FTA 및 DDA 분석

1. 식품부문에 대한 한·미 FTA의 타결 내용 분석

1.1. 가공식품별 한·미 FTA 타결 내용

- 이번 미국과의 FTA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용으로 활용하는 품목의 경우 기초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도 상당히 장기간의 관세 철폐 기간을 양허 받았다. 대표적인 품목이 사과와 감귤이다.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일정 물량이 사과 주스로 가공되기 때문에 사과 주스가 수입되면 가공용으로 이용되는 사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과 주스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 감귤도 일정량이 감귤 주스로 가공되기 때문에 직접 대체관계가 있는 감귤 주스의 양허기간은 10년, 간접 대체관계가 있는 냉장 오렌지 주스는 5년, 냉동 오렌지 주스는 발효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한·미 FTA 협상 대상이 되었던 품목 중 가공식품을 살펴보면, 유가공품, 과채가공품, 육가공품, 곡물가공품, 식용유지 등 9개 품목군으로 나뉜다.

1.1.1. 유가공품

- 유가공품은 국내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부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머지 품목들도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 탈지·전지분유·연유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 쿼터를 매년 복리로 3%씩 증량된다. 쿼터 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며 매년 분기별로 공매를 통해 쿼터가 배정된다.
- 조제분유는 현행관세를 10년간 균등 감축되며, 관세 감축기간 동안에는 무관세 쿼터를 700톤에서 매년 복리로 3%씩 증량하여 10년차에 무관세로 전환된다. 관세율 할당 권한은 한국유가공협회가 가지며 허가제도로 운영된다.
- 식용 유장은 관세가 10년에 걸쳐 균등 감축되며 TRQ도 9년간 제공된다. 10년차에는 무관세로 전환된다. 사료용 유장은 TRQ 제공 없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 치즈(체다 치즈 포함)는 7천 톤에서 무관세 쿼터로 14년 동안 매년 복리로 3%씩 증량하여 15년차에 무관세로 전환한다. 다만, 체다 치즈는 10년차에 관세할당 대상에서 제외되고, 체다 이외의 치즈는 15년차에 관세가 철폐된다.

표 III-1. 주요 유제품의 타결 내용

품 목		현행 관세	타결 내용					
			현행관세		TRQ 제공		긴급구제조치	
			유지	양허 기간	여부	제공기 간	여부	기간
탈지/전지 분유/연유	탈지/전지분유	176%	○	-	○	매년 3%씩 증량	×	
	연유	89%						
분유	조제분유	36%	×	10년	○	9년	×	
	기타	40%						
유장	식용	49.5%	×	10년	○	9년	×	
	사료용		×	즉시	×		×	
치즈	체다 치즈	36%	×	15년	○	9년	×	
	체다 치즈 이외				○	14년	×	
버터	버터	89%	×	10년	○	9년	×	
밀크와 크림	지방함량 1% 이하	36%	×	15년	×		×	
	지방함량 6% 이하		×	15년	×		×	
	냉동크림		×	10년	×		×	
	기타		×	12년	×		×	

자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재정리.

- 현행 관세가 89%인 버터는 10년간에 걸쳐 균등하게 관세가 감축되고 9년간 TRQ가 제공된다. 지방함량이 6% 이하인 밀크와 크림은 TRQ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관세가 12년간 균등 감축되며, 냉동크림은 10년, 기타는 12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된다.

1.12. 과채가공품

- 과채가공품 가운데 현행 관세가 유지되거나 TRQ 물량을 제공하는 품목은 없다. 감귤주스와 20°BX 이하 사과주스는 국내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장기인 10년, 사과주스 가운데 기타 품목은 7년의 관세 철폐기간을 양허받았다. 복숭아 주스와 딸기 주스도 10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된다.

표 III-2. 주요 유제품의 무관세 쿼터량

단위: 톤

	탈지분유/전지 분유/연유	조제분유	식용유장	버터	치즈류
운영주체	농수산물 유통공사	한국유가공 협회	한국유가공 협회	농수산물 유통공사	한국유가공 협회
1년차	5,000	700	3,000	200	7,000
2년차	5,150	721	3,090	206	7,210
3년차	5,305	743	3,183	212	7,426
4년차	5,464	765	3,278	29	7,649
5년차	5,628	788	3,377	225	7,879
6년차		811	3,478	232	8,115
7년차		836	3,582	239	8,358
8년차		861	3,690	246	8,609
9년차		887	3,800	253	8,867
10년차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9,133
11년차					9,407
12년차					9,690
13년차					9,980
14년차					10,280
15년차					무제한

자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재정리.

- 냉동 오렌지주스는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그 외의 오렌지주스는 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포도주스도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토마토 주스와 크랜베리 주스는 5년간 관세가 균등 철폐된다.

1.1.3. 육가공품

- 육가공 품목 중에도 현행 관세가 유지되거나 TRQ를 제공하는 품목은 없다. 쇠고기 가공품은 15년간 관세가 철폐되고 닭가공품 가운데 하나인 삼계탕은 10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된다. 소시지에 부과되는 관세는 5년간 균등 감축되며, 기타 육류 가공품에 대한 관세는 2014년 1월 1일에 폐지된다.

표 III-3. 주요 과채가공품의 타결 내용

품 목		현행 관세	타결 내용					
			현행관세		TRQ 제공		긴급구제조치	
			유지	양허 기간	여부	제공 기간	여부	기간
오렌지 주스	냉동	54%	×	즉시	×		×	
	냉장, 20°BX 이하	54%	×	5년				
	기타	54%	×	5년				
사과 주스	20°BX 이하	45%	×	10년	×		×	
	기타	45%	×	7년				
포도 주스	30°BX 이하	45%	×	즉시	×		×	
	기타	45%	×	즉시				
감귤 주스	20°BX 이하	54%	×	10년	×		×	
	기타	54%	×	10년				
복숭아 주스		50%	×	10년	×		×	
크랜베리 주스		50%	×	5년	×		×	
딸기 주스		50%	×	10년	×		×	
토마토 주스		30%	×	5년	×		×	

자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재정리.

표 III-4. 주요 육가공품의 타결 내용

품 목		현행 관세	타결 내용					
			현행관세		TRQ 제공		긴급구제조치	
			유지	양허 기간	여부	제공 기간	여부	기간
쇠고기 가공품	건조/훈제	27%	×	15년	×		×	
	기타							
닭고기	삼계탕	30%	×	10년	×		×	
	기타							
육류 가공품	소시지	18%	×	5년	×		×	
	기타	30%	×	14.1.1 폐지	×		×	

자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재정리.

표 III-5. 주요 전분류의 타결 내용

품 목		현행 관세	타결 내용					
			현행관세		TRQ 제공		긴급구제조치	
			유지	양허 기간	여부	제공 기간	여부	기간
전분	밀	50.9%	×	10년	×		×	
	옥수수	226%	×	15년	○	14년	○	15년
	감자	455%	×	15년	×		○	15년
	매니옥	455%	×	15년	×		○	15년
	고구마	241.2%	×	15년	×		○	15년
	기타	800.3%	×	15년	×		○	15년
덱스트린/ 변성전분	덱스트린	8%	×	7년	×		×	
	가용성 전분	8%	×	10년	×		×	
	배소 전분	385.7%	×	10년	×		×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스웰링 전분	385.7%	×	12년	○	11년	○	12년
	에테르화 전분	385.7%	×					
	기타	385.7%	×	10년	×		×	

자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재정리.

1.14. 곡물가공품 (전분)

○ 전분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관세가 미국과의 FTA에서는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폐지된다. 밀 전분은 10년, 다른 전분은 15년에 걸쳐 관세가 균등 감축된다. 이 가운데 옥수수 전분의 경우에는 14년간 TRQ가 제공된다. 옥수수 전분의 TRQ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한다. 또한,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전분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15년에 걸쳐 도입된다.

○ 덱스트린과 변성 전분 가운데 덱스트린은 7년, 가용성 전분과 배소 전분은

10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된다. 프리젤라티나이즈드 혹은 스웰링 전분은 12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되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11년간 무관세 TRQ가 제공되고 12년 동안은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이 가능하다.

- 옥수수 전분과 텍스트린에 적용되는 TRQ는 FTA 발효시를 기준으로 옥수수 전분은 10,000톤, 텍스트린은 14,000톤부터 매년 3%씩 복리로 증가한다. 옥수수는 전분은 15년차, 텍스트린은 12년차에 무관세로 물량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해진다. 두 품목 모두 운영주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이다.

표 III-6 주요 전분류의 무관세 쿼터량

단위: 톤

	옥수수 전분	텍스트린/변성전분
운영주체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1년차	10,000	14,000
2년차	10,300	14,420
3년차	10,609	14,853
4년차	10,927	15,298
5년차	11,255	15,757
6년차	11,593	16,230
7년차	11,941	16,717
8년차	12,299	17,218
9년차	12,668	17,735
10년차	13,048	18,267
11년차	13,439	18,815
12년차	13,842	무제한
13년차	14,258	
14년차	14,685	
15년차	무제한	

자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재정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매년 1월에 선착순으로 물량을 배정해야 하며, 신청 물량이 배정물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배분하고 적은 경우 그 차이의 물량은 1년 내내 이용 가능하다.
- 전분류 가운데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이때 부과할 수 있는 관세 수준도 사전에 정해져 있다.

표 III-7. 주요 전분류의 긴급관세

단위: 톤, %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매니옥 전분		고구마 전분	
	발동 수준	발동 관세	발동 수준	발동 관세	발동 수준	발동 관세	발동 수준	발동 관세
1년차	10,000	221.2	239	445.3	433	445.3	202	236.1
2년차	10,300	216.4	299	435.6	541	435.6	253	230.9
3년차	10,609	211.5	359	425.9	650	425.9	303	225.8
4년차	10,927	206.7	418	416.2	758	416.2	354	220.6
5년차	11,255	201.9	478	406.5	866	406.5	404	215.5
6년차	11,593	181.7	502	365.8	909	365.8	424	193.9
7년차	11,941	174.3	526	351.0	953	351.0	444	186.0
8년차	12,299	166.9	550	336.1	996	336.1	465	178.2
9년차	12,668	159.6	574	321.2	1,039	321.2	485	170.3
10년차	13,048	152.2	598	306.4	1,083	306.4	505	162.4
11년차	13,439	116.6	621	234.8	1,126	234.8	525	124.5
12년차	13,842	106.7	645	214.8	1,169	214.8	545	113.8
13년차	14,258	96.7	669	194.7	1,212	194.7	566	103.2
14년차	14,685	86.8	693	174.7	1,256	174.7	586	92.6
15년차	15,126	76.8	717	154.7	1,299	154.7	606	82.0
16년차	-	0	-	0	-	0	-	0

자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재정리.

- 옥수수 전분의 경우 TRQ 물량과 긴급구제조치 발동수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TRQ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이 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긴급구제조치 발동시 부과할 수 있는 관세 수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함께 낮아진다.

1.1.5. 식용유지

- 대두유 가운데 조유와 기타는 양허기간이 10년이며, 정제유는 5년이다. 올리브유는 버어진과 분획물은 5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되며, 기타는 즉시 철폐된다. 옥수수유의 경우 조유는 5년, 기타는 6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된다. 이들 식용 유지 품목에 대해서는 TRQ도 제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입량이 증가하더라도 수입제한조치는 발동되지 않는다.

표 III-8. 식용유지의 품목별 타결 내용

품 목		현행 관세	타결 내용					
			현행관세		TRQ 제공		긴급구제조치	
			유지	양허 기간	여부	제공 기간	여부	기간
대두유	조유	5.4%	×	10년	×		×	
	정제유	5.4%	×	5년	×		×	
	기타	8%	×	10년	×		×	
올리브유	버어진	8%	×	5년	×		×	
	기타	8%	×	즉시	×		×	
	분획물	8%	×	5년	×		×	
옥수수유	조유	8%	×	5년	×		×	
	기타	8%	×	6년	×		×	
참기름	참기름	630% or 12,060/kg	×	15년	×		○	18년
	분획물	36%	×	12년	×		×	

자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재정리.

- 참기름은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양허기간은 15년으로 결정되었으며, 분획물은 12년으로 결정되었다. 특히, 참기름은 수입이 급증할 긴급구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1.1.6. 빵, 과자, 면류

- 빵류, 과자 및 면류의 경우 TRQ를 제공하거나 긴급구제조치가 발동되는 품목은 없다. 식빵 및 건빵은 10년에 걸쳐 관세가 균등 폐지되며, 나머지 품목들은 대부분 5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된다. 라면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표 III-9. 빵, 과자, 면류의 품목별 타결 내용

품 목		현행 관세	타결 내용					
			현행관세		TRQ 제공		긴급구제조치	
			유지	양허기간	여부	제공기간	여부	기간
빵류	식빵/건빵	8%	×	10년	×		×	
	파이와 케이크	8%	×	5년	×		×	
	비스킷, 쿠키	8%	×	5년	×		×	
면류	스파게티	8%	×	5년	×		×	
	마카로니	8%	×	5년	×		×	
	국수, 냉면	8%	×	5년	×		×	
	당면	45% or 355/kg	×	5년	×		×	
	라면	8%	×	즉시	×		×	

자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재정리.

1.1.7.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 토마토 소스류는 이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관세율도 낮을 뿐 아니라 양허기간이 이번 FTA에서의 양허기간도 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책정되었다.
- 장류 가운데 고추장을 제외한 품목들은 관세가 8%인데, 이들 품목들은 5년 혹은 10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된다. 혼합조미료는 양허기간이 15년으로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표 III-10.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의 품목별 타결 내용

품 목		현행 관세	타결 내용					
			현행관세		TRQ 제공		긴급구제조치	
			유지	양허기간	여부	제공기간	여부	기간
토마토 소스류	토마토 케첩	8%	×	5년	×		×	
	토마토 소스	45%	×	5년	×		×	
장류	간장	8%	×	5년	×		×	
	된장	8%	×	10년	×		×	
	춘장	8%	×	10년	×		×	
	고추장	45%	×	5년	×		×	
혼합 조미료	고추,마늘,양파 20% 이상	45%	×	15년	×		×	
사탕수수당	사탕수수당	3%	×	즉시	×		×	
사탕무당	일반당류	3%	×	5년	×		×	
	향미/착색	50%	×	15년 ¹⁾	×		○	20년
	기타							
포도당	포도당	8%	×	5년	×		×	

주: 1) 관세가 15단계로 나누어 균등 철폐되어 15년차에 30%로 인하되고 16년차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자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재정리.

- 당류 가운데 사탕수수당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며, 포도당은 5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된다. 사탕무당 가운데 향미 혹은 착색제가 첨가된 것과 기타 품목은 관세가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되어 이행 15년차에 30%로 인하되고 16년차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이 두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20년 동안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8. 기타식료품

- 관세가 8%인 커피류는 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백삼가공품 가운데 인삼차는 관세가 10년, 기타 품목은 즉시 철폐된다. 고을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홍삼가공품은 10년에 걸쳐 균등하게 관세가 철폐된다.
- 초코렛 및 초코렛 과자는 5년 이후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백삼이나 홍삼의 경우에는 TRQ도 제공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적용되지만 가공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 III-11. 기타 식료품의 품목별 타결 내용

품 목		현행 관세	타결 내용					
			현행관세		TRQ 제공		긴급구제조치	
			유지	양허 기간	여부	제공 기간	여부	기간
커피류	인스턴트 커피	8%	×	5년	×		×	
백삼 가공품	인삼차	8%	×	10년	×		×	
	기타	8%	×	즉시	×		×	
홍삼 가공품	홍삼차	754.3%	×	10년	×		×	
	기타	754.3%	×	10년	×		×	
코코아류	초코렛류	8%	×	5년	×		×	

자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재정리.

1.1.9. 알콜음료

- 관세가 30%인 맥주는 7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포도주는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코냑은 5년 동안 관세가 균등 감축된 후 6년차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 위스키 가운데 버본 위스키를 제외한 품목은 5년에 걸쳐 관세가 감축되고 버본위스키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브랜디는 11년차에 무관세로 전환된다.

표 III-12. 알콜 음료의 품목별 타결 내용

품 목		현행 관세	타결 내용					
			현행관세		TRQ 제공		긴급구제조치	
			유지	양허 기간	여부	제공 기간	여부	기간
맥주류	맥주	30%	×	7년	×		×	
포도주류	포도주	15%	×	즉시	×		×	
	코냑	15%	×	5년	×		×	
위스키	스카시	20%	×	5년	×		×	
	버본	20%	×	즉시	×		×	
	라이	20%	×	5년	×		×	
	브랜디	20%	×	10년	×		×	

자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재정리.

2. 식품부문에 대한 DDA 논의 쟁점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개별 품목 모두에 대한 양허 조건을 조율하는 협상인 반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다자간 협상 체계는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무역 조항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FTA 협상에서는 특정 품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허되는가가 정해지지만, WTO 협상에서는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상 과정에서 세부 품목에 대한 양허안을 협상하지는 않는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협상은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라고 불리는데, WTO 회원국들이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여졌다. 협상 개시 선언 당시 협상의 최종 마감 시한을 2005년 1월 1일로 설정하였으나 여러 분야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다시 2006년 말로 협상 시한이 연장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고 현재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
- WTO/DDA 농업부문 협상은 2007년 7월에 의장 초안이 제출된 이후 이 초안을 중심으로 많은 협의가 있었고 이러한 협상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는 2008년 초에 수정된 의장 초안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DDA 협상에서는 비농산물 분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 전체가 일괄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 WTO/DDA 협상의 농업분야 3대 주요 이슈는 관세, 보조금, 시장접근 분야

이다. 이 가운데 식품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관세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이다.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UR: Uruguay Round)에서는 개도국의 경우 농산물의 관세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평균 24% 감축하도록 협상이 타결되었었다. 이번 DDA 협상에서도 추가적인 관세 감축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식품 또는 원료 농산물의 관세가 추가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DDA 협상에서도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관세 감축 규모와 기간은 달리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와 같이 개도국에 비해 선진국에게는 짧은 기간에 큰 폭의 관세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UR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던 우리나라로써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DDA 협상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식품부문만 별도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보조금 관련 이슈에서 금지대상 보조, 감축대상 보조, 허용대상 보조 등에 대한 논의들은 진행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식품부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따라서 현재 DD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식품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슈만을 대상으로 관련 논쟁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2.1. 특별품목(SP)

- 식품과 관련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특별품목(SP: Special Products)과 관련된 논쟁이다. 이전의 다자간 협상과 달리 이번 협상에서는 개도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SP이다.

- 어떤 품목이 **SP**로 지정되면 지정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감축이 면제된다. 따라서 **SP**와 관련된 논쟁은 얼마나 많은 품목수를 **SP**로 인정할 것인가, **SP**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등이다.
- **SP**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국가가 최소한의 품목수를 **SP**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고, **SP**를 지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그에 해당되는 품목을 **SP**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 지수 이용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SP**를 선정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이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개도국들은 공식 자료가 미비하여 지표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 방법만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개도국은 해당국이 스스로가 지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현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혼합접근 방법(Hybrid Approach)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 **SP**의 대우 방식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SP**를 몇 단계로 구분하여 일부 구간에 포함된 **SP**는 관세를 면제하고 다음 단계의 **SP**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축하되 감축률을 일반 품목보다 적게 감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인도는 구간별로 평균 10% 이상 관세를 감축하되 최소 5% 이상은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첫 번째 구간에 있는 품목의 관세를 면제를 하고 두 번째 구간에 있는 품목의 관세는 평균 10%를 감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따라서 향후 **SP**와 관련해서는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혼합접근방식에서 얼마나 많은 품목을 해당국 선정에 맡길 것인가, **SP**로 지정된 품목의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식품이나 일부 원료 농산물의 경우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SP**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일부 품목을 **SP**로 지정할 수 있다면 관세 감축 부담을 상당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 개도국 특별우대조치(SSM)

- 개도국 특별우대조치(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는 일반적인 긴급구제조치(Safeguard)의 발동조건이 개도국에게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차원에서 개도국에게는 일반 구제조치보다 완화된 발동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SSM**이다. 따라서 **SSM**은 개도국에게만 인정되는 무역구제조치이다.
- 현재 **SSM**과 관련된 논쟁들은 어떤 품목을 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것인가, 발동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SSM**을 발동할 경우 어떤 구제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가, 구제조치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등이다.
- 어떤 품목을 **SSM** 대상 품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국내 상품과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 국내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 관세 감축 대상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모든 품목이 **SSM**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어떤 경우에 **SSM**을 발동할 것인가 하는 발동기준은 물량 기준과 가격 기준으로 구분된다.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방법만 채택할 수 있지만 현재 **WTO** 협상에서는 두 가지 기준 모두가 논의되고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개도국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홍콩 각료선언문에서 이미 합의가 되었다. 하지만 두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고 기준 자체는 단순해야 한다.
- 물량 기준의 경우, 3~5년간 평균 물량의 110% 이상 수입이 급증할 경우 **SSM**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도국의 모임인 **G-33**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의 105%를 초과할 경우 **SSM**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002~04년 평균 수입물량의 130% 이상이 수입될 경우 발동하자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물량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입물량 계산시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 것인가도 중요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수입물량 가운데는 **TRQ**로 수입되는 물량도 있고 **FTA**에 따라 수입되는 물량도 있다. 현재 일반적인 긴급구제조치(**SSG: Special Safeguard**)에는 **TRQ** 물량이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SSM** 발동기준에도 **TRQ** 물량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FTA**에 의한 특혜물량의 포함 여부는 아직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 가격 기준의 경우에는 12~18개월 평균 가격 이하로 수입가격이 하락할 경우 **SSM**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수입국들은 수입가격이 최근 3개년 월평균 수입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SSM**을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2002~04년 평균 수입가격의 70% 이하로 하락할 경우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SSG**는 수입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하면 발동할 수 있다. 미국은 여기에 추가하여 개도국이 **SSM**을 발동할 경우 시장검증(**Market Test**)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검증은 국내가격 상승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였는지 혹은

수입량이 증가하여 국내 가격이 하락하였는지를 검증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많은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검증 절차가 최종 타결안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이다.

- 구체조치의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발동 후 6개월간 지속하자는 의견과 12개월간 지속하자는 의견으로 나뉜다. 인도네시아 등은 12년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6개월을 주장하고 있다.
- SSM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간을 지정하기보다는 시장 교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SSM을 발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는 SSM 존속기간이 제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부 회원국들은 반덤핑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시장 교란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듯이 SSM도 존속기간의 제한이 두어져서는 안됨을 주장하고 있다.

2.3. 관세할당(TRQ)

- 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도 이번 DDA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요한 원료 농산물의 경우 TRQ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TRQ 관련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 TRQ 관련 논의의 핵심은 TRQ 관리의 투명성과 미소진 TRQ의 처리방법이다. 특히, 기존에 회원국별로 운영되던 TRQ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수출국들의 주장이다. TRQ 관리는 WTO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든 회원국이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TRQ 물량의 배정방식, 계절적 제한 요건 부

과 등 이미 회원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TRQ의 운영방식의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 TRQ 관련 논의 가운데 하나는 회원국이 특정 회원국을 대상으로 TRQ 물량을 배정하는 것이 정당성 여부이다. 이런 경우는 양자간 FTA 체결시 많이 발견되는데, 특정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특혜수입은 WTO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WTO 분쟁 패널의 판례도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특정 회원국을 대상으로 TRQ를 배정하는 방식은 향후에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미소진된 쿼터의 해소 방안 또한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수입국들은 쿼터가 미소진된 것은 해당 농산물에 대한 자국내 수요가 없기 때문이므로 미소진 물량을 수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인 반면, 수출국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미소진 물량이 수입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수입국들은 미소진 물량의 처리보다는 TRQ 관리제도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TRQ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이슈는 새롭게 도입될 TRQ 관련 규정이 기존에 양허된 TRQ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여부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기존의 TRQ는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수출국들은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제 4 장

FTA 체결에 따른 가공식품산업의 영향 분석

1. 한·미 FTA 체결에 의한 가공식품·외식산업의 영향

1.1. 가공식품 산업의 영향

- 한·미 FTA 협상 대상이 되었던 품목 중 가공식품을 살펴보면 <표 IV-1>과 같이 9개 품목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FTA 협상 내용은 품목에 따라 달라 지기에 품목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1.1.1. 유가공품

가. 시장 및 교역 현황

- 2005년 기준으로 유가공품 중 주요 품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유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20,564억 원이며, 전체 수입액은 58억 원 규모로 시장 전체의 0.3% 정도의 규모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4,800만 원 규모로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표 IV-1. 한·미 FTA 협상의 주요 가공식품 품목

품목	해당 품목
유가공품	- 탈지, 전지, 조제 분유, 연유 - 치즈류, 체다치즈, 밀크와 크림 - 버터류, 조제분유(유아용), 유장(식용) - 아이스크림류
과채가공품	- 감귤주스, 사과주스, 오렌지주스, 토마토주스, 크랜베리 주스, 자두주스, 포도주스, 딸기주스, 기타 채소주스
육가공품	- 닭, 돼지고기, 소고기의 가공품
곡물가공품	- 전분류
식용유지	- 옥수수유(기타), 대두유, 참기름유
빵, 과자, 국수	- 스파게티, 국수, 당면, 라면, 빵류, 초코렛류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 설탕, 주정, 혼합조미료 등 - 간장, 고추장, 된장, 춘장, 기타장류 등 - 토마토 캐첩, 소스류
기타식료품	- 인삼(수삼, 백삼의 본삼·미삼·잡삼), 홍삼(본삼, 미삼, 잡삼) - 로얄젤리, 인조꿀 - 인스턴트 커피, 커피 - 잎담배
알콜음료	- 위스키, 포도주, 맥주

자료: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2007.5, 관계부처 합동

- 분유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5,074억 원이며, 전체 수입액은 328억 원 규모로 시장 전체의 6.1% 정도의 규모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18억 원 정도의 규모로 전체의 0.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 비중은 5.6%로 낮은 편이다.

- 치즈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2,374억 원이며, 전체 수입액은 1,470억 원 규모로 시장 전체의 38.2% 정도의 규모이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26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전체의 6.8%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17.8%로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버터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264억 원이며, 전체 수입액은 131억 원 규모로 시장 전체의 33.2% 정도의 규모이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6천만 원 정도의 규모로 전체의 0.17%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표 IV-2. 유가공품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단위: 백만원, %

품 목	국내 생산액 ¹⁾	수입액 ²⁾				전체 공급액 (C)
		전체 수입액 (A)	$(A/C) \times 100$	미국산 수입액 (B)	$(B/A) \times 100$	
시유	2,056,474	5,862	0.3	48	0.8	2,062,336
분유류	507,465	32,806	6.1	1,824	5.6	540,271
치즈류	237,384	147,018	38.2	26,103	17.8	384,402
버터류	26,447	13,115	33.1	67	0.5	39,562
발효유	1,324,757	407	0.0	45	10.9	1,325,164
아이스크림류	645,906	8,240	1.3	1,270	15.4	654,146

주: 1) 국내 생산액은 통계청 자료임.

2) 수입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임.

3) 달러당 1,024원 기준(2005년 기준)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05, 수출입통계

통계청, 2005,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보고서

- 발효유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13,247억 원이며, 전체 수입액은 4억 원 규모로 시장 전체의 0.03% 정도로 국산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규모는 4,450만 원 정도의 규모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10.9%로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 아이스크림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6,459억 원이며, 전체 수입액은 82억 원 규모로 시장 전체의 1.25% 정도의 규모이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12억 원 정도의 규모로 전체의 0.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15.4%로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 한·미 FTA 협상 결과

- 탈지·전지분유·연유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며 5천톤 내에서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며 매년 복리 3%씩 증량한다. 혼합·조제분유는 10년, 유당은 5년 내 철폐된다.
- 치즈는 7천톤 내에서 무관세 쿼타로 14년 동안 매년 복리 3%씩 증량하며 체다치즈는 10년, 체다 이외의 치즈는 15년 내 철폐된다. 버터는 10년, 밀크와 크림은 10~15년내에 철폐된다.

다. 파급 효과

- 유가공품의 경우 수입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치즈 (38.3%) 와 버터 (33.2%)를 제외하고는 낮은 편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국산 유가공품이 전체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치즈가 17.8%로 가장 높고, 아이스크림과 발효유가 각각 15.4%와 10.9%로 나타났다. 치즈의 경우 한동안 미국의 국내 수입이 많았다가 호주나 뉴질랜드산 치즈에 밀려

서 수입 물량이 줄어든 상태인데, 미국 측에서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아이스크림도 국내 시장 진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3. 유가공품의 품목별 협상 결과

품 목	협상 결과
분유, 연유, 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지분유·전지분유(176%/TRQ 20~40%)·연유(89/ TRQ 40%) : 현행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세쿼타 제공 5천톤: 매년 복리3% 증량 ○ 혼합분유(36%) : 10년 철폐 ○ 조제분유(36~40%) : 10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세쿼타 9년 제공 : 700톤, 매년 복리3% 증량 ○ 유당(49.5/TRQ 20%) : 5년 철폐
치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다치즈(36%) : 10년 철폐 ○ 체다 이외의 치즈(36%) : 15년 철폐 ○ 치즈 무관세쿼타 14년제공 : 7천톤, 매년 복리3% 증량
밀크와 크림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5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함량 6% 이하 : 15년 철폐 -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 12년 철폐 - 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 : 10년 철폐
버터 (8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내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세쿼타 9년제공 : 200톤, 매년 복리3% 증량
아이스크림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 내 철폐
유장 (49.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 20%부터 시작해 10년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세쿼타 9년제공 : 3천 톤, 매년 복리3% 증량 ○ 사료용 : 즉시 철폐

주: ()안은 현행관세

자료: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관계 부처 합동

- 한·미 FTA 체결이후의 국내 유가공품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면, 미국산 치즈의 국내 수입 증대로 인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예측되고 이는 국내 치즈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버터의 경우는 미국산 버터의 비중이 낮아서 당장 국내 시장 변화의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나, 잠재적으로 국내 버터업계의 상당한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아이스크림과 발효유의 경우는 미국산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수입시장 구조의 재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이스크림과 발효유의 수입 금액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당장 큰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¹²

- 한편 유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분유)의 경우 수입산이 전체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정도인데, 이중 미국산은 전체 수입액의 3%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¹³ 한·미 FTA 체결이후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미국산 원유(분유)의 국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소비하는 국내 관련 유가공업체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1.2. 과채가공품 (주스)

가. 시장 및 교역 현황

- 2005년 기준으로 과채 가공품 (주스류)의 국내 생산액은 약 8,706억 원 규모이며, 전체 수입액은 약 1,285억 원 규모로 시장 전체의 12.9% 정도이다. 이는 주스류의 경우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원료 형태로 원료 농산물이 수입되어 국내에서 가공 생산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2 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장의 모형을 통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진행될 것임.

13 관련 업계 추정치.

표 IV-4. 과채가공품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단위: 백만원, %

품 목	국내 생산액 ¹⁾	수입액 ²⁾			전체 공급액 (C)	
		전체 수입액 (A)	$(A/C) \times 100$	미국산 수입액 (B)		$(B/A) \times 100$
주스류	870,583	128,469	12.9	30,898	24.1	999,052

주: 1) 국내 생산액은 식약청 자료임.

2) 수입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임.

3) 주스류는 주스류와 과실혼합물 중 과실주스류, 단일과실조제품 중 과즙음료 등을 합한 금액임.

4) 달러당 1,024원 기준(2005년 기준)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05

식품의약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05

-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약 309억 원 규모로 전체 공급액의 3.1%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24.1%로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 한·미 FTA 협상 결과

- 과채가공품 중 가장 대표적인 냉동 주스류를 살펴보면 냉동 오렌지 주스와 농축 포도주스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냉장 오렌지주스, 토마토주스 등은 5년 내, 농축 사과주스는 7년 내에 철폐된다.

다. 파급 효과

- 과채가공품(주스)의 경우 수입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9%인데, 이중 미국산이 전체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1%로 높은 편이다.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미국산 주스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수입품 시장 구조의 재편이 예상된다.

표 IV-5. 과채가공품의 품목별 협상 결과

품 목	협상 결과
주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 오렌지주스(54%) 즉시 철폐 ○ 농축 포도주스(45%) 즉시 철폐 ○ 농축 사과주스 7년내 철폐 ○ 냉장 오렌지주스(50%), 토마토주스(30%), 레베리주스(50%), 자두주스(50%), 채소 혼합주스(30%) 등은 5년 내 철폐

주:()안은 현행관세

자료: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관계 부처 합동

- 한·미 FTA 체결이후의 국내 주스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면, 완제품보다는 농축액 등의 원료로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FTA 체결이후 국내 주스산업에는 완제품 수입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보다는 원료 수입 가격 인하로 인한 생산비용절감이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이 국내 주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 주스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축액의 경우, 감귤과 사과를 제외한 과일 주스는 원료 농축액의 대부분이 이미 수입산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한·미 FTA 체결이 국내 농축액 제조 산업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귤 농축액의 경우 미국보다는 이스라엘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기에 FTA 체결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는 오렌지 주스 및 농축액의 수입이 FTA 체결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렌지 주스와 감귤주스의 대체정도에 따라 국내 감귤 주스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과 농축액의 경우 수입산 사과 농축액에서 차지하는 미국산 비중이 10%수준¹⁴으로 미미하여 국내 사과 농축액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4 업계 추정치.

1.1.3. 육가공품

가. 시장 및 교역 현황

- 육가공품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26,556억 원 규모이며, 전체 수입액은 8,197억 원 정도로 시장 전체의 23.6% 정도의 규모이다.
-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2,069억 원 규모로 전체의 5.95%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25.2%로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 한·미 FTA 협상 결과

- 육가공품 중 대표적인 품목을 살펴보면 쇠고기 가공품은 15년 내 철폐되며, 소시지류(18%)는 5년 내, 닭고기 가공품은 10년 내 철폐된다.

표 IV-6. 육가공품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단위: 백만원, %

품 목	국내 생산액 ¹⁾	수입액 ²⁾				전체 공급액 (C)
		전체 수입액 (A)	(A/C)× 100	미국산 수입액 (B)	(B/A)× 100	
육가공품	2,655,670	819,696	23.6	206,919	25.2	3,475,366

주: 1) 국내 생산액은 통계청 자료임.

2) 수입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임.

3) 달러당 1,024원 기준(2005년 기준)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05

식품의약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05

표 IV-7. 육가공품의 품목별 협상 결과

품 목	협상 결과
쇠고기	○ 쇠고기 가공품(72%) : 15년 철폐
돼지고기	○ 돼지고기 햄 가공품(27~30%) : 2014.1.1 철폐 (7년 철폐와 유사) ○ 소시지(18%) : 5년 철폐
닭고기	○ 닭고기 가공품(30%) : 10년 철폐

주: ()안은 현행관세

자료: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관계 부처 합동

다. 파급 효과

- 육가공품의 경우 수입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6%로 적지 않은 수준이고, 미국산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2%로 상당한 수준이다. 햄의 경우 미국산이 덴마크 등의 유럽산과 경쟁 관계에 있는데,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미국산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 체결이후의 국내 육가공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면, 미국산 육가공품의 국내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재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국산 햄은 유럽산 햄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국산 햄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 육가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돈육 등의 경우 국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돈육가공품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전지나 후지 등이 신선육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위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산 원료용 돈육의 현행관세가 철폐된다고 해도 국내 육가공업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1.4. 곡물가공품 (전분)

가. 시장 및 교역 현황

- 전분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1,283억 원 규모이며, 전체 수입액은 435억 원 정도로 시장 전체에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5.3% 정도이다.
-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1.1억 원 규모로 전체의 0.0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0.3%로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 한·미 FTA 협상 결과

- 옥수수 전분의 경우 현행관세는 226%이며, 세이프가드 14년과 10,000톤 내에서 무관세쿼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감자 전분의 경우 현행관세는 455%이며, 무관세 쿼터로 14년 동안 0.5톤씩 매년 증량한다.

표 IV-8. 곡물가공품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단위: 백만원, %

품 목	국내 생산액 ¹⁾	수입액 ²⁾				전체 공급액 (C)
		전체 수입액 (A)	$(A/C) \times 100$	미국산 수입액 (B)	$(B/A) \times 100$	
전분	128,307	43,531	25.3	110	0.3	171,839

주: 1)국내 생산액은 식약청 자료임.

2)수입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임.

3)달러당 1,024원 기준(2005년 기준)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05

식품의약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05

표 IV-9. 곡물가공품의 품목별 협상 결과

품 목	협상 결과
전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또는 12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수수전분(226%) 14년제공 : 10,000톤, 매년 복리3% 증량 - 변성전분(385.7%) 11년제공 : 14,000톤, 매년 복리3% 증량 - 감자전분(455%), 매니옥전분(455%), 고구마전분(242.1%), 기타전분(800.3%) : 무관세쿼타 14년 제공 각 품목 0.5톤씩 (매년 각 품목 0.5톤 증량)

주: ()안은 현행관세

자료: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관계 부처 합동

다. 파급 효과

- 곡물가공품(전분)의 경우 수입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3%로 적지 않은 수준인데, 이중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수입산 중에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 체결이후 미국산 전분의 국내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쿼터가 증가하여 국내 전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수입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전분업체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전분의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감자 등은 현재에도 대부분 수입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수입되는 원료 곡물의 수입 장벽이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낮아지게 되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0. 식용유지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단위: 백만원, %

품 목	국내 생산액 ¹⁾	수입액 ²⁾				전체 공급액 (C)
		전체 수입액 (A)	(A/C)× 100	미국산 수입액 (B)	(B/A)× 100	
식용유지류	914,342	551,806	37.6	36,789	6.7	1,466,148

주: 1) 국내 생산액은 식약청 자료임.

2) 수입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임.

3) 식용유지류는 식물성유지와 유지가공품을 합한 것임.

4) 달러당 1,024원 기준(2005년 기준)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05

식품의약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05

1.1.5. 식용유지

가. 시장 및 교역 현황

- 식용유지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9,143억 원 규모이며, 전체 수입액은 5,518억 원 정도로 시장 전체 규모의 37.6% 정도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물량의 규모가 더 크다.
-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368억 원 규모로 전체의 6.7%로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 한·미 FTA 협상 결과

- 대두유 중 조유는 10년 내, 대두유 정제유는 5년 내 철폐되며 옥수수유 조유는 5년, 기타 옥수수유는 6년 내 철폐된다. 참기름은 15년 내 철폐되는데, 세이프가드가 18년 적용되는 품목이다.

표 IV-11. 식용유지의 품목별 협상 결과

품 목	협상 결과
대두유(5.4%), 옥수수유(8%)	○ 대두유 : 조유는 10년, 정제유는 5년 철폐 ○ 옥수수유 : 조유는 5년, 기타는 6년 철폐
참기름	○ 15년 철폐, 셰이프가드 18년 적용 - 참기름(630%/WTO TRQ 40%)

주: ()안은 현행관세

자료: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관계 부처 합동

다. 파급 효과

- 식용유지의 경우 수입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6%로 상당한 수준인데, 미국산의 비중은 6.7%로 낮은 편이다.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수입산 중에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 체결이후의 국내 식용유지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면, 전분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식용유지의 국내 수입가격이 인하되어 국내 식용유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수입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식용유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대두 등은 현재에도 대부분 수입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수입되는 원료 곡물의 수입 장벽이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낮아지게 되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1.6. 빵 · 과자 · 국수류

가. 시장 및 교역 현황

- 빵 및 과자류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약 38,591억 원 규모이며, 전체 수입액은 1,554억 원 정도인데 시장 전체의 3.9% 수준으로 수입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물량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347억 원 규모로 전체의 0.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빵 및 과자류의 경우도 대부분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생산하는 물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22.3%로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면류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약 19,099억 원 규모이며, 전체 수입액은 568억 정도로 시장 전체의 2.9%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표 IV-12. 빵 · 과자 · 국수류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단위: 백만원, %

품 목	국내 생산액 ¹⁾	수입액 ²⁾				전체 공급액 (C)
		전체 수입액 (A)	(A/C)×100	미국산 수입액 (B)	(B/A)×100	
빵 및 과자류	3,859,084	155,404	3.9	34,696	22.3	4,014,488
면류	1,909,999	56,842	2.9	633	1.1	1,966,842

주: 1) 국내 생산액은 식약청 자료임.

2) 수입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임.

3) 달러당 1,024원 기준(2005년 기준)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05

식품의약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05

수입되는 규모는 6.3억 원 규모로 전체의 0.0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면류도 빵 및 과자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원료 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1.1%로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 한·미 FTA 협상 결과

- 빵류는 10년 내 철폐되며 그 중 파이, 케이크류는 5년 내 철폐된다. 스파게티, 국수, 당면, 라면 등의 면류는 5년 내 철폐된다.

다. 파급 효과

- 빵·과자·국수류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내외에 위치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빵 및 과자류는 22.3%로 다소 높지만 면류는 낮은 수준이다.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미국산 빵과 과자류의 국내 수입품 시장의 점유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한·미 FTA 체결이후의 국내 빵·과자·국수류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면, 현재 국내 제품의 경우 많은 경우 해외 업체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제휴하여

표 IV-13. 빵·과자·국수류의 품목별 협상 결과

품 목	협상 결과
빵 및 과자류	○ 파이, 케이크류(8%) : 5년내 철폐 ○ 빵류(식빵 등) : 10년 철폐
면류	○ 스파게티(8%), 국수(8%), 당면(45%), 라면(8%) 등: 5년 철폐

주: ()안은 현행관세
자료: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관계 부처 합동

생산하고 있어 기술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고, 원료 또한 대부분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기에 한·미 FTA 체결이 국내 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빵·과자·국수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밀가루의 경우 미국산 밀가루나 미국산 밀을 사용하여 생산된 국산 밀가루의 가격이 한·미 FTA 체결이후 하락하게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1.7.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가. 시장 및 교역 현황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을 살펴보면 당류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약 9,262억 원 규모이며, 전체 수입액은 5,192억 정도로 시장 전체의 35.9% 정도이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77.9억 원 규모로 전체의 0.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1.5%로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 장류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약 6,687억 원 규모이며, 전체 수입액은 73.6억 원 정도로 시장 전체의 1.1% 수준이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5.1억 원 규모로 전체의 0.0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7.0%로 나타났다.
- 기타 소스류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약 15,180억 원 규모이며, 전체 수입액은 835억 원 정도로 시장 전체의 5.2% 정도이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108억 원 규모로 전체의 0.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12.9%로 나타났다.

표 IV-1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단위: 백만원, %

품 목	국내 생산액 ¹⁾	수입액 ²⁾				전체 공급액 (C)
		전체 수입액 (A)	(A/C)× 100	미국산 수입액 (B)	(B/A)× 100	
당류	926,227	519,224	35.9	7,789	1.5	1,445,451
장류	668,760	7,357	1.1	517	7.0	668,767
기타 소스류	1,518,038	83,508	5.2	10,805	12.9	1,601,546

주: 1) 국내 생산액은 식약청 자료임.

2) 수입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임.

3) 장류는 간장, 된장, 춘장, 고추장, 기타 장류, 메주 등이며 기타 소스류는 겨자, 마요네즈, 카레, 혼합조미료, 기타 조미료 등임

4) 달러당 1,024원 기준(2005년 기준)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05

식품의약품,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05

나. 한·미 FTA 협상 결과

- 설탕의 경우 현행 50%인 관세를 15년까지 30%수준으로 감축하고 16년도에는 철폐할 예정이다. 된장, 춘장은 10년 내 철폐되며 간장, 고추장, 기타 장류는 5년 내 철폐할 것이다. 토마토케첩, 소스류의 경우 5년 내 철폐될 것이다.

다. 파급 효과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의 경우 당류를 제외하고는 국내 시장에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분석된다. 당류의 경우 수입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9%인데, 이중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미국산의 점유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15.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의 품목별 협상 결과

품 목	협상 결과
설탕 (50%)	○ 15년차까지 30%로 감축하고, 16년차에 철폐 - 셰이프가드 20년간 적용
장류	○ 된장, 춘장(8%) : 10년 철폐 ○ 간장(8%), 고추장(45%), 기타장류(쌈장, 청국장) : 5년 철폐
혼합조미료 (45%)	○ 성분 중 고추·마늘·양파의 비중이 각각 20% 이상 또는 이를 합쳐서 40% 이상일 때 : 15년 철폐 ○ 그 이외 5년 철폐
토마토 소스류	○ 토마토케첩, 소스 5년 철폐 ○ 토마토 페이스트 즉시 철폐

주: ()안은 현행관세

자료: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관계 부처 합동

- 한·미 FTA 체결이후의 국내 제당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면, 원료를 전량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미국산 완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류는 미국 현지공장이 있는 일본산 간장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기타 소스류 또한 미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의 원료들은 대부분 수입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한·미 FTA 체결을 통한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정 부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1.1.8. 기타식료품

가. 시장 및 교역 현황

- 기타식료품을 살펴보면 커피류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약 7,812억 원 규모이

며, 전체 수입액은 1,709억 원 정도로 시장 전체의 18.0% 정도이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130억 원 규모로 전체의 1.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7.6%로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 코코아류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약 152억 원 규모이며, 전체 수입액은 1,528억 정도로 시장 전체의 90.9%정도이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390억 원 규모로 전체의 23.3%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25.7%로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인삼류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약 2,309억 원 규모이며, 전체 수입액은 52.7억 정도로 시장 전체의 2.2%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8.4억 원 규모로 전체의 0.4%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15.9%로 나타났다.
- 담배류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약 27,547억 원 규모이며, 전체 수입액은 1,589억 원 정도로 시장 전체의 5.5%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194억 원 규모로 전체의 0.6%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12.2%로 나타났다.
- 꿀 및 로얄젤리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약 65.1억 원 규모이며, 전체 수입액은 약 2,066억으로 시장 전체의 76.0%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1,037억 원 규모로 전체의 38.2%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50.2%로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6. 기타식료품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단위: 백만원, %

품 목	국내 생산액 ¹⁾	수입액 ²⁾				전체 공급액 (C)
		전체 수입액 (A)	(A/C)× 100	미국산 수입액 (B)	(B/A)× 100	
커피류	781,259	170,975	18.0	13,009	7.6	952,235
코코아류	15,256	151,846	90.9	39,089	25.7	167,102
인삼류 ³⁾	230,969	5,269	2.2	839	15.9	236,238
담배류	2,754,752	158,906	5.5	19,419	12.2	2,913,658
꿀, 로얄젤리 제품	6,514 ⁴⁾	206,589	76.0	103,679	50.2	271,730

주: 1)커피류, 코코아류, 인삼류, 꿀, 로얄젤리 제품의 국내생산액은 식약청 자료이며, 담배류는 통계청 자료임.

2)수입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임.

3)인삼류는 수삼, 홍삼, 백삼을 제외한 것임.

4)로얄젤리의 경우 국내생산액은 로얄젤리 가공품만을 포함한 것임.

5)달리당 1,024원 기준(2005년 기준)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05

식품의약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05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보고서, 2005

나. 한·미 FTA 협상 결과

- 커피류는 발효 즉시 철폐되며 코코아류는 10년 내 철폐된다. 천연꿀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면서 킬로그램(200톤) 내에서 무관세로 수입되며 인조꿀, 로열젤리, 벌꿀 조제품은 10년 내 철폐할 예정이다.

다. 파급 효과

- 기타식료품의 경우 커피와 꿀·로얄젤리류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액이 전체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코코아류의 경우 수입금액 중 미

표 IV-17. 기타식료품의 품목별 협상 결과

품 목	협상 결과
커피류	○ 커피(8%) 즉시 철폐
꿀	○ 천연꿀(243%/TRQ 20%) : 현행관세, 무관세 쿼타 200톤, 매년 3% 증량 ○ 인조꿀(243%/TRQ 20%), 로열 젤리(8%), 벌꿀조제품(8%) : 10년 철폐
인삼류 (222.8~754.3%)	○ 홍삼가공품 9개 품목 : 15년 철폐 및 세이프가드 18년간 적용 - 홍삼분, 홍삼엑스, 홍삼타블렛 등 ○ 백삼분 2품목 : 15년 철폐 ○ 그 외 인삼품목 : 10년 철폐 ○ 의약품 3품목 : 즉시철폐
코코아류	○ 초코렛(8%) 10년 내 철폐

주: ()안은 현행관세

자료: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관계 부처 합동

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5.7%이고, 꿀·로얄젤리류는 50.2%로 높게 나타나는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미국산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커피와 담배류 또한 한·미 FTA 체결로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인삼류는 화기삼이 국내 인삼에 비해 품질 경쟁력이 월등히 떨어지기에 한·미 FTA 체결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한·미 FTA 체결이후의 국내 기타식료품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면, 인삼류를 제외하고는 미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 증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커피의 원료로 수입되는 원두 등의 수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국내 커피 제조업체에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보다는 브라질 또는 콜롬비아 등지에서 원료 수입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에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1.1.9. 알콜음료

가. 시장 및 교역 현황

- 알콜 음료 중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맥주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약 14,716억 원 규모이며, 전체 수입액은 169억 원 정도로 시장 전체의 1.1% 정도로 매우 낮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45억 원 규모로 전체의 0.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의 비중은 26.5%로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포도주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약 124억 원 규모이며, 전체 수입액은 693억 정도로 시장 전체의 84.8%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97억 원 규모로 전체의 11.9%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14.0%로 나타났다.
- 위스키류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약 2,3754억 원 규모이며, 전체 수입액은 2,344억 정도로 시장 전체의 49.7% 정도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24억 원 규모로 전체의 0.5% 수준이다. 한편 전체 수입 금액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비중은 1.1%로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 한·미 FTA 협상 결과

- 알콜 음료의 대표 품목인 맥주, 포도주, 위스키 중 맥주와 위스키는 각각 7년과 5년 내 철폐할 예정이며 특히 포도주의 경우 FTA 발효 즉시 철폐되어 국산 포도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18. 알콜음료의 국내 시장 및 수입 현황 (2005)

단위: 백만원, %

품 목	국내 생산액 ¹⁾	수입액 ²⁾			전체 공급액 (C)	
		전체 수입액 (A)	(A/C)× 100	미국산 수입액 (B)		
맥주	1,471,607	16,928	1.1	4,494	26.5	1,488,535
포도주	12,394	69,279	84.8	9,698	14.0	81,673
위스키류	237,535	234,408	49.7	2,462	1.1	471,943

주: 1) 국내생산액은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보고서」 자료임.

2) 수입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임.

3) 달러당 1,024원 기준(2005년 기준)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05

식품의약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05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보고서, 2005

IV-19. 알콜음료의 품목별 협상 결과

품 목	협상 결과
맥주	○ 맥주(30%) 7년내 철폐
포도주	○ 포도주(30%) 즉시 철폐
위스키	○ 위스키, 브랜드 5년내 철폐

주: ()안은 현행관세

자료: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관계 부처 합동

다. 파급 효과

- 알콜음료의 경우 포도주와 위스키의 수입금액이 전체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4.8%와 49.7%로 높게 나타났다. 수입금액 중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맥주와 포도주가 각각 26.5%와 14%이다. 한·미 FTA 체결이후 맥주와 포도주의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위스키의 점유율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한·미 FTA 체결이후의 국내 알콜음료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면, 맥주와 포도주의 국내 시장 잠식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최근 산업화되기 시작한 국산 포도주의 경우, 중저가 미국산 포도주의 국내 대량 유입을 통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 한편 맥주와 위스키는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수입 장벽 완화에 따른 일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포도주의 경우 대부분 국산 포도를 원료로 사용하기에 한·미 FTA 체결을 통한 포도주 제조업체의 긍정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2. 외식산업의 영향

1.2.1. 외식 시장 개방 수준

- WTO 출범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분야에 대한 자발적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 DDA 서비스 협상에서 2차 양허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표 IV-20. 서비스 개방수준 비교

	mode 3	mode 4
한국	0.442	0.295
미국	0.578	0.357
EU	0.513	0.364
일본	0.555	0.338

주: mode 3, 4는 공급형태(mode) 중 서비스 전분야에 해당됨. 전면개방=1, 부분개방=0.5, 미개방=0의 값을 적용하여 공급형태별 개방수준을 추계

자료: 송영관. 2006. “한미FTA의 영향 및 기대효과: 서비스산업” p5에서 재정리

- 서비스시장 개방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UR서비스 양허표 중에서 음식업 서비스가 관련되는 서비스 전 분야 개방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U에 비해 개방수준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 향후 한미 FTA 등으로 mode 3와 mode 4에 대한 개방이 확대될 경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서비스업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2. FTA의 서비스 시장 영향 및 기대효과

-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서비스사업의 육성을 통한 생산성 증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비스업 성장률은 2003년과 2006년 각각 1.6%, 1.9%를 기록할 정도로 저조하였으며, 이것이 경제성장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FTA로 인한 서비스 장벽 완화로 인한 기업투자의 확대는 국내 서비스산업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 제도 기반 마련, 업계의 경쟁 유발, 정보기술의 발전, 국제화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⁵
 -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효과: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생산의 특화와 교환의 이익
 - 규모의 경제효과: 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 진입 장벽 제한의 철폐, 기업의 생산규모 증가에 따라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
 - 경쟁촉진 효과
 - ① 경쟁력 제고효과: 개방은 생산자들에게 시장의 확대, 기회의 증대, 경

¹⁵ 이준규, “한·미 FTA가 국내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강화 방안”(2007년 6월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쟁의 심화를 제공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 하려는 노력을 제고

- ② 품질 향상 효과: 해당제품 수출국의 기술 혁신 노력과 고부가가치제품 으로 수출품목을 이행하려는 노력
- ③ 기술개발경쟁효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기술혁신이나 노력을 강화, 기술집약적인 신기술개발경쟁을 촉진하고 그 결과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④ 기술이전효과: 기술지식의 창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간접적 기술 이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가능
 -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외국인 직접투자의 직접적 유인을 제공함으 로써 국내생산력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며, 기술 및 경영 등의 측면 에서 긍정적 외부효과 촉발
 -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 잉여가 증대

○ 반면, 다수 영세규모의 국내 산업과의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상당수의 국내 기업이 대규모 외국 자본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도 있다.

○ 한·미 FTA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유보안은 포괄적인 개방을 유도하 고 개방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내외국인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서비스 자유화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측 면이 있어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즉, 우리나라 유보 안에 기재한 수준 이상으로 추가적인 제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FTA 협정 에 제한하면(binding) 외국인 투자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¹⁶

○ 한·미 FTA의 서비스 유보안에 자유화 후퇴 방지 장치(Ratchet Mechanism)

16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7.4.30) 국회 한미FTA특위 자료 참조

이 적용되어 있다. 래칫메카니즘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자유화 수준이 동결되는 효과가 발생해 법적 안정성을 더욱 제고하여 해당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촉진에 기여하게 된다.

- 상호자격인정(MRA)가 추진될 경우 전문직 분야의 상호자격 인정 추진은 분야별 교육훈련 및 평가제도 개선, 전반적인 전문직 서비스의 시스템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전문 인력 이동형태의 서비스 수출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 서비스 자유화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균형모형을 분석한 OECD(2004), 세계은행(2005)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자유화는 기술 도입으로 인한 성장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 멕시코의 관광산업 개방에 따른 성과분석에서도 관광산업의 빠른 투자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서비스 산업 개방도 높은 생산증가율과 투자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싱가포르는 미국과의 FTA 발효 2년 경과 후 높은 생산증가율과 활발한 외국인의 투자와 경기회복세에 의해 금융서비스업 호황 등을 누리고 있다.

2. 한·미 FTA 체결에 의한 유가공산업의 영향 분석

2.1. 분석 대상 산업

- 앞서 논의한 9개 가공식품의 품목군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품목군을 선정하였는데, 선정 기준은 <표 IV-21>과 같다. 구체적인 품목군 선정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전문가 그룹과 품목별 업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 시장의 과급 효과 기준으로 보면, 유가공품, 육가공품, 알콜음료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들 품목은 한·미 FTA 협상 결과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미국산 가공식품의 국내 시장 유입이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는 품목으로 예측된다.
- 농업과의 연계 수준의 경우, 유가공품과 육가공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과채가공품(주스류)은 감귤주스와 일부 야채주스류를 제외하고는 이미 수입산 농축액을 사용하고 있기에 전반적인 농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진 다. 또한 곡물가공품(전분류 등)과 식용유지는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하고 있기에 농업의 연계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자료 수집의 용이성에서는 대기업에서 주로 생산하는 곡물가공품과 식용유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간내지는 낮은 용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선정 내용에 근거하여, 한·미 FTA 협상 체결의 구체적인 과급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대상 품목군으로 유가공품을 선정하였다. 유가공품의 경

우 현재 수입 유가공품중 미국산의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나 한·미 FTA 체결이후 국내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내 유가공품 생산 원료의 대부분이 국내 낙농가로부터 공급되고 있기에 농업에의 연관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2. 분석 모형

2.2.1. 모형의 선정

○ 한·미 FTA 협상 체결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표 IV-21. 분석 대상 품목 선정

품목	선정 기준		
	시장의 파급 효과	농업의 연계 수준	자료 수집의 용이성
유가공품	높음	높음	중간
과채가공품	중간	중간	중간
육가공품	높음	높음	낮음
곡물가공품	낮음	매우 낮음	높음
식용유지	낮음	매우 낮음	높음
빵, 과자, 국수	중간	낮음	중간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낮음	중간	중간
기타식료품	중간	중간	낮음
알콜음료	높음	중간	중간

는 일반연산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총량모형(KREI- ASMO),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 모형 등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분균형모형인 EDM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을 채택하였다.

- 부분균형모형의 경우 국가 전체 산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일반균형모형과 달리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역협상 등에 의한 외부충격이 미치는 특정 산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부분균형모형을 사용한 사례는 매우 많은데, 최세균 외 (2006)의 연구와 Summer 외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 다만 부분균형모형은 정태모형 (Static Model)으로의 한계를 지닌다. 즉 한·미 FTA에서 체결된 관세 철폐 협의 결과가 수년간 (유제품의 경우 7년~15년)의 관세 인하 및 무관세 쿼터의 증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모형에서는 관세 철폐가 분석 시점에 당장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한·미 FTA가 체결 후 관세 철폐의 시장충격이 수년에 걸쳐 차등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최종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국내외 산업의 동태적인 반응에 대한 부분은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 EDM을 통한 한·미 FTA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파라미터 수치들의 확보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파라미터로는 유제품들의 수요 및 공급탄성치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가 드물기에 직접 추정하거나 가정할 필요가 있다.¹⁷ 수요 탄성치의 경우 자체가격 탄성치와 교차가격탄성치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의 추정을 위해 로그함수 모형과 LA/AIDS 모형을 적용하였다.

17 유제품의 자체수요 완성치를 추정한 연구로는 백종희 외(2002), 송주호 외(2005), 이철현 (1997), 정경수 외(2003) 등이 있음.

2.2.2. 탄성치 추정 모형

가. 로그함수 모형

- 시뮬레이션 분석에 사용될 파라미터(탄성치) 추정을 위해 로그함수 (Log-Log Function)를 이용한 단순 회귀분석(OLS)을 실시하였다.
- 단순 회귀분석을 위한 함수의 기본 형태는 식 (1)과 같다. 식 (1)을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로그함수 형태로 전환하면 식 (2)와 같은데, 여기서 추정된 계수를 탄성치로 사용하게 된다.

$$(1) \quad Y_i = f(P_i, P_k, I)$$

$$(2) \quad \ln Y_i = \zeta \ln P_i + \alpha \ln P_k + \xi \ln I$$

Y = 물량

P_i = 품목별 가격 (i = 한국, 미국, 미국 외 수입국)

P_k = 한국산 가격

I = 소득

나. LA/AIDS 모형

-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탄성치) 추정을 위해 Deaton and Muallbauer (1980)이 제안한 LA/AIDS (The Linear Approximate Almost Ideal Demand System Model) 모형을 사용하였다.
- LA/AIDS 모형의 기본 형태는 아래 식 (3)과 같은데, LA/AIDS 모형을 이용하여 유가공품목별로 한국산, 미국산, 미국 외 기타국산으로 구분된 각각의 가격과 생산량을 변수로 넣고 탄성치들을 추정하였다.

$$(3) \quad S_k = \alpha_k + \sum_j \gamma_{kj} \ln p_j + \beta_k \ln \left(\frac{M}{P} \right)$$

P : 스톤의 가격지수 (Stone's price index), $\ln P = \sum S_l \ln p_l$

S_k : k 번째 상품의 지출 몫 (Expenditure share)

p_k : k 번째 상품의 가격

M : 총 지출액

2.2.3. EDM모형

○ 한·미 FTA의 협상 결과가 유가공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EDM 모형의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다.

$$(4) \quad i \text{ 국산 유가공품 수요함수:} \quad X_{D_i}^d = d_{D_i}(P_{D_i}, P_{U_i}, P_{\alpha_i})$$

$$(5) \quad i \text{ 미국산 유가공품 수요함수:} \quad X_{U_i}^d = d_{U_i}(P_{D_i}, P_{U_i}, P_{\alpha_i})$$

$$(6) \quad i \text{ 기타 수입국산 유가공품 수요함수:} \quad X_{\alpha_i}^d = d_{\alpha_i}(P_{D_i}, P_{U_i}, P_{\alpha_i})$$

$$(7) \quad i \text{ 유가공품의 국내 전체 수요:} \quad X_{T_i}^d = X_{D_i}^d + X_{U_i}^d + X_{\alpha_i}^d$$

$$(8) \quad i \text{ 국산 유가공품 공급함수:} \quad X_{D_i}^s = s_{D_i}(P_{D_i})$$

$$(9) \quad i \text{ 유가공품의 국내시장 균형조건:} \quad X_{T_i}^d = X_{D_i}^s + X_{U_i}^s + X_{\alpha_i}^s$$

$$(10) \quad i \text{ 미국산 유가공품의 국내 가격:} \quad P_{U_i} = P_W \omega_i$$

(11) 관세 조건:

$$\omega_i = 1 + \tau_i$$

- 식 (4)는 i 번째 국산 유가공품의 수요를 정의하는 함수로 국산 유가공품의 수요는 자체 가격(P_D)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 관계가 있는 미국산 유가공품의 국내 수입 가격(P_U)과 미국을 제외한 기타 수입국산 유가공품의 국내 수입 가격(P_a)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규정했다.¹⁸ 식 (5)와 (6)은 각각 i 번째 미국산 유가공품의 수요와 i 번째 기타국산 유가공품의 수요를 정의한 식인데, 각각의 수요가 자체 가격뿐만 아니라 대체재의 가격의 영향을 받게 됨은 식 (4)와 같다. 이를 통해 한·미 FTA 체결을 통한 미국산 유가공품의 관세 인하로 하락하는 미국산 유가공품의 국내 수입 가격이 국산 및 기타국산 유가공품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식 (7)은 i 번째 유가공품의 국내 전체 수요(X_T^d)¹⁹를 나타내는 데, 우리나라 국민이 i 번째 유가공품의 소비를 위해 국산(X_D^d), 미국산(X_U^d), 기타국산(X_a^d)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소비함을 반영한다.
- 식 (8)은 i 번째 국산 유가공품의 공급을 정의하는 함수로 국산 유가공품의 공급(X_D^s)²⁰은 자체 가격의 변화에 따라 결정됨을 나타낸다. 본 모형에서는 미국산 유가공품과 기타국산 유가공품의 공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시장의 변화가 세계 시장(World Market)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국(Small Country)가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 식 (9)는 i 번째 유가공품의 국내 시장 균형조건 (Market Clearing Condition)

18 여기서, 위첨자 “d”는 수요(demand)를 의미하고, 아래첨자의 “D”, “U”, “O”는 각각 국내(domestic), 미국(US), 기타 수입국(other countries)를 지칭함. 또한 아래첨자 “i”는 i 번째 유가공품을 나타냄.

19 여기서 아래첨자 “T”는 전체 수요(total)을 나타냄.

20 여기서 위첨자 “s”는 공급(supply)을 나타냄.

을 나타낸다. 즉 i 번째 유가공품의 전체 수요량(X_{Ti}^d)은 국산 공급량(X_{Di}^s), 미국산 공급량(X_{Ui}^s), 기타국산 공급량(X_{Oi}^s)의 합과 같게 된다.

- 식 (10)과 (11)은 i 번째 미국산 유가공품의 관세(τ_i)의 변화가 미국산 유가공품의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하고 있다. 즉 미국산 유가공품의 국내 가격(P_{Ui})은 세계 가격(P_W)²¹에 관세가 더해진 가격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한·미 FTA 체결을 통해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유가공품의 국내 가격과 세계 가격은 서로 같아지게 된다.
- 이상의 모형을 적용하여 한·미 FTA의 협상 결과가 유가공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 분석(Numerical Analysis)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기본 모형의 식 (4)~(11)을 각각 전미분한 다음 탄성치 형태로 변환하면 다음의 식 (4)'~(11)'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E”는 비율적 변화분 (Proportional Change)을 나타낸 것으로, EX_{Di}^d 의 경우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기 전의 초기 값에 대한 한·미 FTA 체결로 변화한 값의 비율($\frac{dX_{Di}^d}{X_{Di}^d}$)을 나타낸다.

$$(4)' \quad EX_{Di}^d = \eta_{DDi} EP_{Di} + \eta_{DUi} EP_{Ui} + \eta_{DOi} EP_{Oi}$$

$$(5)' \quad EX_{Ui}^d = \eta_{UDi} EP_{Di} + \eta_{UUi} EP_{Ui} + \eta_{UOi} EP_{Oi}$$

$$(6)' \quad EX_{Oi}^d = \eta_{ODi} EP_{Di} + \eta_{OUi} EP_{Ui} + \eta_{OOi} EP_{Oi}$$

$$(7)' \quad EX_{Ti}^d = \phi_{Di} EX_{Di}^d + \phi_{Ui} EX_{Ui}^d + \phi_{Oi} EX_{Oi}^d$$

21 여기서 아래첨자 “W”는 세계(world)를 나타냄.

$$(8)' \quad EX_{D_i}^s = \varepsilon_i EP_{D_i}$$

$$(9)' \quad EX_{T_i}^d = \theta_{D_i} EX_{D_i}^s + \theta_{U_i} EX_{U_i}^s + \theta_{\alpha_i} EX_{\alpha_i}^s$$

$$(10)' \quad EP_{U_i} = E\omega_i$$

$$(11)' \quad E\omega_i = \phi E\tau_i$$

○ 식 (4)'~(6)'의 η 는 수요에 대한 가격 탄성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식

(4)'의 $\eta_{DD} \left(= \frac{\partial X_D^d}{\partial P_D} \frac{P_D}{X_D^d} \right)$ 과 $\eta_{DU} \left(= \frac{\partial X_D^d}{\partial P_U} \frac{P_U}{X_D^d} \right)$ 은 각각 i 번째 국산 유가공품의 수요에 대한 자체가격탄성치와 교차가격탄성치를 나타낸다.

○ 식 (7)'에서의 ψ 는 전체 국내 수요에 대한 해당 유가공품 수요의 비중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psi_D \left(= \frac{X_D^d}{X_{T_i}^d} \right)$ 는 i 번째 유가공품의 국내 전체 수요 중 국산 유가공품 수요의 비중이다.

○ 식 (8)'에서 $\varepsilon_i \left(= \frac{\partial s_D}{\partial P_{D_i}} \frac{P_{D_i}}{s_D} \right)$ 는 i 번째 국산 유가공품의 공급탄성치이고,

식 (9)'에서 θ 는 전체 국내 수요에 대한 해당 유가공품 공급의 비중을 의미

한다. 예를 들어, $\theta_{D_i} \left(= \frac{X_{D_i}^s}{X_{T_i}^d} \right)$ 는 i 번째 유가공품의 국내 전체 수요 중 국산 유가공품 공급의 비중이다.

○ 식 (11)'에서 $\phi \left(= \frac{\tau_i}{1+\tau_i} = \frac{\tau_i}{\omega_i} \right)$ 는 관세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 식 (4)'~(11)'로 변화된 모형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Simulation Analysis)을 통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유가공산업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미 FTA 체결에 의한 관세율 변화는 식 (11)'의 E_{T_i} 값을 통해 적용된다.

2.3. 분석 결과

2.3.1. 분석 대상 유가공품 품목의 선정 및 자료 수집

- 한·미 FTA에서 논의 대상으로 선정된 유가공품은 분유·유당·연당, 치즈, 밀크와 크림, 버터, 유장, 아이스크림 등이다. 이 중 탄성치 추정 및 시뮬레이션 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 가능 여부와 미국이 한·미 FTA 체결을 통해 국내 시장 진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품목²²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치즈와 버터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먼저 탄성치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해 품목별로 가격과 물량 자료를 조사하였다. 국산 유가공품의 가격과 물량 자료는 낙농진흥회, 유가공협회, 통계청의 관련통계자료와, 유가공품 생산 업체의 내부 자료 등을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한편 미국산과 미국 외 기타국산의 가격과 물량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2.3.3. 파라미터 추정

- 시뮬레이션 분석에 사용될 파라미터 값의 선정을 위해 분유, 치즈, 버터, 아

²² 미국은 한·미 FTA 체결로 자국의 치즈, 아이스크림, 유장(whey)의 한국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표 IV-22. 유가공품의 수요에 대한 자체가격탄성치

	국산	미국산	미국 외 기타국산
분유	- 1.095~- 0.445	- 0.830~- 0.497	- 0.763~- 0.717
치즈	- 0.881~- 0.214	- 0.939~- 0.428	- 0.771~- 0.711
버터	- 1.369~- 1.067	- 0.817~- 0.798	- 0.796~- 0.773
아이스크림	-	- 0.798	- 0.698

아이스크림에 대한 자체가격탄성치와 교차가격탄성치를 추정하였다.²³ 자체가격탄성치의 경우 로그함수 모형과 LA/AIDS 모형을 월별 자료와 연도별 자료를 가지고 각각 추정한 결과 중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추정치들의 범위를 선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22>와 같다. 여기서 표에 나타난 품목별 자체완성치 범위의 중간값을 시뮬레이션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값으로 채택하였다.

- 유가공품 중 버터의 수요에 대한 자체가격탄성치는 추정 모형과 사용 자료와 상관없이 유사한 추정치를 보이고 있는데, 버터의 자체가격탄성치의 크기가 국산, 미국산, 기타 수입국산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버터의 경우 시장가격에 대한 수요의 반응이 국산 버터가 가장 민감하고, 미국산과 기타 수입국산이 뒤를 잇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분유,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에 대한 국산과 미국산, 국산과 기타국산, 미국산과 기타국산에 대한 수요의 교차가격탄성치는 LA/AIDS 모형을 월별 자료와 연도별 자료를 가지고 각각 추정을 시도하였는데, 추정 결과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가 적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교차가격탄성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일부 추정결과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에 따

23 탄성치 추정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패키지는 SHAZAM을 사용하였음.

라 가정하여 적용하였다.²⁴ 공급탄성치 등을 포함한 기타 파라미터 값 또한 선행연구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가정치를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3.4. 시뮬레이션 분석

가. 분석 시나리오

- 한·미 FTA 체결이 국내 유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표 IV-23>과 같다. 즉 미국산 유가공품의 현행관세를 즉시 철폐할 경우의 영향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는 외부 충격이 한 시점에 발생할 때의 영향을 분석하는 정태모형(Static Model)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 그러나 실제 치즈와 버터에 대한 한·미 FTA 합의 내용에는 관세 철폐 로드맵이 관세 철폐를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실제와 오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 구체적인 품목별 현행관세 기준을 보면, 치즈와 버터의 경우 세부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유사하여 대표품목의 관세율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현행 관세 기준치로 설정하였다.

나. 시뮬레이션 결과

-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 유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24>와 같다. ²⁵

²⁴ 시뮬레이션분석을 위한 파라미터로 사용된 교차가 격환성치 값은 자체가격완성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미국산과 기타 수입국간의 교차완성치값이 국산과 미국산 및 국산과 기타 수입국가간의 교차탄성치 값보다 크도록 설정하였음.

²⁵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패키지는 GAMS를 사용하였음.

표 IV-23. 품목별 시나리오

품 목	시나리오 내용
치즈	○ 현행 관세(36%)를 즉시 철폐
버터	○ 현행 관세(89%)를 즉시 철폐

○ 치즈의 경우, 한·미 FTA 체결로 현행 관세가 즉시 철폐될 때 미국산 치즈의 국내 수입가격은 26.5% 하락하여 국내 수요가 16.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타 수입국산 치즈에 대한 관세는 고정되어 국내 수입가격의 변화가 없으므로 기존 거래량의 11.8%가 감소하여 기타 수입국산 치즈 수요의 일부가 미국산 치즈로 대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산 치즈의 가격과 거래량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미국산 치즈의 관세 철폐로 인해 각각 8.2%와 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발생하는 국내 치즈산업의 매출 감소액은 341억원인데, 이는 2006년 매출액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V-2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관세 즉시 철폐시의 영향		치즈	버터
가격변화율	국산	-8.2%	-14.5%
	미국산	-26.5%	-47.1%
	기타 수입국산	-	-
거래량 변화율	국산	- 0.7%	-1.2%
	미국산	16.7%	29.6%
	기타 수입국산	- 11.8%	-21.1%
국내 산업의 매출액 (2006년 기준) ¹⁾ (A)		3,868억원	109억원
관세 철폐로 인한 매출 감소액 (B)		341억원	17억원
(B/A)×100		8.8%	15.6%

주: 1) 국내산업의 매출액은 낙농진흥회 자료임.

- 한편 버터의 경우,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현행 관세가 즉시 철폐 시 미국산 버터의 국내 수입가격은 47.1% 하락하여 국내 수요가 29.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타 수입국산 버터에 대한 관세는 고정되어 국내 수입가격의 변화가 없으므로 기존 거래량의 21.1%가 감소하여 기타 수입국산 버터에 대한 국내 수요의 일부가 미국산 버터로 대체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산 버터의 가격과 거래량은 각각 14.5%와 1.2%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발생하는 국내 버터산업의 매출 감소액은 17억원인데, 이는 2006년 매출액의 15.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 시뮬레이션 분석의 한계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은 국내 시장에서 국산, 미국산, 기타 수입국산 치즈와 버터 완제품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미국산 치즈와 버터 완제품의 국내 수입가격이 하락함으로 발생한 시장 충격이 개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국내 산업체의 매출 감소액을 추정하였다.
- 본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수입되는 유가공품이 다른 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투입재(input)로 사용되는 상황은 반영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상당부분의 수입산 분유가 국내 아이스크림이나 발효유 생산을 위한 투입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한·미 FTA 체결로 인화된 미국산 분유 국내 수입가격이 아이스크림제조업체나 발효유제조업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 유가공산업간의 연관성을 감안하지 않았기에, 분석 결과를 통해 한·미 FTA가 우리나라 유가공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뮬레이션 분석에 적용된 모형은 정태모형으로 실제 한·미 FTA로 개별 미국산 유가공품의 관세가 장기간에 걸쳐서 삭감되는

과정을 반영하지 않았다. 분석에서는 품목별 현행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상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실제 관세가 완전 철폐되기까지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한·미 FTA가 체결 후 관세 철폐의 시장충격이 수년에 걸쳐 차등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최종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국내외 산업의 동태적인 반응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여, 국내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계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이 우리나라 가공식품 및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주요국(미국, 중국, 호주, EU)의 가공식품산업 및 외식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다음, 우리나라와의 교역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가공식품과 외식산업 부문에 대한 한·미 FTA 협상 결과와 DDA 논의 쟁점을 분석하였고,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 가공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9개 품목군(유가공품, 과채가공품, 육가공품, 곡물가공품, 식용유지, 빵·과자·국수,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기타식료품, 알콜음료)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한·미 FTA 체결이 가공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유가공품 중 주요 품목(치즈와 버터)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에 사용될 파라미터(탄성치) 추정을 위해 로그함수 모형과 LA/AIDS 모형을 사용하였고, 시뮬레이션 분석 모형으로는 부분균형모형인 EDM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치즈와 버터 모두 한·미 FTA 체결이후 미국산 유가공품이 기타 수입국산의 일부를 대체하고 국내 시장을 잠식하여 해당 국내 생산업체의 매출액 감소가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 실시된 시뮬레이션 분석 모형은 정태모형으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철폐가 즉시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한·미 FTA가 체결 후 관세 철폐의 시장충격이 수년에 걸쳐 차등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최종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국내외 산업의 동태적인 반응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여, 국내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계측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 분석 시 치즈와 버터 개별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각각 시행하여 유가공산업간 연관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수입되는 유가공품이 다른 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투입재(input)로 사용되는 상황은 반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상당부분의 수입산 분유가 국내 아이스크림이나 발효유 생산을 위한 투입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한·미 FTA 체결로 인화된 미국산 분유 국내 수입가격이 아이스크림제조업체나 발효유제조업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게 됨이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통해 한·미 FTA가 우리나라 유가공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이러한 연구 결과의 한계는 상당부분 관련 기초자료 수집의 어려움에서 기인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국산 가공식품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 통계자료 축적이 잘되어있는 유가공품의 경우에도 품목별 가격과 생산량 등에 대한 공식적인 시계열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내에서 접근 가능한 가공식품 통계자료의 품목별 코드로 AG코드, HS코드, KSIC코드, MTI코드 등이 있는데, 코드별 품목 분류 기준이 다르고 상호 호환성도 낮아서 시계열 자료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통계 D/B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이 국내 가공식품산업 또는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FTA 체결로 국내 가공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본 연구 결과가 관련 논의와 후속 연구의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곽창근. 2007. “한미 FTA의 식품산업에 대한 영향분석.” 「FTA대응 식품산업의 글로벌전략」 심포지엄 자료. 한국식품연구원.
- 김경필 외. 2004.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외. 2003. 「DDA 농업협상이 원예특작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5. “수출입통계.”
- 대한민국 국회 한미 FTA 특위. 2007.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박형희. 2007.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 「FTA대응 식품산업의 글로벌전략」 심포지엄 자료.
- 백종희 외. 2002. “우유의 수요분석과 소비정보” 「농업경영·정책연구」 29권 2호
- 성명환 외. 2004. 「WTO/DDA 협상타결이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영관. 2006. 한미FTA의 영향 및 기대효과: 서비스산업.
- 송주호 외. 2005. 「우유수급전망과 조절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식품의약청, 2005,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 안기옥. 1997. “WTO이후 농축산물 식품 수입자유화 현황.” 「식품과학과 산업」 30권 4호.
- 어명근 외. 2004. 「한·일 FTA 체결과 임업부문의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여정성. 1997. “소비자 보호 차원의 식품시장 개방과 대응방안.” 「식품과학과 산업」 30권 4호.
- 윤창인. 2005.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대외정책경제연구원.
- 이준규. 2007. 「한·미 FTA가 국내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강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철현. 1997. 「원유수급에측모형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인배. 2004. 「FTA 체결이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2004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장종근. 1997. “WTO 체제하의 식품수출 전망.” 「식품과학과 산업」 30권 4호.
- 정경수 외. 2003. “시유 수요의 구조 변화와 예측.” 「농업경영·정책연구」 30권 1호.

- 최세균 외. 2003.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2006. “주요 FTA 대상국 농산물 관계체계 비교분석.” 「농촌경제」 29권 5호.
- 최세균 외. 2006. 「한·미 FTA 품목별 영향 분석 및 국내대책 수립과 D/B 보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2005.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보고서.
- 통계청. 2005.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 통계청. 1990. 2004. 도소매업통계조사.
- 통계청. 1996. 도소매업총조사.
- 한국외식정보. 2006. 월간식당.
- 한국외식정보. 2006. 한국외식연감.
- Alston, J.M., G.W. Norton, and P.G. Pardey. 1995. Science under Scarcity. CAB International.
- Food and Agriculture Division, Australian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2006. Australian Food Statistic.
- Christopher Short, Courtney Chester, Peter Berry, and Lisa Elliston. 2007. “Australian Food Industry.” Australian Commodities Outlook. Australian Bureau Agricultural Resource Economics(ABARE)
- CIAA (Confederation of the food and drink industry of the EU). 2006. Data & Trends of the European Food and Drink Industry.
- EUROSTAT (European Statistics Office). 2005. Profiling Food Consumption : Comparison of USA and EU. Food Consumption Observatory, Belgium Department of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 Gardner, B.L. 1987. The Economics of Agricultural Policies. New York: Macmillan.
- Muth, R.E. 1964. “The Derived Demand Curve for a Productive Factor and the Industry Supply Curve.” Oxford Economic Papers 16.
- Sumner, D.A., H. Lee, and D.G. Hallstrom. 1999. “Implications of Trade Reform for Agricultural Markets in Northeast Asia: a Korea Example.” Agricultural Economics 21.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01. U.S.-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Establishing a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USITC Publication.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07.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wide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 USITC Publication.

Web-site of The Center for Hospitality Research at Cornell University

(www.hotelschool.cornell.edu/research/chr/pub)

Web-site of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www.restaurant.org)

Web-site of U.S. Census Bureau(www.census.gov)

Web-site of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http://ita.doc.gov>)

연구보고

FTA 협상에 따른 가공식품 및 식품·외식업계의 영향 분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7. 12.
발 행 2007. 12.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http://www.khip.co.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